

모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평창에 등지 틀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기공 모교는 총 2천2백90억원을 들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2백77만㎡에 단지를 건설, 2011년 완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관악출추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퇴근시간, 사무실 빌딩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에서 탄 4명의 여직원들이 무언가 열심히 떠들고 있다. 6층에서는 청년 3명이 타면서 잡담을 계속하고 있다. 5층에서도 서너 명의 젊은 남녀들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히히덕거리고 있다. 순식간에 만원 엘리베이터가 호떡집 불난 것처럼 시끄럽다. 참다못해 ‘노퍽’티를 내고 말았다. “서로 조용히 좀 합시다!” 한마디에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순식간에 멈춘 듯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지난 봄 일본 규슈지역의 온천장, 입구에 여러 켄레의 슬라이퍼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내 자신도 무심코 슬라이퍼를 벗고 들어가려다 바로 뒤따라 들어오던 일본인이 계다를 벗어 신발장에 넣는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내 슬라이퍼를 신발장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다. 온천장 주인은 탕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한국인 손님이 몇 명이고 일본인 손님이 몇 명 왔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과 아무데나 마구 벗어 놓은 신발이 각각 몇 켄레인가 세어보면 된다는 것이다.

예절이란 과거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예절로 보편화되면서,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공중도덕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오랫동안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 받아오던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남을 배려하는 공중예절을 고리타분한 유산으로 치부하고, 자기의 편익만을 쫓는 파렴치한 행위를 신세대 특권층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병리 현상은 결과적으로 곳곳에서 타협보다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예절이 국력이다

는 ‘폐法’ 문화를 고착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절과 法治가 바로 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Noblesse Oblige’에 솔선수범하는 서울대 동문들이 예절지킴기 범국민운동에 앞장설 때가 아닌가 싶다.

(金仁奎는설위원)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7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5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티오프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031-880-0300)
- ◆참가대상 :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진 행 : 샷건방식
- ◆시상내역 :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행운, 깜짝상 등 시상.
출입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예정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 서울대학교

그리나무광장

‘불안정한 이동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책을 읽다가 부딪힌 한 구절의 글이 마음을 흔든다.

가끔은 일상의 헛바퀴 속에서 아무 문제없이 술술 굴러가는 삶의 의미를 반추해 볼 때가 있는데 이즈음에 문맥 전후 상관없이 쫓힌 글이 이 대목이다.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 벌써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것, ‘노마디즘(Nomadism)’을 떠올린 까닭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가 현대철학의 한 개념으로 재규정한 용어 ‘노마드(Nomad)’는 원래 ‘유목민’, ‘유랑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철학적으로는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짧은 날에 인생을 대하는

꽤 멋있는 자세로 생각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내 안의 나침반이기도 했다.

한민족의 뒤통수에 ‘노마드’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인류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중앙아시아 지방으로부터 몽골과 만주, 그 긴 여정 끝에 아시아의 동단 한반도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한민족은 그중 가장

‘가지 않은 길’을 가라

金亨珉
SBS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용기 있는 ‘노마드’가 아니었나 싶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블레스 노마드(Noblesse Nomad)’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명품 수집 등에 열을 올리기도 하는 여행, 레저, 공연 등 무형의 경험을 수집하는 새로운 소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 속의 풍부한 경험으로 삶을 풍족하게 만들려는 이들 삶의 자세도 참 멋져 보인다.

‘안전함’에 기대는 삶처럼 재미없는 삶은 없다. 세월에 비례해 자신과 결부된 온갖 삶의 잡동사니들로 짐을 늘려 가는 ‘정착민의 삶’을 살기보다는 ‘불안정’해 보이는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이 되는 것을 버려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기를 ‘젊음’에 권고한다.

도서관에서 읽는 책이 책의 전부는 아니다. 휴가철을 맞아 모처럼 자신만을 위한 시간계획이 가능해진 ‘대학인’들에게 ‘노마드’가 되어보기를 권한다. 최소한의 짐을 꾸려 내일 새벽이라도 떠나보자.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는 길일수록 더 좋을 듯하다.

관악시단

호수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영문학과 명예교수·시인

호수는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 소녀의 눈망울처럼

깊고 그윽하다

너무 깊은 그리움이다

물결로 흔들리는 흰구름 몇 점

큰 산을 물속에 잠재우고

새와 포플러를 끌어안고서

월새없이 그리움을 솟아올린다

호수에 드리운 나의 그림자

내가 나르시스는 아니어서

수선화로 피어나지 않겠지만

물끄러미 바라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

그리움이 겹겹이

호숫물 속에서 출렁거린다.

동문칼럼

서울대생이라면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꿈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울대학생이 되기를 열망한다. 서울대가 갖는 이러한 특별한 위상은 훌륭한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틀림없다. 그분들은 개인적인 성공을 이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공과 사회적 발전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동문 중에는 세계대통령이라는 潘基文 UN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조직을 이끌며 우리나라와 인류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자랑스런 동문도 많다. 어느 사립대학의 동창회장처럼 비리에 연루돼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는 일이 없이 사회적 책임감이 투철한 동문들이 많아 가슴 뿌듯하다. 게다가 최근 소식에 따르면 글로벌 CEO를 배출

서울대학교가 과에 상관없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가지원도 예산규모의 25%에 그치는 반면, 때로는 규제기관과의 협상이 국제경쟁을 위한 노력보다 더 힘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식 획일적 보상구조로는 외국인은 물론 우수한 내국인 교수 확보도 쉽지 않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교는 열심히 노력해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무한경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모교는 물론 동문, 동창회 모두 힘을 합쳐 모교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과 훌륭한 동문의 배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창회는 동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모교발전의 당사자이다. 동창회는 바로 현세대의 동문들이 해 온 것처럼 차세대의 훌륭한 리더를 길러낼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동창회 모임에서는 친목도 좋지만 모교의 성과에 대한 보고와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모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물심 양면의 도움도 확대되기를 바란다. 후배 재학



安泰植
(경영75-80)
모교 경영대 학장

서울대 동문은 겨레의 빛과 소금

한 순위가 세계 5위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30년 전에 졸업한 동문들의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지금 졸업하는 동문들이 30년 후에 이뤄낼 수 있을까?

약 40여 년 전의 서울대학교는 입학정원규모, 교수와 입학생의 수준과 자질, 국가로부터의 지원 등 어느 하나 빠짐 없이 대한민국 최고수준이었다.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현재 입학정원의 상대적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과거처럼

생들에 대해서는 동문들의 따듯한 충고와 함께 애정 어린 도움처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서울대학교는 겨레의 대학이어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동문들이 겨레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동창회, 동문, 모교가 함께 진정성 있게 노력하면, 우리 겨레, 나아가서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자랑스런 동문들이 배출될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勳,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幸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동창회보는 동문여러분의 사랑방입니다

시, 콩트, 미술작품 등의 게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86-2219 / 팩스 : 886-2218 / 이메일 : snua@paran.com / snua@korea.com

8. 9 월
행사 캘린더

8월 20일(목) 오전 11시30분

• 본회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모교 연구공원 1층 강당

〈문의 : 702-2233〉

8월 21~23일

• ALP동창회 골프대회

제주도 로드랜드CC

〈문의 : 010-5244-7498〉

8월 27일(목) 오전 6시

• 치대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 한화CC

〈문의 : 742-7082〉

8월 27~29일

• AFB 해외여행

백두산

〈문의 : 880-2529〉

9월 7일(월) 오전 10시

• 본회 제5회 동문 골프대회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

〈문의 : 702-2233〉

9월 7일(월) 오전 11시30분

• 상대동창회 장학금수여식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문의 : 761-2278〉

9월 7일(월) 오후 6시30분

• ROTC동창회 관악문무포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문의 : 871-0522〉

9월 11일(금) 오후 6시30분

• 문리대65동기회 동송포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

〈문의 : 6678-6009〉

9월 12일(토) 오후 3시

• 전기동창회 흠커밍데이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887-5222〉

9월 14일(월) 오전 7시

• AFB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용인 신원CC

〈문의 : 880-2529〉

영동지부동창회

洪東善·安任洙회장 유임

영동지부동창회(공동회장 洪東善·安任洙)는 지난 7월 16일 강릉시내 중식당 루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洪東善(임학56-61)·安任洙(영어교육65-69)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으며, 감사에 鄭基成(대학원80졸)동문, 총무에 沈大榮(토목공학81-85)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 속초담당이사에 孫雄卿(의학77-83)·金奇彦(조선공학82-86)동문, 동해·삼척·태백담당이사에 金硤洙(수의학81-88)·李瑛周(수의학83-87)동문이 수고하기로 했다. 단과대별 이사로는 張德亨(토목공학78-82)·金和泳(원예71-76)·權泰亨(법학78-82)·鄭永麟(체육교육81-85)·李瑛周·全芳郁(식물75-79)·金裕哲(기약80-84)·李相庸(의학64-70)·金曉璟

이오퀸 趙喆熙(농화학70-77)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3명에게 학자금을 전달했다.

노천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1백여 동문 가족들은 점심식사 후 노래자랑과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모교에서의 짧은 하루를 마감했다.

농화학과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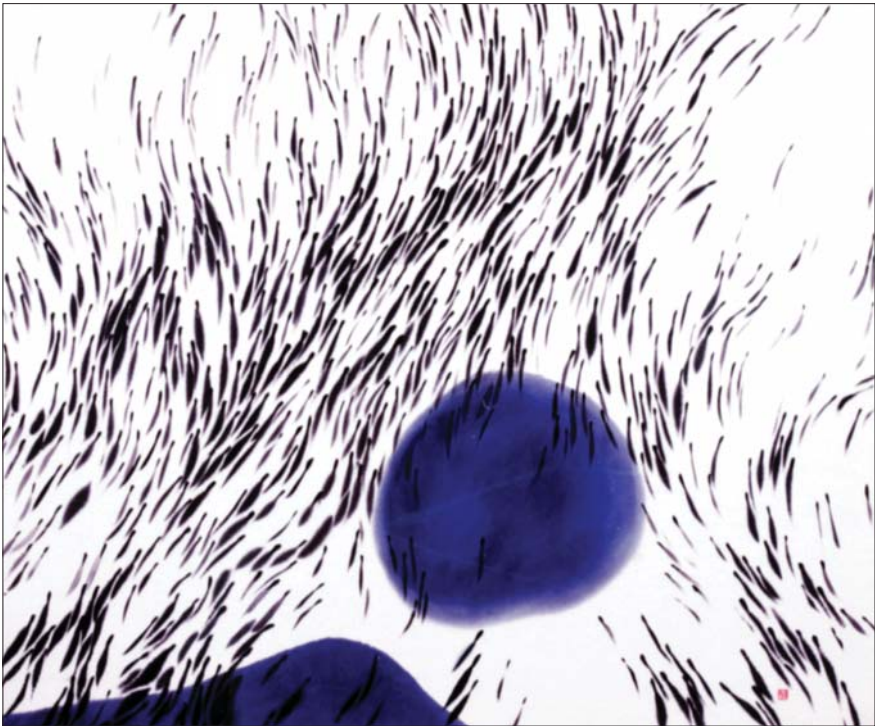
趙喆熙회장 선출

농화학과동창회(회장 李用益)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비전바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鄭致煥作



‘浮上’ 수묵담채, 135×163cm, 2008.

〈작가약력〉

- ▲60~64년 모교 회화과 졸업
- ▲정년기념 사제전 외 개인전 12회

- ▲새 한국화의 단면전-서구 순회전
- ▲한·중·일 현대 수묵화전
- ▲중국 심천 국제수묵비엔날레
- ▲제1회 毅齋 許百鍊 예술상

- ▲제3회 미술세계상
- ▲국전 문공부장관상
- ▲대구시 문화상
- ▲현재 한국화회 회장

임학동문회

태화산서 식목 행사

임학동문회(회장 鄭潤煥)는 최근 경기도 광주 태화산 학술림에서 동문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동문회는 오는 9월 동 장소에서 밤 줍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학73-80)·鄭義宗(치의학65-71)·嚴寅鎔(치의학82-88)·鄭基成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속초·삼척 등의 지역에서도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지역발전과 불우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의결했다. 또 새로 선임된 단과대별 이사는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춰 동문들의 전입·전출과 경조사가 있을 시 직접 동문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다.

동송클럽

崔 革동문 포럼 특강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6월 12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3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崔 革(외교65-72)前주제네바 대사가 연사로 초빙돼 ‘외교관과 통상협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동송클럽은 분기별 포럼 외에도 매월 정기산행과 바둑모임을 개최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사학과동창회

첫 사학인 포럼 열어

사학과동창회(회장 李濟薰)는 지난 6월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사학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교 李泰鎭(사학61-65) 명예교수가 연사로 초빙돼 ‘인증근의 동양평화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동창회는 학과의 특성을 살려 매년 두 차례의 역사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1968년 사학과가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국사학과로 분리 개편된 이후 사학과동창회 외에도 각 학과 동창회가 조직돼 활동해 오고 있다.

AMP동창회

玄珡錫원장 특강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7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70회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光石회장, 모교 경영대학 安泰植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연사로 한국개발연구원 玄珡錫(경영70-74)원장이 초빙돼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인문대학동창회

마포에 사무처 개소

인문대학동창회(회장 朴孟浩)는 최근 서울 마포구 성산동 232-4 성산빌딩 402호에 사무처를 개소했다. 〈문의 : 803-2262〉

(南)

SGS동창회

이탈리아 도시 연수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承漢)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이탈리아 티볼리, 시에나, 피렌체, 베니스 등의 도시를 탐방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동문 가족 30여 명이 참가했다.

치과대학·치대원동창회

전국 치대동창회 골프 우승

치과대학·치대원동창회(회장 洪禮杓)가 제3회 전국치과대학동창회 친선골프대회에서 단체전, 개인전 우승을 휩쓸었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여주 캐슬파인CC에서 10개 대학동창회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경기에서

모교 치대동창회가 경희대, 조선대 등을 제치고 단체 우승을 차지했다.

林鍾昊(치의학82-88)동문은 개인전 1위에 올랐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李壽久(치의학66-72)회장이 임원조 우승을 차지

했다. 白喜善(치의학77-83)동문은 니어리스트에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다.

이날 단체전에는 姜泰聲(치의학71-77)·鄭炯泰(치의학74-80)·白喜善·林鍾昊동문이 출전했다.

치대동창회는 본회가 주최한 동문 골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2006·2007년), 준우승(2008년)을 차지했으며, 林鍾昊동문은 2007년 개인전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관악무역인회

아차산 오르며 친목 다져

관악무역인회(회장 柳東林)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아차산에서 등산 모임을 가졌다. (사진)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尹炳和·表相基·高光平전임 회장, 柳東林회장, 黃殷植부회장 등 1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산을 오르며 친목을 다졌다.

관악무역인회는 한국수업업협회에 소속된 4백50여 명의 동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골프, 등산, 총회 등의 모임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SPARC동창회

蔡浩錫동문 골프 우승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동창

회(회장 洪起南)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용인 신원CC에서 42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과학대학 학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洪起南회장, Wine&Friends 具德謨(4기)대표, 시스템 尹錫九(10기)대표, 두얼 메카닉스 林潭周(11기)대표, 에스알테크 許商錄(11기)대표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蔡浩錫(5기)동문 ▲메달리스트 : 鄭銑鍾(6기)동문 ▲준우승 : 金昌弘(14기)동문

GLP동창회

17기 골프 단체 1위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최근 경기도 광주 강남300CC에서 1백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辛東烈 명예회장, 李鍾大회장, 司空壺(상학58-64)한국무역협회장, 全春金(4기)·趙龍植(5기)·정유근(7기)·김 설(8기)·姜德壽(8기)·이향숙(8기)·이형길(9기)·이종목(9기)·정연택(10기)·이병현(10기)동문 등이 경품을 협찬했다.

경기결과와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17기 동기회, 준우승 9기 동기회 ▲선수조 : 우승 강홍석(男·16기)·김명숙(女·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

柳興洙동문 가족 1천3백만원

지난 7월 1일 한일친선협회 柳興洙(법학58-65)이사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해 장학빌딩 건립 후 ‘柳興洙기금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같은 날 柳興洙동문의 장남 柳志烈(외교84-88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동문이 2백만원, 장녀 柳嘉玲(기약86-90 피아니스트)동문이 1백만원을 보내와 柳동문 가족이 총 1천3백만원을 출연하게 됐다.

柳興洙동문은 “그동안 모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자녀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출연하게 됐다”며 “가족이 한 마음으로 모교 발전에 작은 정성을 보냄으로써 다른 동문 가족들도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지낸 柳동문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설립한 南村장학회를 통해 매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表)

10기)동문, 메달리스트 신동욱(男·9기)·강미모(女·16기)동문, 통게스트 김찬섭(13기)동문, 니어리스트 박기형(17기)동문 ▲친

선조 : 준우승 申勸秀(15기)동문, 메달리스트 권순형(16기)·이서운(6기)동문, 통게스트 정태섭(14기)동문, 니어리스트 박종천(8기)동문

ACAD동창회

朴台東동문 홀인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廷益)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 기흥코리아CC에서 李廷益회장, 모교 행대원 崔鍾元원장, 朴寬用 前국회의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서울기업 朴台東(6기·83세)회장(사진)이 8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기쁨을 맛봤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CPMP동창회 徐綜郁회장
(대우건설 사장)



지난 4월 공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ACPMP)동창회 새 회장으로 대우건설 徐綜郁(3기)사장이 선출됐다. 신임 徐회장은 “건설 산업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동창회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과정을 소개하면 ACPMP는 공과 대학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립한 글로벌 건설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타 최고위과정과 다르게 1년간 운영되며 대부분 건설업계 종사자들이라 친밀도가 무척 높습니다. 2004년 동창회가 조직돼 현재 5기까지 3백20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년교례회, 관악음악회, 골프

미나에 더 많은 회원들이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친목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면.

“우선 부지런해야겠죠. 또 어떤 모임을 보더라도 리더들이 열정적으로 해야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장은 리더

“소규모 모임 활성화시키겠다”

대회, 송년회를 갖고 있으며 매월 건설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악음악회는 서울대 최고위과정 중 유일하게 열리고있는 야외 문화 행사입니다.”

－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기 회장들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두면서 기별로 3명의 부회장을 선임해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별로 선출된 이사들이 중심이 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장단과 이사회를 통해 동창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그 외 사무총장 1명과 기별 총무들이 실무를 보좌하는 시스템입니다.”

－ 활성화 방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커지는 반면 자칫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 모임 등 소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금을 더욱 많이 조성해 매월 조찬세

가 아닌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을 하나로 잘 묶어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개인보다 ACPMP의 모태인 서울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ACPMP에 대한 소속감 및 굳건한 연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徐회장은 1949년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광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 주택사업 담당 임원, 관리지원실장, 국내영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12월 대우건설 사장에 취임했다. ‘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으며 프로그 스키 실력을 자랑한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P동창회 金禹植회장
(한석에너지 회장)



나 공부를 합니다. 수료한 지 얼마 안된 3, 4기도 조만간 이러한 모임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 과정 인기가 높은 이유는.

“리더들이 인문학에 대한 호기심, 갈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도 알차고 교수님들의 열정도 대단하죠. 기행을 가셔도 버스 안에서까지 강의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 기수마다 90% 넘는 참석률과 40% 이상의 정근생이 나올 수 있었죠.”

－ 어떤 사업을 펼쳐 왔는지.

“지난 5월 李時炯박사가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 할리언스 선마을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분기별로 인문학 세미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모교 인문대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AFP)의 동창회가 지난 3월 본회 인준을 받았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한석에너지 金禹植(1기)회장은 과정수료 후에도 ‘공부하는’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으로 가득 찬 서울 역삼동 사옥 집무실

“인문학 학맥 이어지도록 최선”

에서 金회장을 만나 동창회 소개와 사업 계획 등을 들어봤다.

－ AFP의 뜻은.

“‘Ad Fontes Program’의 약자입니다. 아드 폰테스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에라스무스가 주창했던 구호로 ‘원천으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원천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모태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 동창회 소개를.

“4기까지 모두 1백60여 명의 원우들이 학문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3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들답게 매우 학구적입니다. 1, 2기 원우들은 수료 후에도 부부가 함께 인문학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논어, 한국의 근현대사 등의 주제를 놓고 매주 한 번씩 만

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에는 한옥 지킴이로 유명한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 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밖에 골프, 등산 등의 체육 활동을 자유롭게 해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초대 회장으로서 각오.

“초석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 각 기수별로 인문학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보은 출신인 金禹植회장은 홍익대에서 광고 그래픽을 전공했다. 경남 기업 무역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77년 한석교역을 창립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단양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석에너지 외 한석개발, 한석레저, 한석수산, 한석RDI의 대표를 맡고 있다. 화보집 보는 것을 즐기며 가족으로 부인과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南)

인천을 ‘꿈의 세계도시’로 바꾼 마이스트로

동문록 찾아서

安 相 洙 인천광역시 시장



대 담 : 李相起는설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인천은 ‘개벽’ 중이다. 일제강점기 때 朴 八陽시인이 인천항에 서서 ‘어제는 홍콩 오 늘은 제물포 또 내일은 요코하마 / 세계를 유랑하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노래했던 게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5년 전 安相洙(체육교육71-75)시장이 인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 양반 너무 앞서가는군’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 넘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 7월 9일 다시 찾은 인천. 갯벌타워 19층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는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강변하는 듯 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멀리 인천대교와 마천루들이 한 눈에 보이는 스카이라인에서 安相洙시장을 다시 만났다.

쿼터스, 친환경, 에너지 절약도시 개념을 적용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IFEZ에 들어서는 시설 가운데 관심이 많은 게 병원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이 영종지구에 들어옵니다. 존스홉킨스를 설립하는 데 3년이 걸렸어요. 처음 책임자를 만났을 때 ‘지난 5년 동안 여러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지금도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을 총동원했어요. 지난해 4월 다시 만났죠.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도 동행해 사업에 대해 자세한 프리젠테이션도 했어요. 그랬더니 PT에 대한 질문은 없고 ‘당신 임기가 언제까지고 현재 대통령과 관계는 어떠냐’ 그 두 가지를 묻더군요. 임기는 2년 남았지만 당신이 OK를 하면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웃음) 또 대통령과는 같은 당 소속이고 과거 국회 의원도 같이하고 서울시장 때 인천시장으로 일을 해 관계는 괜찮은 편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OK 사인을 보내더군요. 오는 2013년이면 개원할 것 같아요.”

－ 송도 국제학교가 곧 문을 열죠? 스톤브룩 등 해외 유명대학도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9월 개교예정이었으나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외국학생과 한국학생 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고 했지만, 외국인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 우선 한국학생 30%를 받아 개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과정까지 외국 유명 교육재단에서 직접 운영해 관심이 매우 높죠.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국제학교가 들어섭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연세대 송도캠퍼스와 멀리 떨어진 송도지구 7공구에 들어섭니다. 국내 유학생은 물론 아시아 학생들의 발길까지 돌려 ‘동북아 교육 허브’로 성장시키는데 목표죠. 2012년 7월 전체가 완공되면 최대 1만2천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학생 비율은 40%가 될 겁니다. 현재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미주리대, 델라웨어대, 조지아공대, 이탈리아 파비대 등과 MOU를 체결했고 이 중 스톤브룩과 노스캐롤라이나와는 캠퍼스 설립준비 자금 지원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공계 분야가 잘 되면 문과계통과 로스쿨도 유치하려고요.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유치가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시장은 이 대목에서 해외대학 유치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달라고 해서 주지도 않겠지만 그거 기다리다 보면 몇 십 년 해도 안 될 거예요. 대신 규제 해제만 해달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학교나 병원 모두 이익권에 대한 송금 문제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해요. 또 이곳은 서민을 위한 주택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외국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더라도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 분양가 상한제 등을

－ 대단하세요. 2004년 이 맘 때로 기억하는데, 기자회견 회원들이 이 곳에 왔었잖아요.

“그때李기자가 협회 회장 할 때죠? ‘그렇게만 되면 좋겠네요’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마디로 안 된다는 소리였죠. (웃음)”

－ 당시 계획했던 것을 대부분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 결과물들을 인천세계도시축전 때 보여주려고요. 안 본 사람들은 아직도 미지근해요. 인천이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인구 2백75만명)라는 것도 모르고 예전 모습만 생각하죠. 너무 몰라주는 거죠. 떠들기만 하니까 입만 아파요. 와서 본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축전을 열게 됐어요. 와서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죠.”

－ 세계도시축전이 언제 열리죠.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진행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시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행사입니다. 도시축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사예요. 도시축전은 미래도시의 모습을 체험하고 친환경과 뉴에너지 패러다임을 느껴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백만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두근거리는 감동을 주고 싶어요.”

－ 여러 유명 인사들이 오신다고요.

“이탈리아 대통령이 밀라노디자인시티 기공식에 맞춰 오시고요. 潘基文 UN사무총장이 송도에서 열리는 환경포럼 때 기조연설을 하세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일본의 모리 前수상, 남태평양의 투발루 대통령, 환경관련 석학들이 송도를 방문합니다.”

이번 도시축전기간 중 인천대교 개통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도 열린다. 9월 20일 오전 8시 송도를 출발해 인천대교를 건너는 코스다.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접속도로(8.93km)를 뺀 바다 위의 다리 길이만 12.34km로 국내에서

가장 길다. 1백51층 인천타워와 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기 보이는 인천대교가 시장님 역작 아닌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일이었죠. 저 다리가 안됐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시안게임 유치도 그 덕분이었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인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요. 사실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인도의 뉴델리가 거의 확정돼 있는

해서 모든 아시아 국가가 메달을 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드림 2014’란 표어를 내걸고 2천만 달러를 기부해 각 나라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죠. 복싱, 양궁, 육상 등. 그렇게 되면 금메달은 아니더라도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나라들은 많아질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스포츠 강국 몇 개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들러리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각 나라에 메달을 따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죠. 지금까지 메달 하나 못 딴 나라들은 동메달이든 뭐든

“도시축전 오셔서 확인하세요”

아시아 기술·교육·금융의 허브

상황이었거든요. 아시안게임 주최측에서 뉴델리만 나오면 그 도시에 너무 끌려갈 것 같아 대항마로 인천을 끌어들었던 건데 덜컥 우리가 선정됐어요. 우리정부도 부산에서 한 지 얼마 안된 터라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만났어요. 그들이 실사보고서를 만들 때 인천대교가 하나의 보증수표가 됐죠. 3년 전 만해도 제대로 보여 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뭔가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 한국의 건설기술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는 보고서를 좋게 쓴 것 같아요. 이후 이곳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시작했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당신들 사업도 무조건 성공하는 거다’ 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서 결국 우리가 선정됐죠. 사업가의 외교력이 정치인들보다 낫잖아요.”

－ 키를 아신거네요.

“또 막판에 새로운 조건을 하나 걸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펀드레이징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이 되겠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 아시안게임 도시로 선정되면서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송도·청라·영종 등 IFEZ에 대규모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미래 비전이 확실한 곳을 찾는 거죠. 인천은 세계에서 미래 비전이 확실한 곳 중 하나로 투자자들 사이에 인정을 받았어요. 경기침체가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구하기 쉽고 인력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호경기 때는 자재를 제때 구할 수 없어 공사 현장이 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는 멈춘 적이 거의 없어요.”

IFEZ는 安相洙시장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안시장은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목표로 이 사업에 지난 7년간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송도는 IT·BT 등 지식 기반산업과 교육 중심의 글로벌 시티, 영종은 국제항공물류 및 관광도시, 청라는 국제 금융도시를 지향한다. 그는 “IFEZ가 유비



“홍콩, 두바이 능가하는 국제도시 만들겠다”

☑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외국 사람을 상대로 달러를 벌자고 만든 곳이니깐 다른 도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죠. 우리 경쟁지는 홍콩, 상하이, 두바이, 싱가포르입니다. 그곳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외국인 2천만명이 방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3백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보자 이거예요. 상주 외국인은 10만명.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이 유연해야 합니다. 호텔이나 컨벤션센터에서 영어 사용이 능통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저임금 인력 중에는 필리핀 등 동남아 사람들 밖에 없어요.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카지노 재벌인 샌드사(회장 아델슨)의 요청을 받고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마카오보다 좋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인천에 카지노가 생기면 어떡하겠느냐는 질문에 동북아 사람들은 마카오보다 인천을 가겠다고 선택했어요. 마카오가 교통도 안 좋고 시설, 주변 환경이 영종지구에 비해 열악하죠. 카지노를 유치해 1천 달러 이상 들고 오는 중국인은 무비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규제 완화로 우리의 역량이 커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역동성을 줄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풀자는 것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 가야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의 이야기는 다시 대학과 연계된 사이언스빌리지로 이어졌다.

“사이언스빌리지는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송도에 국내 우수 대학뿐 아니라 해외 유명대학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실리 콘벨리의 축소판을 인천에 꾸밀 생각입니다.

지난해 4월 존스홉킨스 일 때문에 메릴랜드에 갔었는데 마침 미국과학자협회 회의가 있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인천 비전을 설명해줬더니 그분들이 보수가 낮더라도 한국에 와서 일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학생 10만명, 아시아 학생 10만명, 우수한 교수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학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천이 아시아 기술의 허브, 아시아 기술의 코디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은 미워하고 중국은 두려워하지만 한국은 만만해 하면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더라고요. 많은 아시아인들이 과학, 공학을 공부하러 올 거라 믿어요.”

— 홍보관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이탈리아 밀라노와 함께 컨벤션시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세계 유명 박물관, 음악원 등이 들어오면 굳이 파리, 로마에 안 가도 되겠던데요.

“맞아요. 밀라노디자인시티(영종전시복합단지)는 굉장한 작품입니다. 전체 규모가 20만㎡이니 여의도보다 훨씬 큰 땅이죠. 영종지구 스카이72 골프장 옆이에요. 코엑

스 규모 4배의 전시관이 들어오고 명품 스트리트부터 베르디음악원, 라스칼라 오페라하우스, 디자인 스킵 등이 들어옵니다. 아시아 부호들이 쇼핑을 오는 소위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사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명지대 金錫澈(건축62-66)석좌교수예요. 비행기가 지나다녀 고도제한이 있는 땅지에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金교수가 이탈리아 한 대학의 교환교수라서 피에라밀라노 전시 사업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밀라노를 방문했죠. 존스홉킨스병원을 유치할 때처럼

여기도 처음엔 책임자조차 만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다 이탈리아



“아시안게임 유치, 인천대교 덕분”

국선도 즐기며 틈나는 대로 독서

수상과 피에라밀라노 회장이 시장개척단과 함께 상하이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기도 잠깐 들렀다 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보여줬어요. 피에라밀라노 회장이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호기심을 갖게 됐죠. 마침 밀라노 여시장도 그 즈음에 몽골에 간다는 정보를 듣고 그분도 이곳으로 모시고 와 마찬가지로 헬리콥터를 타고 IFEZ를 보여줬어요. 지금은 그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연초에 韓昇洙총리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잖아요? 밀라노 시장도 참석했는데 그분이 韓총리를 찾아와서 밀라노 디자인시티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대요. 총리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깐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해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첫 행사로 트리엔날레가 이번 도시축전 기간 중에

해요. 그때 이탈리아 대통령이 국민방문차 오셔서 밀라노디자인시티 착공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 어디서 그런 구상이 책적 나오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도 듣고, 도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요. 보고서까지 하면 일주일에 한 3천 페이지는 읽는 것 같아요. 국내 신문, 주간지, 월간지도 대부분 읽는 편이니깐 시간만 나면 읽어요.

고생했다는 말도 안 하지.”

— 이제 충청도 말이 나오네요.(웃음)

“어머니도 말년에 의식불명(식물인간)으로 5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보던 노하수가 있어서 지금 아내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 충남 태인에서는 언제 올라오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올라왔어요. 인천 중학교를 나와 경기고에 입학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잔 집이 15군데가 넘어요. 가방, 교복, 담요 들고 친구 집을 전전했죠. 가정교사해서 번 돈으로는 동생들 보조해 주고 살았죠. 그 당시에는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이 대목에서 안시장은 고생에 대한 평소 지론을 펼쳤다.

“난 정치인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은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생을 해야 서민들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보여주고 실천해 가는 일이에요.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해서 당신들 마음을 잘 안다’며 울고불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능력이 있는 장수가 돼 적장의 목을 베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도주의가 어떻고 해서 적장을 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하면 곤란하죠. 국제질서는 냉정하니까.”

— 대학생들이 많이 늦었죠.

“아주 늦었죠. 사회적 현상에 분기평전 해서 징역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대학은 5~6년 후배들이랑 다녔어요. 모교 대학원(경영전공)도 학비문제로 20년 만에 졸업했죠.”

— 오늘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현대그룹 故 鄭周永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출근하며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면 피가 된다’ 저도 그래요. 일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슴 벅차서 나옵니다.”

— 최고 장점이라면, 또 스트레스 해소는.

“참을성이 많아요. 바둑에서 지지 않는 바둑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선 잘 참아야 해요. 이기는 것은 좋은 승부가 아니죠. 스트레스는 국선도로 풀니다.”

—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을, 우리 동포인데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2007년 12월에 김양곤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강화를 통해 개성에 다리를 놓아 개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인천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수출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금방 알아들으더라고요. 북한은 항만이나 공항을 쉽게 만들 수 없고 어차피 항로가 개설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어떻게 접근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인천이 기여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을 조직했는데 이 기구가 시간이 지나 유엔기구가 되면 북한을 참여시키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사진·정리=金南柱기자)

화제의 동문

‘서울대 말하기 강의’ 펴낸 俞靜雅동문

방송인·클래식 해설가·스타강사로 활약

“전문적인 사회자가 동창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행사가 좀 더 빛이 난다면 동문으로서 보람된 일이지. 그동안 제가 동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러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서울대 언론인 동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후로 俞靜雅(사회85-89)동문은 본회 각종 행사의 고정(?) 사회자로 활약해왔다.

KBS의 간판 아나운서에서 10여 년 전 프리랜서로 전향해 문화예술 분야의 방송·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로 요즘 가장 비뻔 ‘방송인’으로 종횡무진하고 있는 俞靜雅동문을 KBS 본관 1층 커피숍에서 만났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소통의 기술인 말하기를 통해 나를 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俞동문이 지난 6월 25일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쓴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를 발간했다. 오픈 되자마자 10초만에 마감되는 俞동문의 강의 핵심내용과 실제로 俞동문이 방송인으로서 겪은 생생한 경험들이 가미되면서 ‘서울대 말하기 강의’ 책은 무더운 여름을 잘 나게 할 교양서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모교에서 말하기 강의를 듣는 재학생들과 함께

작년에는 오랫동안 KBS FM가정음악을 진행하면서 클래식에 대한 다양한 단상들을 풀어쓴 클래식 에세이 ‘마주침’을 선보여 모든 사람이 쉽게 음악을 느끼고 그 속에서 감동을 찾아낼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다.

‘말하기 강좌’ 10초만에 마감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을 ‘말 전문가’ 앞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첫 질문으로 상대방을 만나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것 같다고 물었다.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할 때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해요. 전후맥락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씌운 허울을 거둬내고 좀 더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말이 잘 통하고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죠.”

그렇다면 학교 강의에서는 어떤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궁금해졌다.

“책 뒤에 보면 한 학기 강의계획서가 있어요. 첫 3주간은 이론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소개, 정보, 설득, 토론, 토의부분으로 나눠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와 반 학생들이 평가해서 학점을 주고 있어요. 그



래서 각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진다고 할까요. 이런저런 것을 다듬다보면 남는 것이 그 사람만의 개성인데, 이것이 밖으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코멘트를 주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말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학생들과 매주 일 대 일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한 생각을 자주 교환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둘이 아니라고.

“청각장애학생 두 명이 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청력이 떨어지다 보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발표를 할 때 누구보다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의 신’ 사이트를 열어 방과 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姜聲泰동문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으며 정말 훌쩍 성장하는 후배들을 보면 뿌듯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첫 학기 첫 수업을 같이 한 학생들이 기억에 남죠. 이들이 ‘답다’를 거꾸로 발음한 ‘다담’이라는 서울대 말하기 동아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 말하기 강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앞으로 俞동문은 이를 토대로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책을 준비 중이다. 또 내년에는 ‘마주침2’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녀가

이렇게 매년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마주침’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매년 책 한 권을 써야겠다고 다짐하면서부터다.

俞동문의 클래식에 대한 조예와 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어릴 적부터 습득된 것이라고.

“음악은 작곡가가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고상된 정신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나 문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서 큰 위로를 받는 데에는 책만 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책을 ‘즐기는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고 봐요.”

“매년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한편 아랍음악을 들으면 지금도 약간의 흥분을 느낀다고 말하는 俞동문은 사회학 대신 아랍문화가 좋아서 원래는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싶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동양사학이 비주류여서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학을 선택했어요. 처음엔 싫었는데 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줘서 지금은 고맙게 생각하죠. 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공부를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어요. 80년대는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그때 고뇌가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방송인 俞靜雅’로서 삶의 지침이 되는 구절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저는 늘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왔어요. 해야한다고 해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연극을 관람한 후 그 연극연출가가 쓴 구절이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면 누구도 좋아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에 감동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요.” (表)

삼양그룹

지난 1924년 秀堂 金季洙회장(1896-1979)이 설립한 삼양그룹(이하 삼양)은 화학·식품·의약·신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발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장수 우량기업이다.

1949년에 입사해 60년간 삼양의 성장을 이끌어온 金相廈(정치45-49)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삼양그룹은 내실을 다지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조7천억원 매출

삼양은 2004년 80주년을 맞아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핵심성장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정비했다.

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보전자소재, 외식사업 분야 등에 진출했으며 신사업 진출을 위해 M&A(기업합병)를 추진하는 등 공격경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3조7천억원의 그룹 매출을 올렸다.

최근 화학부문에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TPA(Terephthalic Acid : 폴리에스테르섬유, PET 수지 등의 주원료로 사용) 등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판매량 증대를 위해 소재를 개발하고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삼양공정소(상해)유한공사’는 중국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2005년 인수한 정보전자소재 회사 ‘삼양EMS’도 첫 제품을 출하하고 대만에 수출하는 등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식품부문에서는 2004년 가공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삼양그룹 본사 전경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

유지 회사인 ‘삼양웰푸드’를 설립했다. 또 2006년에는 셀러드&그릴 레스토랑인 ‘세븐스프링스’를 인수해 외식사업을 강화했다.

“삼양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홈메이드 제품의 원조를 만들었죠. 특히 호떡믹스 시리즈와 케이크, 쿠키, 해물 파전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홈메이드 카테고리 리더’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진황도에 전분당 공장인 ‘진황도 삼양제넥스식품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현지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의약부문에서는 의약품과 의료용구로 나눠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약품은 항암제인 제넥솔 주사제, 금연보조제인 니코스탑 등이 대표적 제품이며 의료용구로는 몸에서 녹는 수술용봉합사 트리소브 등이 있다.

2007년 항암제인 주사제 공장을 완공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발역량을 강화했으며, 기존제품은 시장을 계속 확대해 가는 한편 DDS(약

물전달시스템) 분야에서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삼양은 우리나라 최초로 1939년 민간 장학재단인 양영재단, 1968년에는 수당재단을 설립해 인재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재단에서는 2만1천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4백20여 명의 대학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내 첫 민간장학재단 세워

“삼양은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장수 우량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힘쓸 것입니다. 또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내일의 좌표를 세우고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金相廈회장은 1988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면서 삼양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계의 리더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한·중 민간경제협력회 초대 회장, 환경보전협회장 등 유수의 경제 단체와 기관의 수장을 역임했으며 본회 고문으로 장학빌딩 사업에 10억원을 쾌척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문기업 탐방



劉俊烈대표

동양종합금융증권(대표 劉俊烈, 이하 동양)은 3천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국내 1백63개 지점망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 증권사이다.

지난 3월 사장에 취임한 劉俊烈(정치73-77)동문은 동양이 “탁월한 솔루션으로 금융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라는 비전이 있다”며 “종합자산



서울 중구 을지로 동양종합금융증권 본사 건물

가치 창출하는 글로벌 금융투자회사

관리와 투자은행을 양대 축으로 가장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양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백20만 이상의 계좌, 즉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고객 증가에 따라 펀드, 채권, 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도 급증해 금융상품 예약자산만 37조원에 달한다. 또 업계 최저인 온라인 주식 수수료를 인하를 단행해 주식 위탁시장 점유율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5% 이상을 돌파했다.

온라인 주식 수수료를 최저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다지고 있는 CMA는 올해 초 시행된 자본시장법과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지금보다 유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은행 통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공급받아 편의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 및 거래매체의 지속적인 편의성 증대 등은 다변화

된 수익구조와 활발한 교육 마케팅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증권사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동양만의 차별화된 수익모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제3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지속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동양에게 오히려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내 봉사 조직 지원·장려

“과거 IMF 때는 생존만이 목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 전략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은 각 부문에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위상에 절대 안주해서는 안되죠.”

동양은 기업의 경영성과 못지 않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연한 사회적 의무로 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지점과 본부도 자체적으로 봉사모임을 조직해 경기불황 속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나르거나 복지관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하며 진행합니다.”

동양은 앞으로도 CSR 활동 강화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가치관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사내 봉사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및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진정한 일등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특히 금융업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劉대표는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기업 경영관리의 근본이라고 덧붙였다.

“적절한 평가와 보상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해 회사 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성과 보상으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1985년 동양에 입사해 25년 동안 동양의 금융계열사와 IT 계열사를 두루 거처 온 劉동문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 잠재 위험요인을 묵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항상 점검해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榮)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첫 삽

2천2백90억원 들여 2011년 완공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7월 15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에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韓昇洙국무총리, 金富謙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金振旻강원도지사, 權赫昇평창군수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李長茂총장은 식사에서 “모교는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할 멀티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첨단연구단지는 농업과 IT, BT 등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연구를 통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농식품 바이오산업 연구단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모교와 강원도, 평창군이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국가 바이오산업 및 첨단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2004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산학협력계약체결,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을 진행해 왔으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2백77만㎡에 조성되는 첨단연구단지는 연구동과 동물사육시설, 식물재배

단지, 산학협력단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모교 1천3백94억원, 강원도 5백97억원, 평창군 2백99억원 등 총 2천2백90억원을 투자해 첨단바이오 기술개발은 물론 교육·연구기능과 함께 관련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첨단연구단지로 조성된다.

또 첨단연구단지는 미래 농생명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메카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인력양성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정생태자원의 보고인 평창의 기반 위에 제품화를 위한 기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농식품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로서 교육·연구·원료·제품화의 모든 과정이 연구단지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 일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모토로 한 이번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모교와 지역대학간 연계교육,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으로 인해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단지 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모교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단지 시설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지역에 6백30명에 달하는 고용효과와 2백39억원의 임금소득 효과, 신규 전입인구 증가 등 지역에 직접적인 과급효과가 예상된다.

의과대학

‘멘토링 발대식’ 가져

의과대학(학장 任廷基)은 지난 7월 22일 연건캠퍼스 의대 건물 교수회의실에서 ‘2009학년도 서울대 의대 멘토링 발대식’을 가졌다.

의과대학은 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한 과외가 아닌 학습·인성지도를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재학생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원칙을 존중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와 봉사를 통해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초 의과대학은 본과 1·2학년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받아 20명의 멘토 학생을 선발했다. 멘티 학생은 서울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으로 20여 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멘토 재학생들은 모교 정신과학교실 申敏燮(가정관리 82졸)교수의 지도아래 주 2회 멘티 학생과 만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의과대학과 종로구청은 이번 사업성과를 토대로 오는 9월 대상자를 2백여 명으로 늘려 ‘멘토링 사업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榮)

대외협력본부

국제하계 학교 프로그램 진행

대외협력본부(본부장 尹希苑)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제하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해외 대학 초빙교수 15명과 모교 교수 10명이 14개 강의를 맡고 1백4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다. 수강하는 학생 중 80% 이상이 외국대학 재학생으로 전년도 54%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늘었다.

프랑스 그랑제콜 예술대인 ENSA의 엘리스 에글러(Alice Egler)학생은 “수업시간에 서울이 5대 디자인 도시 중 하나라고 배

워 도시의 디자인을 직접 보고 싶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며 “실제로 모던한 갤러리와 건축물들을 보며 감탄했다”고 말했다.

모교는 아시아의 정치·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관련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사진을 구성했다.

국제하계학교는 재학생과 외국대학 학생들이 모여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를 영어로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서 듣는 아이비리그 강좌’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사회과학대학

제2회 심포지엄 개최

사회과학대학(학장 林玄鎭)은 지난 7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대(16동) 건물 교수대의회의실에서 ‘21세기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기업경제와 한국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평의원회 朴杉沃(지리68-72)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사회과학대학 郭錦珠(가정관리77-81)·金大逸(경제80-84)·李奉柱(사회복지81-85 대학신문 주간)·張德鎭·林惠蘭교수 등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柳根寬(경제79-83)·李在烈(사회80-84)·李榮(경제83-87)·金惠蘭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모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은 각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사회의 미래 발전 및 성장동력을 제시했다.

암연구소장에

宋容相교수 선임



지난 7월 23일 제9대 암연구소장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宋容相(의학77-83)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宋소장은 94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 후 연구부처장,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파학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부인암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3백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宋소장은 “암연구소가 앞으로 학문적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③

민주열사 金泰勳 추모비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과 사회과학대학(16동) 사이에 세워진 민주열사 故 金泰勳 추모비.

1981년 金동문은 모교 경제

학과 4학년 때 교내 민주화 운동 시위 중 사복경찰에게 끌려가는 친구들의 모습에 분노, 인권을 학살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구호를 외치며 도서관에서 투신했다.

1990년 9월 경제학과 78학번 동기들이 세운 이 기념비 뒷면에는 ‘사랑의 사회실현과 진리탐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이라는 金동문의 일기가 새겨있다. 추모비의 글씨는 성공회대 申榮福(경제59-63)석좌교수가 썼다.

문향 가득한 실록의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 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내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홈페이지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평생 동문사랑 프로그램 마련

발전기금 집중 모금 캠페인 홍보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이번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VISION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교와 동문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SNU 평생 동문사랑 프로그램(가칭)'을 마련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발전기금과 본회는 공동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동문 집중 모금 캠페인을 알리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에 나선다.

먼저 본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1만여 명의 동문에게 매월 발행하는 회보와 함께 캠페인 홍보물과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우편물을 받는 동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전화를 통한 개별적인 캠페인 홍보도 병행한다.

또 6만여 명의 동문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자우편을 전달하고 온라인 약정 링크를 걸어 복잡한 절차 없이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모교는 현재 동문이 모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교내 포스코 헬스센터에 등록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캠퍼스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캠퍼스투어, 교내에서 개최하는 오페라나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동문들을 초대하고 있다.

그밖에 발전기금은 새로운 서비스로 유산을 기부한 기부자 중 친인척이 없는 동문을 위해 장례 및 49제 등을 치러주고 유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증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 단과대학과 교내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관과 협력해 동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예술 강좌를 개설하고 동문 자녀를 위한 청소년 리더십·학습 캠프와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방학 캠프도 기획해 동문사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는 “국내 최초로 지난 3년 동안 집중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기부자 맞춤형 모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서울대만의 차별화된 모금 경쟁력과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이제는 목표했던 모금액을 채우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문들의 지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참여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동문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은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학생 후배를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내고 모교를 2025년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대학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기금은 지난 8월 1일부터 1천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근조기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 02-871-8146)



VISION2025 모금캠페인 동문 참여 방법 안내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한 집중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 079-17-000136
- 신한 : 100-014-328209
- 우리 : 1006-601-280134

◆온라인 <http://www.snu.or.kr>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전화 참여 02-880-5026 / 02-871-8146

※ 유증 및 부동산, 유가증권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에 출연해주신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돼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인문대학

IFP 1기 수료... 발전기금 전달

인문대학(학장 邊昌九)은 지난 7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 수화관 컨벤션센터에서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고고미술사학과 張辰城(고고미술87-93)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불어불문학과 李永睦(불문83-87)교수의 학사보고, 金信福부총장의 수료증 수여, 邊昌九학장의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金信福부총장은 축사에서 “인간

과 창의력을 주제로 진행된 과정을 훌륭히 마친 여러분의 노력에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감동을 얻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邊昌九학장은 식사에서 “역사 속의 창조적 인물 32명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배움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적에너지를 충전해

인문학의 깊이와 너비를 느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1기 원우회장인 姜淳奎(사회74-78)동문은 답사를 통해 “이번 과정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학생의 소리

다양한 생각 교류하는 독서토론모임



裴漢鎭
(소비자아동08입)
독서토론 동아리 노곳 회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독서토론동아리 '노곳'은 2002년 처음 세워져 현재 1백9회째 토론을 맞았습니다. '노곳'이라는 이름은 콩의 꽃을 부르는 순우리말로, 그 꽃말이 '언젠가 찾아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책 선정은 학기 초에 각자 책을 한 권씩 추천한 뒤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각자 관심사가 다르기에 다양한 장르의 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토론은 매주 정해진 날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토론을 위해 자료집을 만듭니다. 자료집은 해당 도서를 추천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료집 팀을 구성해 제작되며, 책에서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골라 토론 주제를 정한 후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사설을 씁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지 못한 회원이라도 자료집의 글을 읽음으로써 토론의 맥락을 유추해 원활한 토론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독서토론이라고 해서 단지 책에 대한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현실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현실을 비춰볼 소재를 찾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생각의 깊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소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라면 저희는 토론을 통해 자신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서로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의 깊이

도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임시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는 취업준비로 인해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단지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방향으로의 생각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확립된 사고를 하는 지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려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경제지상주의에 매몰돼 말라있던 우리의 단세포적인 두뇌가 인문학의 풍성함과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38명이 수료한 1기 원우회는 십시일반으로 모은 1천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미술관

‘사랑의 단면’ 영상전시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Faces of love 사랑의 단면'이라는 주제로 MoA Cine Forum 시리즈 5탄을 개최한다.

미술관의 영상 시리즈는 1~4탄에 걸쳐 수년간 국내외의 우수한 예술영상작품, 다큐멘터리, 비디오 아트 등을 선보여 왔다.

이번 영상 전시에서는 여러 나라의 영상 7편과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 2점을 소개한다. 이 전시에서는 모성애, 낯선 이외의 조우, 주변환경에 대한 애정 등 사랑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榮)

콩트 릴레이

그 여자의 웃음소리

郭明圭
(사회64-68)
소설가



대학교 입학식 날 아침, 어머니는 나에게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외아들이인 내가 혹시라도 나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내 개인과 집안 전체의 앞날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여성관별법을 기도문처럼 외우고 난 뒤에야 집을 나설 수 있었다.

그 여성관별법의 앞부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좋은 여자는 항상 걸음걸이도 다소곳하고 말소리도 조용하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언행이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며 냉정하다. 좋은 여자는 절대로 웃음소리를 담 너머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외을 때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건 바로 어머니 자

“

좋은 여자는 항상 걸음걸이도

다소곳하고 말소리도 조용하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언행이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며 냉정하다.

좋은 여자는 절대로 웃음소리를

담 너머로 내보내지 않는다.

”

신이네요.’ 나는 어머니가 크게 웃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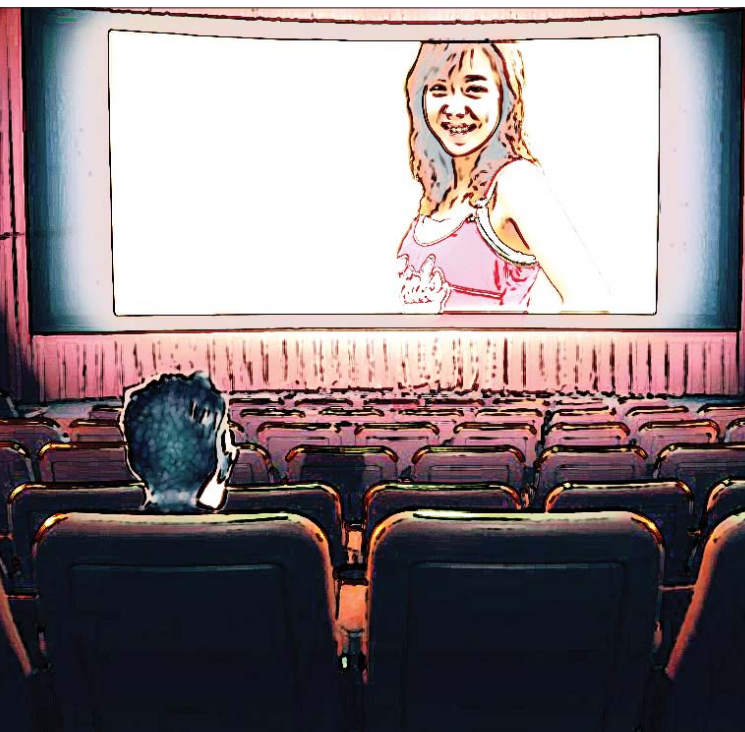
우리 과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다. 약간 까무잡잡한 얼굴에 알 듯 모를 듯 열은 웃음이 살짝 엮혀 있는, 그런 대로 괜찮은 생김새의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남학생들한테 예쁘게 보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지, 웃어도 머리에도 걸음걸이에도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다른 여학생들과는 달리 바지를 입고 다니기까지 했다.

이 학년 봄, 신입생 환영 야유회 때였다. 모두들 풀밭에 둘러앉아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삼십여 명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질러대는 괴성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내 귓속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줄리 앤드루스를 연상시킬 만큼 맑고도 힘찬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선동해 그녀에게 독창을 시켰다. 그녀는 사양하는 기색 없이 발탁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불어 가사여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곡조만은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였다. 그녀는

노래를 썩 잘 불렀다. 그러나 청중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 선동자로서의 책임감에다가 그녀에 대한 미안함까지 있어서 나는 무슨 말이란 한 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섰다.

“명곡해설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노래는 원래 ‘Who has seen the wind?’라는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영시에 붙인 곡이었죠. 불어 버전이라서 다들 알아듣지를 못해 아쉽군요. 다음 야유회 때는 제가 영어로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에 박수를 치거나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계면쩍은 마음으로 주저앉았다. 야유회에 온 것 자체가 후회됐다.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 (서양화02 - 07) 동문

로 주저앉았다. 야유회에 온 것 자체가 후회됐다.

돌아오는 길에 학과장 교수께서 뒤풀이를 제안하셨을 때 나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아 못 들은 체 판전을 피웠다. 그녀가 말을 건넸다.

“같이 가요. 아까 도와주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 하하.”

“수고요? 수고는 했죠. 그럼 한 잔 할 자격이 있는 거네?”

뒤풀이에서 교수님이 잔을 올리는 나에게 한 말씀을 던지셨다.

“자네 제2외국어가 독어라더니 언제 불어까지 했었나?”

“네, 실은 불어는 까막눈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는? 거짓말이었나, 전부?”

“아닙니다. 곡조는 아는 노래예요. 불어 가사는 잘 모르지만요.”

나는 옆에 앉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교수님. 내용은 때려 맞춘 거예요.” 하고 거침없이 말하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돌연한 웃음은 마치 누군가 숨겨져 있던 폭죽에 불을 붙인 듯 갑자기 하늘을 가르고 튀어나가 여름밤의 불꽃놀이처럼 높이 솟구치며 폭발하고는 부서진 불꽃의 파편들을 내 머리 위로 쏟아 붓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충고를 잊은 채, 그녀가 쏘아대는 산탄 총알 같은 웃음소리의 파편을 온 몸으로 받으며 빠르게 정신을 잃어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끝도 없이 그녀의 웃음을 기다리며 사는 가련한 신세가 됐다.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내 병세는 날로 깊어져 삼 학년 가을 무렵에 이르러서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나 혼자의 힘으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녀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좋은 여자의 모습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이미 내 마음의 주인이 돼 있었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도 같은 그녀의 웃음소리에 완전히 중독 돼 있었다. 나는 고민했다. 그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린 그녀는 아무래도 나쁜 여자일 것 같았다. 그러나 언제고 그녀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미리부터 마음이 허전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긴 밤 끝에 어쩔어쩔한 아침이 왔다. 억지로 어떻게든 눈을 붙여 보려고 이쪽저쪽으로 돌아눕고 있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예상대로 그녀였다. 그녀는 아침 첫 회를 보려고 혼자 영화관에 왔으면서 아직 시간이 삼십 분 남았으니 빨리 그리로 달려오

라는 것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아니, 나, 밤을 새서 안 되겠는데.”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왜 잠을 못 잤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그녀와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한 시간 이상을 더 뒤척거린 끝에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 영화관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보였다. 나는 모퉁이 뒤에 숨어 있다가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칫 동작을 그쳤다. 그녀가 웬 남학생 하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교문 앞에서 어떤 남학생과 헤어지고 있는 그녀를 보고 달려가 “조금 전 그 사람은 누구야? 사귀는 사람?” 하고 물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자꾸만 터지는 웃음의 사이 사이에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지난번에, 하하, 나 혼자 아침 첫 회를 보던 날. 하하하, 영화 시작하기 전인데,

하하, 과자 파는 꼬마 애가 와서 초콜릿을 내밀데. 하하. 저쪽에서 누가 보낸 거래. 하하. 누가? 하고 쳐다보니까, 하하하, 바로 아까 그 애야. 그냥 받아먹으라고 손짓을 하고는, 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하하하. 나중에 영화 끝나고 하는 얘기가, 하하, 자기도 사귀는 여자 애가 안 본대서 혼자 왔는데, 하하하, 나를 보고 바로 알았대. 하하하. 남자 친구한테 바람맞았죠? 그러는 거 있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결심은 지켜졌다. 또한 그 뒤로는 이 세상의 어떤 여자도 좋아하지 않게 됐다.

벌써 이십오 년이나 된 일이다. 나는 그동안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자 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하늘 위로부터 들려오는 듯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생각했다. 이십오 년 전, 내가 영화관 로비에서 그녀 앞에 얼굴을 내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무엇에 강력하게 이끌리듯 영화관을 향해 걸었다.

날씨 좋은 날의 아침 첫 회.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시작시간이 다 돼서도 실내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낀다.

영화가 시작된다. 오 분쯤 지나면서부터 나는 조금씩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갑자기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진다. 저쪽 구석자리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웃지 않는 장면에서 혼자 웃는 여자. 지금도 그런 여자가 있군. 옛날에 그녀가 바로 저렇게 혼자 웃었다. 웃음소리가 또 한 번 터진다. 다른 관객들이 그녀를 따라서 웃는다. ‘웃음 군의 보균자.’ 나는 문득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을 느닷없이 전염시키는 웃음, 그것은 그녀만이 갖고 있는 웃음이었다.

나는 점점 확신에 찬다. 오늘 아침 그녀 또한 이십오 년 전의 그 날이 떠올랐으리라. 그녀 또한 나를 잃어버린 그 날을 아쉬워하고 있을 테니까.

영화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 주인공 남녀가 빗속에서 포옹을 하면 이어서 ‘The End’라는 자막이 나올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나는 그녀 앞에 우뚝 설 것이다.

영화는 끝났고 이제 스크린에서는 스태프의 이름들이 긴 행렬을 만들며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고는 있지만, 그녀는 불이 켜질 때까지 앉아서 나를 기다릴 것이다. 마침내 불이 켜진다. 나는 일어서며 뒤를 돌아다본다. 영화관 전체에 나 혼자만이 남아 있다. 옛날 그녀에게 초콜릿을 심부름하러 꼬마 아이보다 이십오 년 더 나이를 먹은 아줌마 하나가 청소를 하려고 실내로 들어서고 있다.

로비가 매우 한적하다. 나는 아쉬움에 발을 옮기지 못한다. 문득 등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웃음소리이다. 나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본다. 젊은 여인들이 웃으며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한 여인이 살짝 나를 쳐다본다. 살결이 약간 까무잡잡하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잘 꾸미지 않았다. 바지를 입고 경쾌한 걸음을 걷고 있다. 이십대 초반의 꾸밈없는 여인이다. 눈에 웃음이 가득 담겨 금방이라도 또 터질 것 같다.

동 정

수 상

▲鄭容載(생물46-50 前이화여대 사대 학장)=최근 서울역에 열린 이야기 거리 공모에서 '서울 역은 내 알뜰한 쉼터'로 입상.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교육 성공사례 공모에서 'IT교육과 실버세대'로 입상.

▲白秉東(작곡55-61 모교 작곡과 명예교수)=오는 9월 7일 제54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 부문) 수상.

▲李漢龜(철학64-68 前한국철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오는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인문학부문) 수상.

▲曹鍾守(잡사학66-70 모교 농생 명공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 부문) 수상.

▲徐維憲(의학67-73 모교 약리학 교실 교수)=지난 7월 7일 뇌 연구 발전 공로로 제7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李文烈(국어교육68입 한국외대 석좌교수·소설가)=오는 9월 7일

제54회 대한민국예술원상(문학부 문) 수상.

▲金恒默(대학원69-76 부산대 교수·자연사 미래 환경학회 회장)=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특별상 수상.

▲申成澈(응용물리71-75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오는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

▲宋基豪(국사학75-81 모교 국사학과 교수·박물관장)=지난 7월 10일 강원도 민일보가 발행사 연구 및 저술 추진을 위해 제정한 제1회 발행저술상 수상.

▲南洪吉(화학75-82 포스텍 교수)=오는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

▲姜錫眞(수학80-84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지난 7월 7일 수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7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인 사

▲韓末淑(언어50-55 한국여성문학인회장·소설가)=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에 선출.

▲金學主(중문52-56 모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연세대 특별초빙교수)=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御寧(국문52-56 前문화부장관·중앙일보 상임고문)=지난 7월 15일 개교한 경기창조학교 교장에 선임.

▲金后蘭(가정교육53입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시인)=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에 선출.

▲朴宇熙(경제54-58 前세종대 석좌교수·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27일 임기 3년의 세종대 제10대 총장에 취임.

▲李鶴容(교육행정55입 前세종대 석좌교수·고려대 명예교수)=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徐廷仁(영문62졸 前전북대 교수·소설가)=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에 선출.

▲司空晝(상학58-64 한국무역협회 회장·한아랍사이언티 이사장)=지난 7월 17일 대통령 통일고문에 위촉.

▲玄鴻柱(법학59-63 前주미 대사·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7월 17일 대통령 통일고문에 위촉.

▲朴容晟(경제59-65 두산중공업 이사회 의장·대한체육회장)=지난 7월 17일 대통령 통일고문에 위촉.

▲申秀貞(기악59-63 모차르트를 음악감독·피아니스트)=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 음악분과 회원에 선출.

▲吉熙星(철학61-65 前한국종교학회장·서강대 명예교수)=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俊一(정치61-65 중앙대 교수)=지난 6월 1일 소망교회 교인들이 주축을 이룬 한국국제기드온협회 강남캠프 회장에 선출.

▲金明子(화학62-66 그린코리아 21포럼 이사장)=지난 7월 29일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車興奉(사회62-69 前보건복지부 장관·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장)=지난 7월 6일 한국인으로 최초로 차기 세계노년학회 회장에 선출.

▲金平祐(법학63-67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지난 7월 17일 대통령 통일고문에 위촉.

▲金夏中(중문65-69 前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前주중 대사·前통일부장관)=지난 7월 17일 대통령 통일고문에 위촉.

▲吳圭元(행정65-69 前동부전자 부사장·동부그룹 상임고문)=지난 7월 20일 동부그룹 재무담당 부회장에 선임.

▲金光洙(응용화학67-71 포스텍 교수)=지난 7월 13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양자분자 과학원(IAQMS) 회원에 선임.

▲白南善(의학67-73 前원자력병원장·아시아유방암학회 회장)=지난 7월 1일 건국대 병원 제25대 병원장에 임명.

▲邊龍植(정치68-75 조선일보 편집인)=지난 7월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기금 이사장에 선출.

▲柳德相(사학68-72 前제주도 환경부지사)=지난 7월 14일 제주발전연구원 제6대 원장에 선임.

▲金聖權(의학68-74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7월 14일 국제신장학회 총회에서 임기 6년의 카운슬러로 선출.

▲金相容(법학69-73 前한국민사

법학회장·연세대 교수)=지난 7월 10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任赫伯(정치71-75 고려대 정책대학원장)=지난 7월 1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폐막한 제21차 세계 정치학회(IPSA) 총회에 서 임기 3년의 집행위원에 선출.

▲金英薰(행정71-75 대성그룹 회장)=지난 7월 10일 임기 3년의 국제문화산업 교류재단 제3대 이사장에 선임.

▲彭正國(기계설계73-77 현대자동차 사장)=지난 7월 10일 한국 CIO포럼 월례조찬회에서 제7대 회장에 취임.

▲尹秀榮(미생물75-79 前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지난 7월 14일 KTNET 제8대 사장에 취임.

▲李種朱(금속공학75-79 포스텍 교수)=지난 7월 2일 한국인 최초로 유럽과학원 회원에 선출.

▲洪準亨(법학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지난 7월 18일 한국환경법학회 제20대 회장에 선출.

▲車東旻(법학77-81 前법무부 검찰국장·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7월 19일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

▲李度烈(서양사학83-87 한국수출보험공사 영업부장)=지난 7월 1일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략기획부장에 선임.

▲張京順(건축83-87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지난 7월 6일 인천지방조달청장에 임명.

▲은주동(산림자원84-90 前동화홀딩스 전략기획실장)=지난 6월 1일 동화씨앤엘 대표이사에 선임.

▲李旺竣(의학86-92 인천사랑병원장·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사장)=지난 7월 2일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에 선임.

행 사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예술학부 교수)=지난 6월 12~29일 서울 화양동 건국대 공예관에서 '2009 도자기 기념품, 소품전' 개최.

▲吳世翼(농학67-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난 7월 22일 충북 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및 지역개발'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1일 2009년도 미디어 2.0시대의 언론인권 교육 10장 'C의 눈으로 미디어 보기'

수료식 개최. 또 6일 지방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교육' 실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청소년보호위원장·관악회이사)=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경북 포항시 구룡포 경북대수련원에서 제44회 전국대학생 하계수련회 개최.

▲田宅秀(사회교육78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내 5개 도시 6개 현장에서 '청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다'를 주제로 제44차 청년지역행동 개최.

▲李蕙全(기악79-83 숙명여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7월 22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최종회) 개최.李동문은 서경대 李仁子(가정교육55-59) 석좌교수의 장녀.

▲安秉玉(해양80-84 前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지난 7월 21일 서울 정동 동양빌딩에서 '배출권거래제,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제1회 기후행동세미나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아시아기자협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 출신 시인 에바디 변호사를 초청해 '휴머니즘, 평화, 다양성, 비

전'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

▲李相輝(화학공학82-86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음.

▲蔡熙哲(기악83-88 숙명여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7월 2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아내 魚秀禧(기악85-89 단국대 강사·피아니스트)동문과 함께 두오 연주회 개최.

▲金鎭敦(HPM 4기 운제당한의원장·서울 송파문인협회장)=지난 7월 5일 식탁 위의 위대한 혁명 '사계절 웰빙식품'(가림출판사刊) 발행.

▲安鎬元(HPM 6기 부천대 교수·영등포문학협회 부회장)=최근 피나투보 화산으로 폐허가 된 필리핀 앙겔레스지역을 방문해 가전제품·의약품 전달. 또 서울 영

！ 명복을 빕니다 ！

(괄호안은 향년 표시)

▲崔大賢(전기공학52-56 T.S Tech 회장)=7월 19일 별세(77세)
▲鄭在旭(섬유공학56졸 前중앙염색가공 사장)=7월 11일 별세(76세)
▲金兌燮(조선항공53-57 前신아조선 사장)=7월 27일 별세(77세)
▲朴世直(영문57-60 재향군인회장)=7월 27일 별세(76세)
▲林承根(공업교육67졸 前현대자동차 부사장)=7월 13일 별세(66세)
▲金泳楨(철학74-78 모교 입학관리본부장)=7월 28일 별세(54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등포문화원에서 '문학 영등포 시화전' 개최.

▲許文明(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본보 논설위원)=최근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독보적 여성들의 삶과 사랑을 기록한 '나는 여자다, 나는 역사다'(푸른메카)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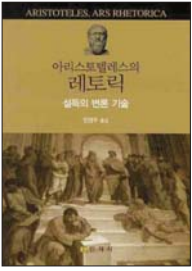
▲孫勳(토목공학88-92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최근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로 부터 2011년까지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됨. 孫동문은 2008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테뉴어(장년보장) 부교수이다. 한국일보의 '삶과 문화' 연재칼럼도 집필. 경원대 교수인 孫一根동문의 3남이기도.

▲장선아(기악00-04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플루티스트)=지난 8월 5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피아졸라, 줄리베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신 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 全英雨 옮김



KBS 아나운서실장, 수원대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한 수원과 학대 全英雨(국어교육53-57) 초빙 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번역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론법을 “어떤 경우에도 각각의 사례에 적용 가능한 설득 방법을 창출해 내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플라톤이 말한 경험에 의한 능숙함이라는 종래의 변론법도 그 성공의 원인을 관찰 방법화해 ‘레토릭’을 기술로 성립시켰다. 이 책이 변론법 또는 수사학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 변론법의 정수라 하겠다.

이 책은 1권 논자, 2권 청자 및 청중, 3권 언론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수사학’으로 알려졌던 레토릭을 ‘설득의 변론 기술’로 표제를 바꾼 것이 특이하다. (민지사판·값17,000원)

북한 체제변화와

민초의 역할

— 柳錫烈 지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평화통일연구소 부소장, 동아시아연구회장 등을 지낸 柳錫烈(사회교육58-62) 모퉁이돌선교회 이사장이 북한의 정세와 정책을 심층 분석했다.

이 책은 북한의 변화, 위기,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항상 민초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북한의 대내 정세와 정책, 날로 어려워져 가는 북한의 대외 관계, 팍 막힌 남북관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 종교탄압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날로 활기를 띠고 있는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사·값14,000원)

세계 경제 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 宋丙洛 지음

모교 부총장을 지낸 경제학부 宋丙洛(경제59-63 본보 논설위원) 명예교수가 경제전쟁시대의 한국인의 생존전략에 대해 알려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경제를 눈여겨보고, 행복한 경제에서 살기 위한 방법과 부자 경제를 만드는 돌파구, 우리가 해야 할 것 등 한국경제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저자의 경험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낸다. 책 뒷부분에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 시대에 맞춰 전략가가 되는 10계명을 간단명료하게 수록했다. (청림출판·값13,800원)

임병구의 바퀴달린

한자공부

— 林炳九 지음



표준EC 林炳九(농공학60-66) 고문이 매주 A4 용지 1매 분량으로 ‘漢字工夫’라고 표제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모아 한 권에 담았다. 우리말을 잘 구사하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상시의 말 가운데 대부분의 어휘가 한자말임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 판단한 林동문은 한자말 속에는 우리말의 곱디고운 땀이나 순결성, 깊은 思维의 근저 등 일체가 조화롭게 담겨져 있어서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한 우리말을 품위있게 활용하기 위해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술공론사판·값12,000원)

물 그림자

— 金淑子 지음



雲瑞 金淑子(국문64-68) 동문이 50여 편의 작품으로 시집을 펴냈다. 李根培시인은 서문에서 “이 시집은 金淑子시인이 살아온 긴 여정의 풍경들이 연어가 먼 바다를 거슬러 올라 母川으로 회귀하듯 ‘맨 처음 그림부터’ 그려내고 있음을 읽게 된다”고 말하고 “시가 식물이나 광물 그리고 미물들에게 사랑을 잃게 하는 바이러스라면 金淑子시인은 전염성이 강한 사랑균의 보균자이다”라고 호평했다. (시선사판·값7,000원)

지속 가능한 한국 발전

모델과 성장 동력

— 林玄鎭·朴杉沃 외 지음

모교 사회과학대학 林玄鎭(사회



67-71)·朴杉沃(지리68-72)·尹永寬(외교71-75)·梁承穆(신문74-79)·李根(경제79-83)교수 등이 ‘지속 가능한 한국 발전 모델과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2007~2008년 진행된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지금까지 급속히 달려온 한국사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융합모델이 필요하고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12,000원)

궁금해서 못 참아

— 金二求 지음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金二求(국문78-82) 동문이 단편 동화 5편을 모아 첫 동화집을 펴냈다.

표제작 ‘궁금해서 못 참아’는 혼자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아이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탐구심을 발동시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수박 한 통에 몇 개의 씨가 들어 있는지 일일이 세어 보기도 하고, 소와 밑에서 회귀한 동전들을 끌어내 스스로 궁금증을 풀어가는 에피소드들이 전개된다. (꿈소담이판·값8,000원)

늙지 않는 피부

젊어지는 피부

— 鄭振鎬 지음



이 책은 피부, 노화, 나이가 아름답음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 의사로서, 대학교수로서, 과학자로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과학이라는 다소 어려운 테마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로 서술해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피부의 노화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하누리·값18,000원)

공연

徐眞希 바이올린독주회

— 8월 19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徐眞希(기악96-00)동문(사진)이 8월 19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바르토크,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화성심포니 무료연주회

— 8월 24일 화성아트홀

화성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클래식 여행’이란 주제로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화성아트홀에서 무료 연주회를 갖는다.

지휘자 尹旺老(기악82-86)동문의 자상한 연주해설로 이해하기 쉬운 유익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공연문의: 尹旺老동문 011-719-5639)

金大煥 바이올린독주회

— 8월 25일 금호아트홀

오사카 국제콩쿠르, 러시아 영뮤지션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金大煥(기악89-93)국민대 교수가 8월 25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20세기 이후의 음악II Piece After Century II”를 주제로 플랑, 이근형, 월튼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음연 3436-5929)

鄭智仁 첼로독주회

— 8월 28일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鄭智仁(기악97-01)동문(사진)이 8월 28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프레스코발디, 히나스테라,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연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趙炫秀 피아노독주회

— 9월 3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趙炫秀(기악82-86)명지대 교수가 동문(사진)이 9월 3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



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趙동문은 이날 베토벤, 번스타인,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임명진 클라리넷독주회

— 9월 4일 예술의 전당



클라리네트스트 임명진(기악93-97)동문(사진)이 9월 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열어 슈만, 거슈윈, 로브렐리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趙惠衍·裴紀政 듀오

— 9월 5일 예술의 전당



오보이스트 趙惠衍(기악89-93)동문(사진)과 첼리스트 裴紀政(기악91-95)동문(사진)이 9월 5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듀오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뒤부

아, 쇼스타코비치, 마르티누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솔로이스츠93 연주회

— 9월 6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徐惠英(기악76-80)·尹榮和(기악76-80)동문 등으로 구성된 솔로이스츠93이 9월 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일곱번째 연주회를 개최한다.

‘쇼팽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빌라 로보스, 몸포우, 부조니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전자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박호전(경영학62-66)

·김영희(작곡62-66)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진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지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이준행(섬유공학48-54)

△장학순(토목공학46-50)

△조필제(조선항공46-50)

◆1억5천만원

△김도창(법학43-47)

·목춘5부자

◆1억2천만원

△염병윤(외교학60-64)

◆1억1천1백20만원

△미술대학동창회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인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김영경(기계공학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학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욱(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학동창회

◆5천2백만원

△이현조(철학52-57)

◆5천50만원

△하상완(치의학64-70)

◆5천30만원

△이종현(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GS 2기)

◆5천만원

△강인구(수의학59-64)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윤(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중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호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그린장학회

△농대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운(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악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신혁(문리66-73)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문(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웅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한규택(원자핵공학73-77)

◆1천1백50만원

△천남중(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졸)

◆1천1백10만원

△이홍중(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옥(약학55-59)

◆1천30만원

△박만호(행정학57-62)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지현택(치의학43-47)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재호(생물교육53-57)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김평우(법학63-67)

△류태환(상학48-54)

△문규철(응용화학69-73)

△문대원(경영학71-75)

△문명국(기계공학73-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배명인(법학52-56)

△AMPFRI동창회
△FIP동창회(김명도)
△오사카지부동창회
◆3백90만원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화학57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한규범(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권숙일(물리학54-58)
△권학창(지구과학69-76)
△김영수(법학60-64)
△김재율(경성법전39졸)
△박근식(화학54-58)
△안재동(상학60-67)
△이동수(건축학61-66)
△이성기(행대원63-65)
△이재식(교육학75-79)
△임채주(경제학55-59)
△정영채(수리학56-60)
△정주석(법학61-65)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65)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김혜경(생물교육70-74)
△나정우(농공학72-77)
△문창규(정치학68-72)
△박태원(정치학46-50)
△성기학(무역학66-70)
△오복동(법학57-63)
△유지열(외교학84-88)
△윤정일(교육학62-66)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원태(농경제학64-68)
△이종순(법학57-61)
△이흥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50)
△임규운(행정학53-57)
△정용인(법학60-64)
△최창식(의학54-60)
△한영국(경제학50-54)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73만원
△최인갑(금속공학57-62)
◆1백6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1백50만원
△곽 승(화학공학59-63)
△김건호(수리학70-74)
△윤육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1백30만원
△김영균(법학57-59)
△김중철(치의학71-77)
△김진익(법학55-60)
△문일환(치의학65-71)
△송진해(공업교육63-72)
△양동관(법학67-71)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태형(상학59-63)
△임한조(물리학67-71)
△정휘위(법학62-66)
△조병철(섬유공학59-65)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추호석(경영학69-73)
△현천옥(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67)
◆1백21만원
△박정식(약학57-61)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61)
△김영도(축산학68-75)
△김주현(의학65-71)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부장렬(건축학77-81)
△송창기(중어중문57-62)
△이갑노(의학65-71)
△이계홍(농공학56-62)
△이상건(섬유공학74-78)
△이정우(AMPFRI 17기)
△이창건(전기공학49-54)
△차왈보(의학53-59)
◆1백13만원
△홍성욱(GLP 3기)
◆1백10만원
△김금림(약학62-66)
△김기섭(정치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76)
△김동만(GLP 15기)
△김지호(화학공학55-59)
△명동근(경제학45-52)
△민미란(국악73-77)
△박영원(지리학74졸)
△박창순(기계공학64-68)
△백 철(상학56-61)
△백낙운(독어독문56-60)
△변재용(토목공학75-81)
△송경희(국악59-63)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유해덕(법학53-57)
△이경보(토목공학46-50)
△이근남(불어불문68-72)
△이두현(행대원74졸)
△이명훈(농경제학69-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이종팔(경영학76-80)
△전계묵(금속공학56-61)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최병호(화학교육57-61)

△최연균(중어중문67-71)
△허신행(농경제학62-66)
△홍성완(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87)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67)
△강규석(물리교육58-62)
△강덕수(GLP 8기)
△강성수(섬유공학57-61)
△강성현(치의학69-75)
△강영복(상학51-55)
△강원일(행정학59-63)
△강정일(농경제학64-68)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광우(행정학53-58)
△고병우(경제학52-56)
△고의식(수리학56-60)
△고재선(섬유공학52졸)
△고호곤(AMP 58기)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규형(약학53-57)
△김기수(행정학47-51)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달식(법학53-57)
△김덕영(토목공학45-47)
△김덕원(수리학50-54)
△김덕중(외교학71-75)
△김도연(행정학58-63)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명자(화학62-66)
△김방연(상학52-5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석기(행정학64-68)
△김석준(기계공학72-76)
△김승권(기계공학68-72)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배(농공학78-85)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일(법학60-64)
△김영재(법학57-62)
△김용식(건축학70-74)
△김용운(치의학62-68)
△김용찬(농화학57-61)
△김우동(계산통계72-79)
△김유경(SPARC 2기)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규(정치학69-73)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천문기상64-72)
△김재락(법학78-82)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종국(농화학63-70)

△김종욱(경제학58-62)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중기(경제학54-58)
△김진우(약학54-58)
△김진호(법학57-61)
△김창국(법학56-60)
△김창순(경성여사범43입)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홍(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학균(약학51-55)
△김학원(법학66-70)
△김현채(법학56-61)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55)
△김호룡(법학48-52)
△김홍중(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김환수(법학52-56)
△김효중(법학61-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약학67-71)
△나종택(기계공학53-57)
△노승행(법학58-63)
△류종묵(상학59-65)
△류철호(토목공학67-71)
△마인경(지리교육60졸)
△문광순(광산학60-64)
△박국양(의학75-81)
△박석훈(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억(치의학66-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균(조선항공63-67)
△박승용(영어교육76-80)
△박양수(영어교육55-59)
△박영숙(CHCN 3기)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83)
△박재형(의학66-72)
△박종찬(공업교육71-76)
△박종철(물리학61-66)
△박준서(법학58-64)
△박해룡(상학58-63)
△박항숙(응용미술58-62)
△박흥일(영어교육60-64)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61)
△배승환(기계공학58졸)
△배영한(상학49-58)
△배인준(철학70-74)
△백형배(화학공학47-53)
△변영삼(금속공학77-81)
△변종문(공업교육72-76)
△서광벽(재료공학73-77)
△석준형(물리학67-71)
△손두식(임학57-63)
△손완주(화학공학55-59)
△손환규(농업교육64-68)
△송병락(경제학59-63)
△송사일(농공학80-84)

△송언기(AMP 28기)
△송인상(경성고상35졸)
△송종환(외교학64-68)
△송호룡(AIC 19기)
△신명중(법학80졸)
△신수정(기약59-63)
△신용삼(경영학73-77)
△신원식(행정학57-61)
△신정균(농경제학54-58)
△신필재(약학55-59)
△신혜순(가정교육47-51)
△신희명(물리교육49-54)
△신희섭(의학68-74)
△심장수(법학70-74)
△심재갑(행정학52-56)
△심한배(공업화학71-76)
△故안재환(공예92-04)
△안지득(전자공학76-80)
△안취준(고고인류61-67)
△양해준(식품공학82-86)
△양호석(농화학57-63)
△엄영섭(화학66-70)
△엄준호(기계항공95-99)
△여운관(금속공학53-57)
△오경화(의류학81-85)
△오세종(경제학61-65)
△오윤덕(행정학61-65)
△오인석(전자공학57-62)
△오진환(법학75-79)
△오태환(법학53-57)
△우병규(정치학51-55)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완식(경제학57-61)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가영(기약86-90)
△유위중(농경제학72-80)
△유제운(조선항공51졸)
△유진무(상학62-66)
△유필상(전기공학66-73)
△윤근환(농학50-54)
△윤용철(경영학83-88)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정철(의학59-65)
△윤정혜(화학교육59-63)
△윤충섭(농공학55-61)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경재(화학59-63)
△이계관(약학70졸)
△이광진(법학77-81)
△이국진(경영학77-81)
△이규호(약학60-65)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기준(가정교육61-65)
△이돈구(임학65-69)
△이동규(천문기상65-74)
△이병목(의학54-60)
△이병일(농학57-63)
△이병주(의학61-67)
△이삼취(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상필(치의학70-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75)
△이승관(금속공학64-71)
△이승구(계산통계75-79)
△이승립(국어교육66-70)
△이영상(상학51-55)
△이영상(상학59-64)
△이용희(간호학75졸)
△이우연(정치학45-49)
△이우진(농화학64-68)
△이의갑(영어교육70-75)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장무(기계공학63-67)
△이재원(기약53-57)
△이재원(법학77-81)
△이정국(토목공학62-66)
△이정우(독어교육64-71)
△이정인(광산학59-63)
△이종욱(의학57-63)
△이주환(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진방(경영학67-71)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영(상학63-68)
△이철주(상학59-65)
△이충웅(통신공학54-58)
△이학숙(회화54-58)
△이현식(화학73-7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형균(정치학59-64)
△이형우(수리학51-55)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미영(회화77-81)
△임승빈(건축학67-71)
△임이균(약학61-65)
△장관봉(응용미술56-62)
△장삼진(화학공학51-55)
△장성원(영어교육57-61)
△장원갑(기계공학63-67)
△장윤석(법학68-72)
△장은식(치의학89-93)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해창(법학74-78)
△장해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천문기상64-68)
△전준수(토목공학61-65)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광섭(상학66-74)
△정광현(독어교육71-78)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웅진(상학63-67)
△정원식(교육학48-54)
△정은구(법학58-64)
△정정길(행정학61-65)
△정효섭(사회학59-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규광(정치학48줄)
△조대연(법학69-73)
△조무제(사대원65-67)
△조성근(행대원61줄)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성박(치의학75-8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연(섬유공학68-72)
△최광현(무역학62-67)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병주(생물교육56-60)
△최우철(의학82-88)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창신(약학61-65)
△최항순(조선공학65-70)
△최효열(기약73줄)
△탁미선희(치의학76-82)
△하두봉(대학원56-58)
△한 영(치의학79-85)
△한정섭(건축학48-52)
△한철주(의학78-84)
△함종한(농업교육63-70)
△허정국(치의학55-59)
△현덕성(약학66-70)
△현임종(상학56-60)
△홍동선(임학56-61)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순겸(AIP 5기)
△황성재(법학72-76)
△황승기(지구과학69-76)
◆90만원
△정근화(물리교육63-70)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73)
△박남훈(외교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어 당(섬유공학68-72)
△우두현(상학61-67)
△유승규(기계설계76-80)
△이인재(지질과학64-72)
△장영일(치의학64-70)
△정상명(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의학67-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하순봉(독어교육60-64)
◆60만원
△김승환(상학67-71)
△김신원(응용화학64-72)
△부영옥(HPM 13기)
△안임수(영어교육65-69)
△안재휴(광산학52-56)
△안태준(기계공학83-91)
△여인철(조선공학75-79)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범규(물리학69-73)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정대봉(작곡72-80)
△조달호(AMP 7기)
△조양태(기계공학64줄)
◆50만원
△강 민(금속공학70-74)
△강규범(AMP 62기)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윤결(기계공학53-57)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강종호(농학60-64)
△곽소진(신대원70줄)
△곽연구(AMP 34기)
△권기술(AMP 9기)
△김 농(토목공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공환(행대원68줄)
△김기석(법학59-64)
△김남석(기계공학72-79)
△김병관(농공학76-80)
△김봉군(국어교육60-64)
△김상도(조선공학78-82)
△김세겸(농공학59-63)
△김수학(물리학53-57)
△김순철(국사학75-82)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줄)
△김정근(수의학50-59)
△김정우(상학67-71)
△김정욱(금속공학58-64)
△김종호(SGS 4기)
△김지영(식품영양69-73)
△김진국(정치학78-85)
△김진욱(농학52-56)
△김차서(AMP 19기)
△김초일(식품영양78줄)
△김항원(사회교육65-72)
△남시욱(정치학54-58)
△남중희(잠사학56-60)
△류재택(역사교육66-73)
△문학모(경제학58-64)
△민병천(정치학52-56)
△박 찬(정치학75-79)
△박건호(상학59-63)
△박순철(사법학83-87)
△박시우(제약학69-73)
△박양세(약학48-52)
△박용희(상학53-57)
△박일재(화학공학78-82)
△박철홍(AMP 51기)
△박태권(토목공학55-59)
△반성환(농경제학50-55)
△배기성(독어독문68줄)
△부경생(농생물학60-64)
△손문자(응용미술62-66)
△송임숙(생물교육55-59)
△승익상(의학61-67)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심문섭(조소61-65)
△양이훈(물리학65-74)
△양흥룡(영어교육71-79)
△오규원(행정학65-69)
△오병권(조소66-70)
△오자복(행대원82줄)
△오제국(정치학75-79)
△우경자(가정교육61-65)
△위정일(의학63-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창용(의학82-88)
△윤 문(광산학61-67)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근석(산업공학72-76)
△이만섭(치의학57-61)
△이상준(기계공학76-80)
△이상학(경제학59-63)
△이신기(농학58-64)
△이욱현(제어계측85-89)
△이윤주(상학63-70)
△이은주(간호학90-94)
△이찬영(상학55-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이춘배(의학83-89)
△이평우(불어불문48-56)
△이형직(상학67-71)
△이홍석(농학52-56)
△인정현(법학54-58)
△임병주(금속공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임성규(법학76-80)
△장낙순(SGS 10기)
△장병규(섬유공학54-60)
△장순근(지질과학65-69)
△장희수(AMP 45기)
△정성호(사법학81-85)
△정이조(ACAD 48기)
△정인조(금속공학71-75)
△정대규(수의학56-60)
△정대원(농경제학57-61)
△조남혁(섬유공학57-61)
△조덕찬(상학53-57)
△조수호(회화47입)
△조영옥(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주종남(기계공학75-79)
△지형준(약학53-57)
△채경옥(경영학86-90)
△채규대(경제학56-60)
△채기원(수학53-59)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동수(경영학65-70)
△최병선(조선항공60-64)
△최순철(치의학73-79)
△최운열(경영학70-74)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창호(사법학84-88)
△최현수(전기공학76줄)
△최흥락(경제학57-61)
△한득추(행정학59줄)
△한상복(물리학59-63)
△한정길(농생물학63-70)
△함준표(경제학79-86)
△홍석주(경영학72-76)
△홍선표(기계공학53-57)
△황건호(경영학70-74)
△황인경(식품영양70-74)
△황정자(가정교육63-67)
△황현익(교대원65줄)
◆45만원
△오봉국(축산학48-52)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곽노희(기약81-85)
△김 유(약학60-64)

△김광현(의학66-72)
△김문기(기계설계77-81)
△김병익(정치학57-61)
△김적승(사대원69줄)
△김정묵(농생물학59-65)
△김주영(사법학83-87)
△김창윤(수의학53-57)
△김형선(법학57-62)
△노선호(AMP 24기)
△목요상(법학55-61)
△문성철(상학54-58)
△문양수(언어학59-63)
△문창환(기계설계75-79)
△박우병(광산학52-56)
△박정부(AMP 61기)
△박창진(보대원70-72)
△사공일(상학58-64)
△서완수(농경제학58-64)
△신동수(국사학82-89)
△여효성(대학원03-05)
△연대성(영어교육60-64)
△우보명(임학57-61)
△유기수(물리학53-57)
△유동립(공업교육68-72)
△이계옥(무역학62-67)
△이기상(의학73-79)
△이대원(상학59-65)
△이도천(임학55-60)
△이병상(사회학61-65)
△이부영(의학52-59)
△이영옥(법학52-56)
△이재숙(국악59-63)
△이재원(법학76-80)
△이종희(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혜전(기약79-83)
△이희달(금속공학70-77)
△이희주(가정교육56-60)
△이희주(치의학67-73)
△임성수(치의학60-66)
△임재원(국악76-80)
△임창무(경제학53-57)
△장만학(경제학56-61)
△장정환(정치학56-63)
△전광우(경제학69-73)
△정강주(체육교육69-74)
△정건용(치의학52-57)
△정문성(의학78-84)
△정송학(ACAD 54기)
△정수현(교육학80-84)
△정원박(대학원74-81)
△주영재(공업교육72-76)
△최상태(행정학58-64)
△최성규(국사학92-99)
△한광세(법학60-64)
◆35만원
△모영일(AFB 5기)
△우성규(사학63-70)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7월 19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30만원
△간영석(법학57-61)
△강 건(약학60-66)
△강남원(기계설계75-81)
△강만수(법학65-69)
△강명영(AIP 20기)
△강민창(신대원68-70)
△강부건(건축학62-69)

△강수현(상학58-62)
△강승렴(지리학62-66)
△강신우(법학79-83)
△강신일(의학58-64)
△강신자(작곡56-60)
△강영삼(사회교육59-63)
△강의철(건축학73-77)
△강진영(의학67-73)
△강창수(조선공학48-53)
△강태석(상학51-55)
△강태형(법학57-61)
△강해석(제약학71-78)
△강호익(토목공학58-64)
△고건성(의학67-74)
△고명삼(전기공학51-55)
△고상언(AIP 11기)
△고승혜(회화66-70)
△고영근(농경제학66-70)
△고영희(건축학77-81)
△고재홍(자원공학75-82)
△고정택(외교학62-66)
△고창삼(행대원63-65)
△공영석(약학57줄)
△공영주(약학59-63)
△곽광준(SGS 14기)
△곽노준(법학74-78)
△곽영철(농공학59-65)
△곽현수(법학72-76)
△구분무(농공학62-66)
△구성희(보대원67-69)
△구인환(국어교육50-54)
△구자영(조선항공54-58)
△구자희(법학77-83)
△국천표(토목공학60-66)
△권기진(HPM 8기)
△권문구(법학60-66)
△권영수(경영학75-79)
△권오균(경제학49-53)
△권오득(사회사업63-68)
△권오윤(법학56-60)
△권오준(임학65-69)
△권장혁(항공공학67-71)
△금명자(간호학76-80)
△금종해(수학76-80)
△김 량(농공학63-68)
△김경동(사회학55-59)
△김경화(건축학65-69)
△김관영(화학교육55줄)
△김광순(약학59-63)
△김광식(화학59-63)
△김광호(농학61-65)
△김광희(작곡68-72)
△김구수(의학71-77)
△김구웅(수학57-63)
△김권택(법학63-67)
△김규상(화학57입)
△김규호(약학64-72)
△김근배(조선항공64-68)
△김금환(건축학72-77)
△김기락(의학68-76)
△김기주(사학54-58)
△김기중(상학57-61)
△김남수(물리학73-77)
△김남용(축산학53-57)
△김남조(국어교육47-51)
△김대기(외교학65-69)
△김대환(기약89-93)
△김덕수(섬유공학51-55)
△김덕창(중어중문59-63)
△김동길(화학교육57-61)
△김동녕(경제학64-68)

△김동암(축산학52-56)
△김동완(행대원83-88)
△김동원(법학52-56)
△김동철(독어독문78-82)
△김만경(경제학53-57)
△김만복(법학66-70)
△김명근(건축학53-57)
△김명년(토목공학53-57)
△김명린(조선항공61-65)
△김명석(요업공학74-79)
△김무현(건축학61-65)
△김미리(간호학55-58)
△김민영(사학68-71)
△김병국(의학64-70)
△김병기(광산학65-69)
△김병동(농학62-66)
△김병준(지구과학68-72)
△김병찬(의학53-60)
△김병찬(치의학69-75)
△김복순(간호학55줄)
△김복승(APC 3기)
△김봉호(치의학56-60)
△김부성(지리학73-77)
△김상국(농학51-56)
△김상근(법학78-82)
△김상기(국어교육65-69)
△김상진(기계공학63-68)
△김상현(ACAD 27기)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상희(법학69-73)
△김서령(수학교육78-82)
△김석수(자원공학77줄)
△김석웅(대학원81줄)
△김석주(조선항공48-54)
△김선양(교육학53-57)
△김선일(국어국문61-65)
△김선홍(기계공학55줄)
△김성길(법학60-64)
△김성만(금속공학57-61)
△김성수(치의학67-74)
△김성중(광산학59-66)
△김성진(식품영양69-73)
△김세재(동물학85줄)
△김세진(치의학67-73)
△김소함(기약77줄)
△김수관(생물교육70-78)
△김수필(경영학62-66)
△김승규(SGS 7기)
△김승호(법학62-66)
△김신택(법학57-62)
△김영규(경제학55-59)
△김영대(SGS 12기)
△김영무(법학60-64)
△김영상(법학54-59)
△김영철(건축학59-63)
△김영한(사학62-66)
△김영훈(행정학54-59)
△김원주(정치학66-70)
△한광희(치의학66-72)
◆20만원
△손영수(경대원68-70)
△조용복(생물교육55-60)
◆10만원
△강하구(지구과학61-66)
△이상우(기계설계79-83)
△이윤정(언어학84-88)
△노선숙(가정관리85-89)
△박진우(법학99-08)
〈이상 2009년 6월 23일
부터 7월 19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9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09. 4. 30. ~ 7. 8) · 일반 (09. 4. 28 ~ 7. 8)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김갑주 치대64
△김경진 치대74 △김대욱 공대76
△김미자 치대81 △김봉석 의대82
△김상구 문리67 △김상욱 保院96
△김성희 의대79 △김영란 법대75
△김영란 법대75 △김용식 의대65
△김유경 공대68 △김정렬 농대85
△김진규 의대70 △김홍근 AIP24
△류혁근 농대65 △민정기 미대68
△박미례 GLP15 △박병일 AMP62
△박상훈 공대73 △박석희 농대72
△박영근 법대80 △박용원 의대77
△박은경 음대82 △박인호 ACAD43
△박재승 공대80 △박현선 음대56
△백재흠 법대84 △서태환 경영73
△성미숙 AIP29 △성수자 HPM19
△손광수 법대75 △손병기 자연69
△송선현 법대80 △신광국 사대65
△신박일 약대60 △신병식 인문73
△양지청 공대77 △오세용 공대73
△오수익 공대63 △유용하 공대60
△유우평 HPM13 △유재현 공대71
△윤용하 AMP58 △윤종규 大院82
△윤종현 의대83 △이경우 공대80
△이병석 미대58 △이석형 법대69
△이용우 공대77 △이용찬 의대65
△이용환 농대63 △이원구 AMP48
△이종철 치대76 △임승빈 공대67
△임종두 법대79 △장길평 농대62
△전병진 공대71 △정경원 미대71
△정광섭 상대66 △정광화 문리66
△정덕균 공대77 △정영채 수의56
△정용일 공대70 △정태화 공대71
△제갈정웅 상대65 △조갑주 상대58
△조기호 사대54 △조종대 AMP48
△지석산 의대81 △최영환 AIP31

△최윤재 농대73 △최홍규 敎院63
△한이현 상대64 △허정국 치대55
△홍국선 공대76

(일반) △강석웅 공대54
△권오철 공대92 △권중화 ACAD62
△권희숙 SPAR14 △김광욱 ASP12
△김기영 법대85 △김명환 공대69
△김성수 사대68 △김시환 수의65
△김연기 농대85 △김용환 공대43
△김일평 공대83 △김재용 AIP35
△김재욱 ASP6 △김제호 GLP17
△김철웅 ACAD59 △김호철 문리68
△김효성 법대61 △류시중 약대77
△민병욱 環院79 △민상렬 공대79
△박경철 공대69 △박동원 상대60
△박민남 상대60 △박성주 의대98
△박정현 ALP2 △박지원 자연06
△박한익 농대71 △백정기 ALP6
△변종오 공대77 △손도일 사회86
△송기웅 공대00 △송승훈 공대84
△신태복 사대49 △신해상 농대66
△심경무 자연82 △안평희 간호75
△안중규 치대80 △오주연 ALP5
△유병수 미대58 △유지현 공대03
△윤봉현 공대74 △윤진일 농대72
△윤찬재 공대92 △이보름 자연03
△이상일 의대67 △이영구 AMPF20
△이영만 HPM14 △이영학 법대58
△이용민 HPM23 △이윤희 AIP40
△이의석 치대06 △이정민 GLP16
△이종국 음대59 △이종일 環院83
△이태호 경영92 △임강원 공대62
△임도경 공대02 △장은식 치대89
△전수신 상대63 △정광진 공대84
△정규철 의대51 △정미향 음대81
△정예모 사회78 △정진영 법대80
△조효임 음대66 △차영남 경영03

△한상형 인문91 △한재성 공대79
△허경욱 경영74 △홍세진 농대83
△황철수 공대62 △황혜영 간호87

이 사

◆인문대 △강현구79 △김병철76
△김원한81 △박태영74 △손예철69
△유영일76 △조응래77 △조철원76
△광철호80
◆사회대 △김광녕82 △김용규78
△노택선79 △박석희75 △방창식83
△이재정81 △이주형72 △전홍찬79
△최병훈72 △홍석규75
◆자연대 △김양진83 △남호윤70
△이동한77 △이한용79 △이한형73
△장대연74 △조수경74 △진 민78
◆간호대 △김명숙61 △남은숙75
△박상연68 △박선애73
◆경영대 △김명관82 △김성균82
△유병인69 △윤주환85 △이윤호73
△이재영78 △이철우82 △천한우79
△최석원70 △황수연72
◆공대 △강효순68 △고영주67
△권명욱76 △권수봉75 △권순철74
△김건희69 △김광욱56 △김대모61
△김대식73 △김덕재64 △김명석74
△김백영63 △김병열72 △김성년68
△김성도75 △김영수58 △김은영56
△김인준68 △김재근73 △김재홍43
△김재환63 △김종석77 △김천환78
△김태업68 △김학세65 △김학제65
△김한섭68 △김항준73 △김호겸71
△김흥근76 △남보우76 △노태천69
△노형민73 △박경배67 △박근통61
△박덕철57 △박동혁79 △박상덕71
△박상윤70 △박상호76 △박신동65
△박우규70 △박일재78 △박종효77
△박진수70 △박찬민67 △박찬호57

△박호건69 △방정섭62 △변동필75
△변영삼77 △서갑수65 △서완석59
△성낙현67 △송병완69 △송우길84
△송원표77 △송춘영67 △신영수74
△신환식67 △신홍식74 △안사은57
△양배덕57 △양화섭78 △오동희78
△오병권77 △오원석71 △오정일64
△오창석69 △오해석71 △우삼용77
△우진태79 △윤 백78 △윤경훈71
△윤석구53 △윤선현66 △이 선59
△이경한65 △이근명63 △이대운64
△이문희65 △이병락68 △이상현70
△이상호66 △이석재68 △이석형70
△이영근72 △이윤표77 △이응숙76
△이의재66 △이재욱61 △이재은61
△이재현67 △이재형76 △이정일61
△이종훈55 △이준삼64 △이중성61
△이중홍59 △이종덕69 △이환렬75
△이효일62 △이희달70 △이희철74
△임두호68 △장광훈78 △장기욱53
△장동욱49 △장세창65 △장지영75
△정기출73 △정옥희52 △정재근74
△정재은57 △정주희75 △조남희77
△조영호75 △조장현64 △지성균71
△지인호76 △진영춘67 △진조철76
△차동득73 △차상목66 △채 철61
△천의영81 △최기언71 △최병길72
△최병홍78 △최영명69 △최완철69
△최일남71 △최준민77 △편도권54
△한관수73 △한영호69 △한홍희61
△허 염70 △현희현59 △홍대형65
△홍성일66 △홍순찬69 △황 철71
△황성조63 △황성혁58 △황중규56
◆농대 △강대경82 △곽지상52
△권오준65 △김경하71 △김남훈58
△김세겸59 △김영진53 △김원일84
△김윤경70 △김일봉68 △김일종69
△김정호73 △김종률72 △김주달64
△김학규70 △김현구50 △노상하66

△박동선58 △박순직63 △박승호63
△박창언80 △서득성58 △서병륜69
△석준호55 △손해일67 △손환규64
△신두철70 △신용석61 △오박철61
△왕진무60 △우제환69 △원중식60
△유 석59 △유문일66 △유병서59
△윤동원79 △이규재50 △이삼취66
△이승겸75 △이해동68 △이현범57
△이혜근67 △임순만62 △임용택54
△장석효67 △정을규61 △정일성62
△정진근69 △진영호66 △최락현61
△최주섭67 △한승국72 △한태룡68
△허현철80 △황무돈61
◆문리대 △고광희67 △구태희46
△김선희68 △김영배62 △김영한62
△김용성62 △김정란65 △김종진58
△김종환60 △김하석63 △도홍길61
△박기덕70 △박범진60 △박부진69
△방돈영68 △배길훈65 △서옥식69
△석준형67 △성민선64 △성희웅64
△안삼환62 △양이훈65 △염영진63
△오재희53 △유보일60 △유양수57
△윤홍근63 △이남기50 △이민섭59
△이승렬67 △이영록66 △이용일66
△이재형65 △이창복58 △이충희54
△이형수63 △임병석54 △임형택62
△임희섭55 △장부일69 △장영수63
△정 광62 △정규수63 △정무호61
△정영윤60 △조영길58 △채영수68
△천산덕71 △한우석51 △홍두표55
△황경호54
◆미대 △김춘옥64 △민철홍54
△배정숙74 △부현일58 △성기점58
△신용태59 △임훈순48 △정치환60
◆법대 △강대신63 △강병섭68
△강영규48 △강용구52 △강태중52
△고영한74 △고흥달68 △권남혁67
△김관재71 △김규복69 △김덕주52
△김동호56 △김명종61 △김봉학70
△김수철71 △김영갑74 △김영수65
△김영재67 △김완섭65 △김완식71
△김이수72 △김인중56 △김재덕73
△김정기62 △김정수59 △김종국65
△김종상65 △김종일52 △김진세61
△김진환67 △김찬식68 △김창엽64
△김태조54 △김현석79 △김형배51
△김형성79 △김형수77 △박상욱75

△박성귀⁷¹ △박영현⁶⁹ △박용수⁶⁸
△박재권⁶⁶ △박찬홍⁸⁰ △박현순⁷³
△변 욱⁵⁷ △변학남⁵² △서 민⁵⁸
△서복현⁷⁶ △서원태⁶⁷ △석광현⁷⁵
△성백현⁷⁸ △손기식⁶⁸ △송영철⁸⁰
△신규태⁵⁶ △신영수⁷⁰ △신호철⁶¹
△안상수⁶⁴ △안홍렬⁷⁵ △여상조⁷⁰
△오세빈⁶⁸ △오지철⁶⁹ △우성만⁷⁶
△유 훈⁴⁹ △유재선⁶³ △유창수⁶⁸
△윤경희⁶⁵ △윤준원⁶⁷ △이기승⁶⁸
△이동명⁷⁵ △이무룡⁶⁵ △이상배⁵⁸
△이상완⁶⁴ △이상주⁸² △이선우⁶²
△이성웅⁶¹ △이성호⁷⁶ △이세형⁶⁸
△이수길⁶² △이용우⁶⁰ △이인기⁷⁴
△이재철⁷⁷ △이정락⁵⁸ △이주성⁵⁸
△이지수⁵⁹ △이장복⁷⁴ △이태창⁶¹
△임영철⁸⁰ △장부웅⁵⁹ △장세두⁵⁹
△전 광⁶³ △전병식⁷⁰ △정기용⁷⁷
△정덕홍⁶⁸ △정명호⁷⁶ △정진국⁷⁰
△정해운⁵⁷ △조동주⁵³ △조문부⁵⁵
△전성관⁷⁶ △전인수⁵⁹ △전현주⁶⁷
△최석원⁵² △최세영⁶⁰ △최승록⁷³
△최정현⁷⁵ △려 명⁶⁸ △홍성좌⁵⁶
△홍종현⁶⁴
◆사대 △강경돈⁷⁰ △고영신⁷³
△국해웅⁶³ △김광수⁷² △김기주⁶⁹
△김봉근⁶⁰ △김승재⁷¹ △김영진⁵¹
△김용균⁶⁵ △김종원⁶¹ △김천수⁶³
△김항원⁶⁵ △김희수⁷⁰ △노명완⁶⁶
△목창수⁶⁶ △박규홍⁶⁹ △박성민⁷⁰
△박양수⁵⁵ △박영배⁶⁵ △박영자⁴⁶
△박용수⁷¹ △박창수⁵⁸ △박효석⁷⁰
△백승권⁵³ △손영목⁶⁰ △송태성⁶⁴
△신인식⁷³ △안창섭⁶¹ △안희수⁶¹
△우근용⁶⁵ △유자효⁶⁸ △이기영⁶⁸
△이기준⁶⁷ △이법국⁵⁵ △이병호⁷⁰
△이선준⁴⁸ △이원호⁶⁸ △이주환⁵³
△이준선⁶⁹ △이찬근⁷⁴ △이태우⁶⁰
△임재선⁷⁵ △임창원⁶⁶ △정기언⁷²
△정용길⁷⁷ △정철기⁵⁹ △조용복⁵⁵
△최기숙⁶⁵ △최돈형⁶⁸ △최동환⁷²
△한기선⁷¹ △황규익⁶⁷
◆상대 △강원구⁵⁴ △곽윤광⁶⁰
△구선회⁵⁶ △구영보⁶⁹ △구웅서⁶⁰
△김광안⁶¹ △김덕명⁶⁰ △김만경⁵³
△김만유⁶⁷ △김성규⁵⁷ △김승만⁵⁹
△김승훈⁶⁸ △김영환⁵⁴ △김종락⁵⁷

△김종서⁵⁸ △김진우⁵⁹ △김장달⁵³
△김충환⁶³ △김태겸⁷⁰ △김효석⁶⁸
△민형동⁷¹ △박 간⁶⁸ △배정운⁵⁹
△배철호⁶⁸ △사공일⁵⁸ △서성석⁶⁵
△서승원⁶³ △서영택⁵⁸ △서정도⁶⁶
△송우익⁷¹ △송진호⁵¹ △송필호⁶⁸
△신명수⁶⁰ △신승철⁵⁹ △신정도⁶¹
△심재엽⁶³ △오한구⁶³ △우두현⁶¹
△유방연⁶¹ △유진무⁶² △윤석현⁶⁷
△윤우진⁶¹ △윤익수⁵⁶ △이광수⁵⁰
△이균재⁴⁸ △이영기⁴⁶ △이영서⁶¹
△이영탁⁶⁵ △임종홍⁵⁹ △장윤문⁶⁵
△장종록⁵⁷ △정수웅⁶⁰ △정운찬⁶⁶
△정재택⁵⁸ △정형배⁶⁴ △조덕찬⁵³
△진영욱⁷⁰ △최기동⁷⁰ △최명해⁶⁸
△최부완⁵⁴ △최종인⁶¹ △최준환⁶⁶
△최행주⁶⁶ △한도형⁶⁹ △황규백⁶³
△황문환⁶⁴
◆생활대 △손경희⁶⁶ △장기숙⁷²
△정영진⁶⁸
◆수의대 △김계방⁶¹ △김본원⁶³
△김성수⁶⁴ △김성훈⁶⁶ △김인호⁵³
△김일웅⁶³ △나길현⁵⁹ △석세조⁵⁰
△윤화중⁵⁴ △임영철⁷⁴ △지차호⁷⁰
△한정희⁷⁹
◆약대 △김규호⁶⁴ △김길수⁶⁰
△김장호⁶⁵ △김충경⁶⁵ △김태근⁷¹
△김효중⁷¹ △박경래⁵⁷ △배영일⁶⁰
△백성기⁵⁹ △송창진⁵⁴ △심규장⁷⁰
△안병욱⁶⁸ △오연준⁵⁶ △윤도중⁵⁸
△이민화⁵⁵ △이성완⁶³ △이영태⁷⁰
△정미화⁵⁹ △정희웅⁷⁶ △조경일⁶⁴
△조영준⁶⁹ △조우열⁶⁵ △지상구⁵⁴
△최명식⁶⁴ △최소만⁶⁷ △홍기정⁶⁰
◆음대 △강덕원⁶⁹ △김재미⁸⁴
△신수정⁵⁹ △유봉우⁷⁴ △이명희⁶⁸
△이선이⁸⁴ △최승준⁶⁵ △하주화⁷³
◆의대 △강세윤⁵⁹ △강세철⁴⁹
△고 흥⁶⁹ △고광철⁷⁹ △고영채⁷⁴
△고행일⁶⁴ △김근식⁵³ △김기락⁶⁸
△김명호⁶⁸ △김상은⁷⁷ △김영덕⁶⁴
△김재윤⁷⁹ △김정구⁷⁰ △김종환⁵⁰
△김진호⁷⁵ △김한수⁸⁴ △김현우⁶⁴
△김홍규⁶⁵ △문태준⁴⁴ △박문희⁴⁶
△박상용⁵⁷ △박성숙⁶⁵ △박은호⁷⁷
△박주배⁶⁸ △박태식⁷⁸ △백태진⁷⁴
△손근찬⁵² △손봉기⁷³ △오경균⁶⁷

△윤광선⁶⁸ △윤세희⁶⁸ △윤여규⁷⁵
△이 행⁸⁰ △이건용⁶⁹ △이광우⁷⁶
△이도희⁷⁸ △이동철⁷⁷ △이두환⁷⁶
△이부영⁵² △이성규⁷² △이윤성⁷¹
△이의용⁷² △이정길⁶³ △임현술⁷¹
△정영화⁷⁵ △정을삼⁶⁰ △조영희⁵⁶
△최 윤⁷⁶ △최인호⁷⁰ △추연명⁷³
△한덕종⁶⁹ △허준평⁷⁰
◆치대 △곽현희⁶⁸ △김기국⁶⁴
△김병찬⁶⁹ △민병희⁷⁴ △박광선⁶⁹
△박순억⁶⁶ △박용준⁶⁴ △박찬유⁶⁵
△박충차⁶² △방수남⁶² △서영수⁶⁷
△양재호⁶⁴ △우진오⁷² △유병도⁵⁶
△유효영⁶² △이승환⁵⁹ △이용오⁶²
△이윤상⁵⁹ △이준규⁶⁶ △이지화⁶¹
△이진걸⁷⁷ △이형규⁵⁷ △임동욱⁶⁶
△임용준⁶⁵ △조기성⁷⁰ △조인호⁷⁰
△한성훈⁶⁰
◆대학원 △강희갑⁶⁷ △김광윤⁷³
△김석웅⁸¹ △김윤성⁸² △나병만⁷⁷
△문수진⁷⁷ △문형근⁷⁹ △박동준⁸³
△박선영⁹² △박성호⁹⁵ △박재환⁸¹
△신호수⁸⁵ △심 호⁸⁸ △양일석⁷³
△이광재⁷⁸ △이재봉⁷⁹ △전용기⁸²
△정기화⁷¹
◆경대원 △김정태⁶⁸ △김한준⁸⁹
△김호봉⁶⁸ △문국현⁷⁷ △박영희⁹⁰
△이병재⁶⁹ △이상락⁶⁵
◆보대원 △김종오⁷⁹ △민병찬⁷⁵
△박일영⁷⁹ △박종안⁷² △조경복⁹²
◆사대원 △신웅식⁶⁶ △이근웅⁷⁰
◆신대원 △유일상⁷⁴
◆행대원 △강병규⁷⁷ △김인동⁶⁵
△노일숙⁷⁹ △서동훈⁷³ △신순우⁷⁴
△정여철⁷⁴ △최규학⁶³ △최봉기⁷⁷
△최상철⁶⁴
◆환대원 △김경윤⁷⁹ △김배원⁶⁸
△김수철⁷⁶ △박동천⁸⁷ △사광호상⁸⁹
△임영호⁸⁴ △조남건⁸¹
◆AMP △곽중익⁴⁷ △김대환⁵⁴
△김형진⁵¹ △남중철⁴⁸ △박소범²³
△시영길⁵⁵ △신현규⁵⁷ △신희철⁵⁷
△안병근⁵⁰ △육신학⁵⁷ △이규철⁴⁴
△이근호⁵² △이재형⁵⁹ △이정상⁴⁹
△장영준⁶² △전창열³⁹ △정연근⁵⁸
△조대현⁵⁸ △조준현⁴⁴ △조형수⁵⁸
◆AIP △김덕표³⁶ △김윤종⁵¹

△박양신²⁰ △박영식²⁸ △윤명수³⁰
△윤여순²⁷ △이광원³⁵ △이금숙²⁹
△이명천³⁵ △이상희¹⁵ △이종진²⁸
△이창규¹¹ △정창현²⁰ △최정남²²
△황능웅¹¹
◆ACAD △권태석⁶⁰ △박 현⁵⁵
△박명규⁴⁰ △송영길⁵⁶ △신은우⁵⁶
△윤원호⁴² △이달화²⁴ △이왕열³³
△이진영⁵⁶ △전병현⁵¹ △조진형³⁶
◆ABP △박준명¹² △이계용²
△이관철³
◆SGS △김희철¹² △안기석¹⁰
△이제경¹² △허충화¹⁴ △황용연²
◆HPM △권기진⁸ △권혁란⁴
△김영식⁸ △서관석² △안호원⁶
△염신희¹⁴ △유문경¹² △이형근¹⁷
△장성호⁶ △최병용⁹
◆AIC △구호환¹⁵ △김동구¹³
△민장홍⁹ △서재택¹⁶ △서희석¹⁶
△유명환⁸ △윤재영⁷ △이수영¹⁸
△장낙진¹³ △최근수¹⁶ △최세근⁹
◆AFB △이동락¹
◆AMPFRI △강인중⁸ △김명중¹⁶
△양준호¹⁴
◆ACPMF △정광식²
◆GLP △김자빈¹¹ △김태일⁴
△손영수³ △유상열⁶
◆ALP △김재현² △심동섭²

일 반

◆인문대 △구교선⁰³ △권누리⁰⁴
△김세희⁰⁵ △김영인⁸³ △김유니⁰³
△김정호⁹⁰ △김태은⁰² △김희진⁹⁶
△남호식⁹⁴ △문병우⁸⁷ △문수현⁰⁴
△박우현⁰¹ △박주민⁰² △백기훈⁸²
△변우식⁷⁷ △서태영⁷⁴ △송지현⁰³
△신두영⁸² △신재철⁸² △심영길⁰⁰
△심윤남⁸² △안종철⁸⁹ △원종명⁹⁹
△유 식⁷⁹ △윤 경⁸¹ △윤나경⁰⁶
△이대넬⁰¹ △이대복⁰⁰ △이병직⁰⁰
△이서현⁰² △이용정⁰⁰ △이흥근⁷¹
△임미화⁸³ △장윤선⁹² △정병윤⁷⁸
△조유진⁰⁴ △차민정⁹⁴ △최완석⁹⁸
△한상희⁸³ △한서영⁰⁴ △황규학⁸¹
△황상선⁸⁴ △황영철⁷⁹
◆사회대 △감지혜⁰⁴ △강나영⁰⁴

△강수상⁹² △고지훈⁰¹ △곽대환⁸¹
△권민용⁸⁶ △권혁규⁸⁴ △김미정⁰³
△김서희⁰² △김성환⁷² △김유식⁸⁴
△김정국⁸⁹ △김정수⁷¹ △김지나⁰⁴
△김찬근⁷⁵ △김효정⁹³ △김휴철⁸⁷
△류연택⁹¹ △민지홍⁸⁴ △박기훈⁹⁷
△박병진⁸³ △박신영⁰³ △박종범⁰¹
△박종일⁸⁵ △박지우⁰¹ △박찬호⁷⁹
△박천웅⁹⁸ △박춘섭⁷⁹ △박환재⁰³
△배세달⁷⁷ △백용천⁸⁴ △백지욱⁰²
△상지원⁸⁶ △송이보라⁰³ △송인권⁷²
△송현종⁸³ △오남탁⁰¹ △오재석⁷⁸
△오철수⁸² △유동근⁹² △유재상⁰⁴
△윤계근⁷⁸ △윤수영⁰² △윤지환⁰¹
△이규진⁶⁸ △이동호⁸¹ △이백규⁸⁰
△이부원⁸³ △이상근⁰³ △이상만⁷⁵
△이재덕⁷³ △이재호⁰² △이진희⁰⁴
△이혜경⁰⁴ △이훈진⁸³ △임 찬⁰¹
△임은진⁰² △장희경⁰⁷ △전병왕⁸⁴
△정용진⁹⁸ △정인환⁰⁶ △정충기⁸¹
△주흥민⁹¹ △채 준⁸⁶ △최두원⁰⁴
△최종문⁸⁴ △최철영⁰¹ △최형근⁶⁹
△태효섭⁹¹ △한창욱⁹² △현무성⁸⁹
△홍기범⁸⁶
◆자연대 △강경란⁸⁸ △강승구⁰²
△강정현⁰⁷ △김도형⁰⁵ △김미리⁰⁷
△김미연⁰⁴ △김승환⁰⁵ △김용인⁹⁷
△김운오⁸⁵ △김은하⁰⁶ △김정현⁰¹
△김준연⁰⁵ △김준현⁰⁴ △김진욱⁹⁶
△김태윤⁰⁵ △김현성⁰⁷ △나병록⁷³
△노용하⁷⁸ △문종섭⁷⁷ △박해령⁰⁰
△상은정⁰⁴ △서재현⁰¹ △소소완⁸⁶
△양승락⁰² △양희웅⁹² △오은정⁸²
△우수현⁰⁴ △유지선⁰⁵ △윤석환⁰⁴
△이강근⁸⁰ △이명웅⁷⁷ △이문기⁰⁵
△이병철⁰² △이순열⁷⁹ △이원석⁰⁵
△이인규⁶⁸ △임다혜⁰⁵ △장원석⁹⁶
△전희진⁰² △제송근⁰³ △조성일⁹²
△조인후⁰² △조재린⁹⁰ △진교문⁸³
△최나랏⁹⁸ △한민현⁸³ △한명숙⁸⁰
◆간호대 △곽월희⁷⁴ △김기자⁵⁶
△김선애⁵¹ △박정호⁵⁸ △양광희⁶⁸
△우정에⁹⁶ △이연지⁰⁵ △이진수⁰⁵
△정혜실⁰⁴
◆경영대 △고동환⁹⁰ △고승철⁷⁵
△권영주⁰⁶ △김기훈⁰² △김대혁⁸¹
△김선호⁸¹ △김성민⁰⁰ △김왕용⁷⁸

△김주석⁹² △김태경⁰² △김해령⁰⁴
△문홍장⁷⁴ △박경진⁰³ △박봉취⁰²
△박영선⁰² △방한술⁰⁰ △배웅두⁰²
△백창기⁷⁶ △손대호⁹⁶ △송희식⁷²
△신윤철⁷⁰ △안남기⁸⁷ △양서정⁰¹
△오선영⁸³ △오세경⁷⁷ △오진환⁷⁷
△우지환⁹³ △윤용철⁸³ △이규현⁰⁰
△이선주⁷³ △이주세⁸³ △임성균⁷⁷
△장기권⁸² △장성욱⁹⁸ △조경진⁹⁹
△조승현⁰¹ △진승욱⁰² △최대혁⁰²
△최상원⁰¹ △최종현⁷⁶

◆공대 △강병기⁵¹ △강은구⁹⁷
△고석렬⁵² △고윤기⁰⁴ △고항규⁶⁸
△고형석⁸⁵ △고희승⁰⁷ △곽수량⁰⁷
△구남일⁰² △구민석⁰⁷ △구본응⁷¹
△구영근⁷⁰ △구자호⁰⁰ △구정모⁹³
△권봉일⁶⁹ △권오준⁰² △김경락⁵⁷
△김경민⁰² △김계천⁵³ △김규철⁰³
△김기준⁵⁷ △김도겸⁰¹ △김동희⁰³
△김병직⁰² △김상식⁵⁸ △김성건⁰¹
△김세중⁰⁵ △김세진⁹⁹ △김수현⁰¹
△김수현⁰⁵ △김수환⁶⁹ △김영균⁷¹
△김영우⁰³ △김유채⁶³ △김윤석⁸⁴
△김윤제⁶² △김인용⁷⁴ △김재용⁰⁷
△김재형⁵¹ △김정환⁶⁹ △김정훈⁰³
△김종인⁶⁸ △김주하⁰¹ △김진만⁵⁴
△김태형⁹⁴ △김관수⁵³ △김학기⁵⁰
△김헌택⁷² △김형전⁵² △김형태⁵⁷
△김홍근⁷⁶ △남근식⁰⁰ △남동익⁶⁶
△남승윤⁸² △남홍모⁶⁹ △노세래⁶⁵
△노채균⁵⁷ △노홍조⁴⁸ △도우동⁰¹
△문성득⁵¹ △민철기⁵⁶ △박 훈⁶³
△박대동⁰⁴ △박두근⁵³ △박상원⁹⁷
△박성순⁰³ △박양수⁸³ △박용철⁵⁵
△박의종⁶¹ △박종태⁶¹ △박천경⁵²
△박현빈⁶³ △배성준⁹⁹ △배세영⁰²
△배재현⁰⁵ △백영방⁵⁵ △백용현⁴⁸
△서정욱⁵³ △서진환⁹⁵ △서흥원⁸⁷
△성영환⁵⁸ △성운준⁰⁵ △성호용⁰³
△손택만⁶² △송봉근⁰⁵ △송수영⁵¹
△신기현⁰⁴ △신종훈⁰¹ △신지수⁴⁵
△안우희⁶⁴ △안주연⁰⁴ △안준규⁰¹
△양희진⁰² △엄성희⁰⁴ △엄응식⁰²
△엄재성⁷³ △엄찬식⁰² △엄희택⁴⁶
△오상윤⁸⁸ △오세현⁵⁹ △오승용⁰⁵
△오진석⁰⁵ △용진우⁰⁴ △우경호⁷⁸
△위경수⁰² △유택노⁵² △유현준⁰¹

△윤복현⁷¹ △윤성욱⁰² △윤정묵⁶³
△윤희돈⁹⁴ △윤희림⁸⁷ △이강훈⁵²
△이광민⁵⁷ △이교상⁶⁶ △이국로⁸⁰
△이규봉⁷⁴ △이기설⁴⁷ △이기화⁵³
△이기훈⁰⁵ △이대욱⁰³ △이명식⁴⁹
△이병길⁸⁶ △이삼무⁶⁹ △이상순⁶⁷
△이석영⁹⁸ △이선영⁰³ △이성기⁰³
△이수목⁷⁶ △이승무⁶¹ △이왕진⁷²
△이용일⁸⁶ △이용준⁰⁵ △이용창⁹⁷
△이우성⁹⁰ △이원복⁵⁰ △이원진⁸⁹
△이용직⁵¹ △이의남⁶² △이인재⁰⁴
△이인태⁵³ △이인희⁵⁶ △이재범⁰¹
△이정규⁶⁴ △이종근⁴⁸ △이종원⁶⁶
△이주협⁸³ △이지훈⁰⁴ △이진열⁷⁰
△이찬우⁰⁵ △이찬홍⁷⁴ △이창민⁰²
△이창완⁰⁷ △이학석⁷⁷ △이현우⁸¹
△이호정⁰⁰ △이희발⁷² △인용근⁸⁶
△임경춘⁵² △임영빈⁹¹ △임형준⁰⁴
△장기풍⁷³ △장덕수⁶⁶ △장봉진⁵³
△장은수⁰¹ △장정우⁰² △장충수⁰⁷
△전규선⁸⁶ △전금기⁶⁹ △전병규⁰¹
△전제호⁰³ △전흥기⁶⁹ △정규홍⁸²
△정동섭⁵⁸ △정병일⁵⁰ △정보현⁰¹
△정용근⁸⁵ △정은수⁰⁰ △정정운⁶²
△정진삼⁶⁵ △정태식⁹² △정태증⁴⁸
△정한모⁰¹ △조광연⁷⁰ △조구역⁰²
△조성용⁰⁵ △조예림⁰⁵ △조완구⁷¹
△조준희⁰⁴ △조철제⁵⁷ △조춘식⁷⁰
△조형태⁰⁰ △주덕진⁰⁵ △진민규⁰²
△진형구⁶³ △차동원⁶⁴ △초경열⁷⁶
△최경수⁴⁸ △최병훈⁰⁷ △최상현⁶⁴
△최시정⁵⁵ △최영박⁴⁸ △최영태⁵²
△최우종⁰² △최인영⁶³ △최정환⁸⁸
△최주희⁰⁷ △최준용⁰¹ △최준혁⁹⁰
△최지형⁰⁰ △최택상⁷⁶ △최희정⁶¹
△하태균⁸⁶ △한영철⁷⁴ △한창석⁶⁸
△한철종⁵⁵ △허기홍⁰⁵ △허성민⁰⁵
△현병구⁴⁹ △홍상현⁰² △홍석수⁰³
△홍종우⁵³ △황대식⁰⁴ △황영문⁵³
△황인선⁰⁰

◆농대 △강남훈⁷⁷ △강석민⁶¹
△강용신⁵⁴ △강우성⁶⁴ △강유성⁶⁴
△고영근⁷⁸ △곽재균⁰² △구외석⁸⁴
△권오섭⁷⁴ △권진봉⁷¹ △기상서⁸⁴
△김갑근⁶⁵ △김동춘⁴⁴ △김명권⁸¹
△김문수⁵⁴ △김억년⁶¹ △김용찬⁵⁷
△김용훈⁷² △김원보⁷³ △김재수⁵⁸

△김준평⁴⁸ △김진수⁰⁰ △김학기⁶⁵
△김형우⁰⁴ △김휘전⁶³ △남현석⁸¹
△노규식⁷⁶ △노재흥⁵⁶ △문서엽⁷³
△문양수⁸² △박동호⁷⁴ △박명우⁰⁵
△박영선⁵⁵ △박윤근⁵⁵ △박장렬⁵³
△서성원⁹³ △성지훈⁰² △손병구⁶³
△송 립⁰³ △송삼석⁵³ △송석은⁵⁸
△송찬석⁴⁶ △송하연⁰⁶ △신상혁⁵⁶
△신정균⁵⁴ △안의성⁵⁶ △양동섭⁹⁰
△오수영⁵⁹ △오충용⁶⁰ △오희정⁵⁷
△유광일⁶⁶ △유석환⁶⁵ △유세현⁷⁹
△유승화⁰⁴ △유영기⁸² △유영준⁵⁹
△윤성빈⁰⁴ △윤정원⁸⁵ △윤희석⁶⁶
△이관희⁵⁵ △이규석⁷³ △이규형⁵⁰
△이기순⁶⁹ △이길영⁷⁹ △이무영⁸⁰
△이민정⁰³ △이법재⁶⁵ △이사익⁰³
△이상화⁷⁴ △이석순⁶² △이석주⁵⁴
△이수욱⁵⁵ △이수장⁵⁸ △이수홍⁶⁴
△이순도⁷⁰ △이영호⁶⁸ △이인범⁰³
△이재완⁶⁸ △이종석⁶⁵ △이종태⁶⁴
△이진호⁹⁰ △이창희⁷⁸ △임병구⁶⁰
△임용섭⁸⁷ △전현기⁶⁴ △정관모⁵⁴
△정민현⁵⁵ △정인모⁷⁰ △정현열⁸¹
△조규택⁸⁶ △조성환⁵¹ △조수경⁷²
△전명준⁰³ △최동규⁶⁶ △최성환⁶²
△최영일⁴⁶ △최용현⁸⁰ △최재원⁰²
△최주건⁵⁵ △최중경⁷⁰ △최지협⁵⁴
△한성훈⁰⁰ △한태수⁶⁵ △허정희⁷²
△홍성택⁶⁴ △홍종진⁵⁷ △황병순⁰⁴
△황영지⁰⁴

◆문리대 △강경식⁶⁰ △강기진⁶³
△강세원⁵⁶ △강신희⁶⁰ △강학철⁵⁵
△강형률⁶⁷ △구본룡⁶⁹ △권오광⁵⁹
△권태승⁵⁵ △기우탁⁵⁷ △김기근⁶⁹
△김남현⁶⁶ △김대전⁵⁹ △김동욱⁶⁵
△김동일⁵⁸ △김명정⁶⁴ △김무창⁶¹
△김생기⁵⁹ △김시창⁶³ △김인철⁶⁰
△김정희⁶⁵ △김화중⁵⁴ △김흥수⁷⁰
△김희준⁶⁶ △노영립⁶⁶ △민홍식⁵⁵
△박상우⁵⁸ △박창남⁴⁸ △배성균⁵⁶
△배인하⁵⁹ △배태영⁶⁷ △변광수⁶⁵
△북진태⁶⁶ △송길상⁴⁸ △송병찬⁵⁹
△신 립⁶¹ △신충균⁵¹ △신표근⁷⁵
△신호순⁴⁹ △안사균⁴⁷ △안원태⁵²
△윤규호⁵⁸ △이강조⁵⁶ △이민주⁶¹
△이상택⁶¹ △이의호⁶¹ △이정민⁵⁹
△이정배⁵⁶ △이종인⁵⁴ △이종혁⁵¹

△이주형⁶⁵ △이진희⁵⁴ △이창우⁵⁵
△이효연⁷¹ △정관철⁵⁹ △정봉택⁵⁰
△정재석⁵² △조봉계⁶¹ △조상수⁶¹
△주혜경⁶⁸ △진홍순⁷⁰ △채기원⁵³
△최병두⁵⁴ △최선록⁵⁹ △최옥영⁶⁰
△최완식⁵⁴ △최원우⁶⁵ △최흥천⁵³
△한철순⁵⁸ △허창운⁵⁸ △현영욱⁶⁷
△홍경화⁵⁴

◆미대 △권순형⁴⁹ △김민지⁰¹
△김성국⁰⁴ △김주찬⁸⁶ △박경희⁰³
△박상민⁶¹ △박종규⁶⁹ △배경희⁰²
△손복희⁶⁷ △신재은⁰⁴ △이길종⁶⁰
△이성은⁶⁴ △이예린⁰⁵ △임상진⁵⁴
△임순자⁶⁹ △장상민⁵⁹ △장상의⁵⁹
△전병윤⁰² △전우정⁰⁰ △전혜란⁰²
△정상원⁵⁸ △조슬기⁰⁴ △조재구⁶⁰
△현숙자⁵⁶ △홍순무⁵⁴ △홍현중⁰⁴

◆법대 △경익현⁵⁷ △경정원⁰³
△고전철⁷¹ △곽상민⁹⁸ △권선용⁷³
△권지용⁴⁸ △김 욱⁸⁶ △김 철⁸³
△김 훈⁸⁵ △김경문⁰³ △김국현⁹⁶
△김규연⁶¹ △김근조⁶⁰ △김기성⁶⁰
△김대중⁵⁸ △김도영⁸⁶ △김민정⁰³
△김병철⁸³ △김복지⁴⁸ △김상구⁵⁵
△김신규⁵⁵ △김소연⁰⁴ △김시영⁷¹
△김양섭⁹⁰ △김연곤⁸⁵ △김영진⁵⁸
△김영태⁸⁴ △김예환⁴⁵ △김용현⁷⁴
△김윤섭⁵⁶ △김재규⁴⁹ △김재규⁵⁷
△김재학⁰² △김정기⁷⁵ △김정렬⁵⁴
△김정수⁰³ △김정학⁷¹ △김종춘⁸⁶
△김준섭⁶¹ △김지아⁹⁹ △김진우⁸⁹
△김진태⁸³ △김현서⁰² △김희태⁷⁴
△노병수⁸³ △노재구⁸⁸ △명완식⁵⁴
△민재홍⁹⁴ △박기웅⁰³ △박벽석⁹⁰
△박병연⁶⁷ △박상형⁴⁸ △박성민⁰²
△박용승⁷² △박우동⁵³ △박우영⁵⁴
△박준수⁵⁴ △박주환⁶³ △박천서⁵⁶
△박철희⁹² △박태종⁶⁵ △배영길⁶⁵
△배한수⁶⁸ △백 립⁵⁹ △백영철⁶⁸
△서요한⁸⁵ △서재국⁶⁰ △서주홍⁷³
△손관호⁵¹ △손필영⁵⁵ △송민호⁵⁵
△신광렬⁸⁴ △신진민⁶⁰ △심나섭⁵⁸
△안남규⁵⁰ △안왕선⁶⁴ △양승상⁵⁶
△양철웅⁰¹ △오세현⁷⁸ △오장희⁵⁶
△우영화⁶² △유병환⁷⁷ △유재성⁵⁹
△윤남근⁷⁷ △이 립⁶³ △이건리⁸¹
△이권형⁰⁰ △이대영⁵⁸ △이대우⁶⁷

△이루리⁰⁴ △이법재⁵⁸ △이주영⁹²
△이지현⁰³ △이춘근⁵⁷ △이학무⁵⁵
△이환웅⁰⁴ △이현경⁰² △임승관⁷⁰
△임일수⁹⁵ △임준호⁷⁷ △전태환⁸⁴
△정극수⁵⁵ △정만조⁵⁵ △정수영⁵³
△정승연⁹⁵ △정의식⁸³ △정재형⁵⁸
△정학철⁶⁴ △정혜리⁰³ △조세연⁵³
△조용석⁵³ △조효진⁰⁴ △지원훈⁶¹
△진동수⁶⁷ △진상윤⁸¹ △진종규⁰³
△차동언⁸² △최세모⁶⁷ △최세운⁰¹
△최원빈⁵³ △최종길⁸³ △최주영⁶⁶
△최창호⁵⁶ △함상술⁵⁸ △황국환⁸¹
△황지운⁰³

◆사대 △강하구⁶¹ △고경순⁶¹
△고다영⁰⁵ △곽동순⁶⁷ △구영주⁷²
△권 균⁶¹ △권경홍³⁹ △권오현⁷¹
△김미정⁸³ △김보라⁰² △김순동⁵⁶
△김순탁⁰⁵ △김양선⁰⁷ △김영준⁷³
△김예슬⁰⁴ △김완복⁷⁶ △김용선⁶⁷
△김인숙⁵⁸ △김재혁⁵⁰ △김정웅⁶⁵
△김주경⁵⁵ △김준호⁵⁰ △김창철⁶⁰
△김태영⁶⁰ △김학찬⁶² △김한주⁷⁹
△김형구⁵⁶ △김희분⁵⁰ △나민주⁸⁵
△남기경⁵⁸ △노광동⁰² △도화권⁹⁶
△류경숙⁷⁹ △류벽하⁷⁷ △박광채⁸⁵
△박승한⁵³ △박제동⁷⁰ △박태화⁵²
△박효경⁷⁴ △백남수⁴⁵ △백소연⁰⁵
△백영묘⁹⁸ △서견룡⁶⁰ △서준형⁸²
△성하경⁵⁶ △송상진⁰⁰ △신명자⁵⁶
△신창호⁴¹ △안진혁⁰¹ △오기세⁷⁴
△오명숙⁴⁰ △오인영⁵¹ △오해균⁷⁷
△유민영⁵⁷ △유영비⁰³ △윤인식⁶⁵
△윤종상⁵² △이광렬⁵⁶ △이병준⁰³
△이석주⁵⁶ △이석호⁵⁹ △이성근⁷⁶
△이성현⁵⁶ △이승우⁶² △이시정⁵⁴
△이영윤⁵⁸ △이재인⁰⁴ △이종연⁶³
△이중석⁰² △이진이⁰⁴ △이춘근⁰²
△이태웅⁷¹ △이한니⁰⁵ △이화성⁸¹
△임덕순⁵⁸ △임문식⁵⁶ △장병덕⁵⁷
△장원배⁶¹ △정부길⁵⁹ △정호삼⁵⁸
△조경오⁷⁵ △조주현⁰⁴ △주창우⁰⁴
△진형주⁹⁹ △차은진⁰⁵ △최민희⁵⁷
△최원규⁵⁸ △최전승⁶⁴ △탁혜경⁷⁹
△하기훈⁰¹ △홍경만⁵⁸ △황광원⁰²
△황상익⁵⁹ △황정숙⁰⁷

◆상대 △강상기⁵³ △고재정⁴⁶
△고학모⁵⁶ △권태신⁶⁸ △권태웅⁵⁸

△김규현⁵² △김성필⁶⁸ △김이규⁵⁰
△김정현⁵⁴ △김흥배⁶⁶ △민병래⁵²
△민병대⁵⁸ △박병환⁵⁰ △박원규⁵⁸
△배선홍⁴⁹ △서규상⁵³ △손기창⁵⁶
△손흥근⁵⁴ △송용상⁵⁶ △신광규⁵⁵
△신문철⁵² △양태진⁶⁷ △유명희⁵⁷
△윤 호⁶³ △윤록현⁵⁹ △윤상규⁵⁷
△윤호중⁵² △이 연⁵⁹ △이강천⁷¹
△이계식⁵⁶ △이명기⁵⁹ △이봉길⁵⁸
△이상호⁵⁷ △이영세⁶⁵ △이재환⁶²
△이종오⁵² △이태중⁵⁰ △이흥근⁷⁰
△임동승⁵⁶ △장기남⁶¹ △장기선⁶⁶
△정덕화⁵⁶ △정문화⁷¹ △정진홍⁴⁵
△정하용⁶⁵ △정하경⁶⁰ △최윤식⁵⁵
△최재혁⁴⁹ △홍순태⁵⁶
◆생활대 △권상열⁰¹ △권정현⁰³
△김구자⁶⁰ △김남미⁷³ △김동우⁹⁹
△김희진⁰³ △박선정⁰⁶ △박주희⁸⁵
△신민섭⁸² △신주영⁰⁷ △오광숙⁶⁰
△이성란⁸³ △이정호⁹⁸ △이현희⁵⁶
△전상숙⁸¹ △전주리⁰³ △정주미⁰⁵
△조윤서⁰² △조혜자⁶⁰ △주정일⁴⁶
△최영진⁰¹ △하승연⁰⁵ △한의수⁵⁷
△홍혜선⁰⁵ △황덕순⁷² △황수현⁰⁴
◆수의대 △고성욱⁵⁷ △길혜명⁰⁵
△김기연⁰³ △김남호⁹⁰ △김석환⁹⁷
△김세은⁰¹ △김종면⁵² △김준삼⁵⁵
△김준영⁰⁷ △김지은⁰⁵ △김태희⁵⁸
△김협수⁸¹ △김희석⁷² △박영혜⁸²
△박유순⁶³ △서동일⁵⁵ △서유진⁰⁵
△안승현⁰⁵ △안지예⁰⁵ △안진옥⁰⁴
△오남진⁶⁷ △우창현⁷⁵ △원문상⁶⁰
△이민재⁰⁵ △이종화⁶⁶ △이호원⁶⁶
△임지혜⁹⁶ △정승기⁵³ △정윤섭⁵⁵
△조광영⁵⁴ △조기형⁴⁹ △조용호⁸³
△조은지⁰⁵ △최종화⁰⁵
◆약대 △김규상⁵⁶ △권용수⁵⁹
△김용웅⁸⁶ △김장근⁰⁴ △김준용⁴³
△김혜립⁰⁵ △노치경⁰³ △도광룡⁷¹
△박동순⁵⁷ △박영선⁵⁰ △박정애⁰⁴
△박정희⁵¹ △박지용⁴⁵ △배옥남⁹⁵
△백희정⁰⁷ △서동화⁶⁹ △서성수⁵³
△설재윤⁰⁵ △송순자⁶⁰ △송희성⁶⁰
△양영자⁵¹ △이규송⁵² △이동악⁵⁷
△이동영⁰⁵ △이상준⁶¹ △이선구⁹⁰
△이용화⁶² △이태희⁸⁵ △이효준⁰¹
△전재창⁰⁵ △정만익⁴⁷ △정영숙⁵²
△정인명⁴⁹ △조우상⁵⁶ △조윤옥⁸⁵
△조중현⁶⁸ △주학우⁷⁰ △채계화⁵¹
△최경희⁵⁴ △추민정⁰⁵ △탁금자⁵¹
△황정혜⁰¹
◆음대 △김상원⁸⁷ △김신애⁰⁵
△김의창⁶² △문영애⁶⁵ △문혜신⁹⁴
△박미숙⁸¹ △박용빈⁰⁵ △박효경⁶⁵
△송복자⁸⁴ △엄미연⁹⁶ △오동일⁵⁴
△유재우⁰³ △유지혜⁸¹ △윤진영⁶⁴
△이명희⁷⁰ △이정현⁹⁷ △이정현⁰⁰
△이종석⁷² △이종현⁰¹ △장수영⁰³
△전상직⁸² △조가현⁷⁵ △조현호⁰⁵
△최영택⁷⁴ △한민숙⁶³ △홍기영⁰⁵
◆의대 △계수덕⁴⁵ △김 윤⁶²
△김병엽⁵⁰ △김소희⁰⁷ △김양렬⁹⁶
△김용진⁶⁹ △김원화⁵⁶ △김진국⁵²
△김창기⁸⁹ △김태준⁸⁹ △문형조⁵⁵
△문홍세⁵⁴ △박지순⁰⁰ △백낙형⁵⁴
△서정후⁵⁰ △송금영⁸⁶ △송민준⁵⁷
△심민영⁰⁵ △오백록⁰⁵ △유정주⁰⁵
△윤자현⁵³ △이상철⁷² △이승복⁰⁵
△이은혜⁷⁴ △이인영⁵¹ △이정균⁵⁶
△이정하⁰² △이제룡⁵⁰ △이형모⁰¹
△이훈훈⁰⁵ △임경환⁰¹ △장이찬⁷⁹

△전성규⁰³ △전은영⁰⁵ △정장진⁵⁰
△정진영⁰⁵ △정해철⁷⁶ △조태준⁸³
△주진순⁴³ △최수용⁰⁷ △최윤정⁰⁵
△추희호⁰⁵ △한기준⁵² △한인교⁶⁶
△홍기정⁸¹
◆치대 △강석봉⁵⁵ △강세범⁸²
△김강주⁷⁹ △김규순⁶⁸ △김동원⁷⁶
△김종문⁵⁰ △김지현⁰⁵ △김철위⁵⁷
△김평일⁷² △김혜연⁰⁷ △김화춘⁵⁹
△나병선⁶⁹ △노지섭⁴⁵ △민기주⁸¹
△박경옥⁶⁷ △박동귀⁵⁵ △박인옥⁸³
△박종만⁶⁹ △성영환⁵⁹ △손대식⁶⁵
△송광수⁵⁹ △송명옥⁸⁶ △안건모⁸³
△안희용⁸³ △양무도⁷⁰ △염성환⁷²
△유동수⁵⁶ △윤동호⁸⁰ △이교인⁶⁵
△이대경⁸³ △이만섭⁵⁷ △이상선⁸¹
△이석근⁹⁰ △이성호⁷⁵ △이수연⁰⁰
△이종혁⁰⁴ △이철민⁷² △이택훈⁷¹
△임광수⁶⁰ △임종호⁸² △정대식⁸¹
△정호길⁷¹ △하상완⁶⁴ △한광수⁷²
△허정규⁶² △현영민⁹⁰ △황 경⁵³
◆대학원 △강경택⁹⁴ △김용구⁸⁰
△김형규⁹⁴ △박원명⁶⁴ △손충기⁷⁹
△신동수⁹² △신현익⁹³ △이충우⁸⁴
△이효수⁸⁴ △진선주⁶² △채종근⁹¹
△최양석⁰⁴ △함창식⁸¹ △홍성혁⁸⁴
◆경대원 △이만삼⁶⁷ △이범신⁶⁹
△이승주⁹³
◆교대원 △김병두⁶⁵
◆국대원 △박지훈⁰⁵ △이수연⁰⁶
△장용연⁰⁴
◆보대원 △김삼권⁸⁴ △양정운⁰⁴
△주은영⁰⁶ △최용어⁶⁷
◆신대원 △윤임술⁶⁹ △이준우⁷³
◆행대원 △김규현⁰⁷ △김동은⁰⁵
△김부경⁸⁴ △김상국⁷² △박성환⁸⁴
△서일수⁶⁷ △신호현⁸⁴ △여상환⁶⁸
△오태영⁸⁵ △이상미⁰³ △이상설⁶⁵
△이준원⁸⁷ △주종욱⁸⁶
◆현대원 △이준택⁷¹ △황지현⁷⁶
◆AMP △강상진³⁰ △고윤재²⁰
△고제방⁶⁵ △권병좌³² △권석우¹⁵
△김관수⁶¹ △김구섭⁶⁶ △김세겸⁴³
△김승호² △김연수⁶⁶ △김영광⁶⁵
△김영철⁶¹ △김원하⁶⁶ △김종선⁴⁸
△김죽영⁶⁶ △김진찬⁴³ △김희수⁶²
△나성화⁶⁶ △노연웅⁴⁸ △문승용⁴
△박상태⁵⁶ △박세영¹³ △박영춘⁶⁶
△박일동⁶⁶ △박종일⁴⁴ △박현섭⁶⁶
△배신호³⁴ △백규현²⁵ △서호근⁶⁰
△손재권⁶² △송학성⁶³ △신명철⁸
△신용규⁶⁵ △신용무²⁶ △신중규⁴
△신지윤⁶⁶ △안병일⁵³ △안치한³¹
△윤우영²⁶ △윤준식⁶⁵ △윤태하³⁴
△이병달²⁸ △이병성² △이병찬⁶⁶
△이사영⁵⁷ △이재민⁶³ △이종환⁷
△이재욱⁵⁴ △이하일⁶⁶ △이현국¹³
△장영섭¹⁴ △전용우⁶⁵ △정병호¹⁷
△정상봉²⁴ △정원철⁶⁶ △정윤대⁶⁴
△정형택⁶ △제동국⁶⁶ △조남중⁶⁶
△조성태⁶⁶ △조승현⁶⁶ △조영진⁴²
△조용연²¹ △진성섭¹⁰ △채창원⁶⁵
△최낙철³ △최동만⁶⁶ △최세필⁵⁴
△한현수³¹ △홍성호⁶⁶ △홍종대⁴
△황문성⁶⁶
◆AIP △고형석²¹ △곽문연⁸
△구본립⁴⁰ △김경수³⁹ △김계동³⁶
△김상기⁴⁰ △김은수⁴⁰ △김은태³⁰
△김종필⁴⁰ △남귀현³ △노영희⁴⁰
△문규원¹⁰ △문동인⁴⁰ △박기상¹³
△박우진⁴⁰ △박임간³ △박종술³⁹

△박종우⁶ △박형국¹² △성창제³⁶
△손인국⁴ △심규진¹² △안철호²⁹
△왕창근³⁵ △유영완¹⁷ △유창열⁴⁰
△윤백중⁴ △이경구²⁸ △이덕영²³
△이두하⁴⁰ △이상철¹³ △이상춘⁴⁰
△이완두³³ △이은경⁴⁰ △이재서¹¹
△이종광¹¹ △이태희²¹ △임응규⁴⁰
△전종택¹⁶ △정상원³⁹ △조수영³⁹
△조호연³⁹ △채대석¹⁵ △최돈형³⁹
△최면승³⁹ △한상규²¹ △홍재성⁴⁰
◆ACAD △강희간⁴⁴ △김 철⁶³
△김득만¹² △김용상²² △김원근⁶⁵
△김재영⁶⁷ △김호연¹¹ △남상해³⁷
△노재우¹⁶ △민병운⁵⁶ △박해도⁶⁶
△배경동⁶⁴ △배상철⁶⁷ △변승일⁶³
△서삼석⁶⁶ △성기태⁵⁹ △신현대³¹
△윤영표⁶⁷ △이광호⁵³ △이재동⁶⁶
△이흥기⁶⁶ △장해익³⁴ △전종식⁷
△전형일¹² △정복진⁶⁶ △조해주⁶⁴
△진인권²⁸ △진진형⁴² △채명기⁶⁶
△최완용⁶⁷ △황재성³⁸
◆ABP △마호웅³² △신유순²⁹
△이상락⁴ △이용운²¹ △이철호³²
△황용창¹¹
◆SGS △고병준²² △김명수²
△김석택²² △김승원²² △박주웅¹
△설도원²¹ △송춘섭²² △안영대²²
△여용상²⁰ △우의제¹² △이원영²²
△임병철²¹ △주봉현¹⁷ △지철규²¹
△황길식²²
◆APC △박경준⁷ △이권기⁶

△임광수¹ △임홍순¹ △홍기만³
◆HPM △권오성²³ △김윤철²¹
△김정희²² △김종대¹⁶ △김황준⁵
△박태화²⁰ △박희두⁷ △양통권²³
△어준선⁵ △오용성⁶ △이석태²³
△이신락²³ △이재우²³ △정호용⁸
△조길자¹² △조상형²³ △조정식²³
△최종환¹⁰ △황경수²³
◆AMPP △김승남⁹ △김인신⁶
△양현수⁹ △엄경섭⁹ △이은세⁹
△홍석우⁹
◆AIC △김달석²⁵ △김석영²⁵
△김정훈²⁶ △김후곤²⁶ △배대현²⁵
△신창환²⁶ △안효원²⁵ △이재민²⁶
△조은상¹⁸ △홍창화²⁵
◆AFB △김영수⁶ △박인철⁸
△신병호⁷ △조은미⁸ △천명재⁷
△최병철⁸
◆AMPFRI △강태영²⁴ △권영자¹⁴
△김일동⁸ △김종인⁷ △박용철⁴
△송명익²⁴ △안상교¹⁰ △이상국¹⁸
△이열종¹ △이용철²⁴ △이정자¹⁰
△최윤경²⁴ △최진태¹³ △홍서현⁶
◆ACPMF △김명수⁵ △김병각⁵
△김선국⁵ △김용수⁵ △남관우⁵
△여병철⁵ △오윤택⁵ △유창석⁵
△이윤범⁵ △이재영² △이정현⁵
△정태승⁵ △조종수¹ △최병현⁵
△최형식³ △하대청⁵ △하용환⁵
△한남희⁵ △한상욱⁵
◆FIP △신현민¹ △안영아⁵

△이기준²
◆GLP △김영찬¹⁸ △김영철¹¹
△김영훈¹⁸ △김우관¹⁴ △김태겸¹⁷
△김태진¹⁸ △박영식¹⁸ △박영희¹⁸
△박옥만¹⁸ △박종익¹⁸ △윤진희¹⁸
△이석형¹² △이재환¹⁸ △이철규¹⁸
△임종호¹¹ △장창열¹⁵ △진종찬¹⁰
△차기민¹⁶ △최성일¹² △최진철¹⁸
△홍영화¹⁶
◆ALP △김형남⁹ △백영문⁸
△이석준⁹ △이정재⁸ △장석산⁹
△장세영¹ △정영조⁸ △홍영기⁶
◆ANMP △노경호⁵ △정은미⁵
◆SPARC △김달수¹ △김백형¹³
△김인환² △김청자¹³ △손태일¹³
△최광종⁶ △최평규⁴
◆AFP △이성수³
◆ASP △강대승¹⁵ △강창식⁶
△남상권¹⁰ △박광진⁹ △박도규¹⁴
△박상호¹⁶ △박진규⁵ △송희원¹⁰
△안동명¹⁵ △엄경열¹³ △염조일¹⁵
△유배근⁶ △유태완¹⁶ △이길형¹⁰
△이순용⁷ △최선호⁸ △최성규¹⁴

6 월 계 : 62,020,000원
평생회비 : 56,050,000원
입 회 비 : 1,030,000원
총 계 : 804,020,000원



제6회 (2009년 7월 5일 일요일)

서울대학교 동문 바둑대회



발표까지 깔끔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바둑에서 새로운 묘수를 발견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공유하는 나눔의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후배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여러분들의 경륜과 애교심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장학빌딩을 통해서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증대를 위한 특지장학금과 건립기금의 소액모금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金夏奭대학원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이 정답게 모여 수담을 나누는 이 자리야말로 바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문 바둑대회가 선후배간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운영위원장인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대회요강을 낭독한 후 “일찍이 金東鳴선생은 三樂論에서 바둑은 오락문화의 최고봉이자 살아있는 병서요, 처세훈으로써 장차 학문적으로 정립할 가치가 있다고 예언해 최근 대학에 바둑학과가 창설되기도 했다”면서 “동문들께서도 학문하는 자세로 승패를 떠나 친목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전 경기는 승자간 대결방식이 아닌 다승으로 승자를 가렸으며, 작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상대동창회팀이 향상된 실력으로 공대동창회A팀을 누르고 4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공대동창회A팀은 문리대동창회팀과 사대동창회팀을 차례로 물리쳤으나

마지막 대국에서 상대동창회팀에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작년 우승자인 문리대동창회팀은 공대동창회A팀과 같은 3승 1패였으나 승점에서 뒤져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이날 우승한 상대동창회팀은 林光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패와 함께 1백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한편 단체전 첫 대국에서 맞붙은 미대동창회팀의 章洙弘(응용미술69-76)학과와 서울대바둑부팀의 郭炯俊(약학06입)군은 40년간의 세대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바둑에 대한 답소를 나눴다. 결국 미대동창회팀은 서울대바둑부팀에게 5대 0으로 완패했으나, 미대 동문들은 후배들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좋은 묘수를 알려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도 했다.

개인전 최강조에서는 3국에서 작년 대회 우승자인 高晟郁(경영78-83)동문을 물리친 任東昱(치의학66-73)동문이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高晟郁동문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며, 4승 1패를 차지한 羅斗洪(사법84-88)·吳炅煥(경영06입)군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최강조 우승자인 任東昱동문은 상패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특히 이번 단체전 경기는 팀 승점, 상대 승점, 개인 승점 순으로 순위를 가렸으며, 개인전 경기는 정해진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아 심판위원들이 대회장을 돌아다니며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개인전 입상자 시상식이 끝난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모교 바둑부 회장인 鄭承峴(산림과학06입)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전세트와 모교 발전기금에서 준비한 홍보용 팸플릿을 받았다. 또 경품추첨행사에서 노트북, USB메모리, 진공청소기(朴熙伯부회장 1대 기증),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음식물건조처리기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역대 최다인 2백8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 최강조·A조·B조·C조·D조·E조와 단체전(이하 변형스위스리그) 19개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인전은 5국, 단체전은 4국을 치러 승자를 가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朴熙伯·孔

大植부회장, 모교 金夏奭대학원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 姜寅求보대원동창회장을 비롯해 심판위원장인 모교 崔松和 前부총장, 특별게스트이자 심판위원인 黃焰(프로4단)·梁建(프로8단)씨, 모교 재학생 吳周星(물리07입·프로2단)군, 申秉湜·朴治文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모교 미대 章洙弘학장·바둑부 李昶煥지도교수 등이 선수로 참가했다.

이번 진행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카페의 ‘아마바둑사랑회’에서 맡아 접수에서부터 마지막 순위

운영
위원회

공동대회장 임광수(동창회장), 이장무(모교 총장) / 운영위원장 손일근(상임부회장)

운영위원 박치문(중앙일보 전문위원), 신병식(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신현웅(동창회 부회장), 장재성(모교 학생처장), 박연수(동창회 사무총장), 심판위원장 최송화(서울대 명예교수) / 심판위원 황염(프로 4단), 양건(프로 8단), 오주성(물리 07·프로 2단)

개 회 사



임 광 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第6回 서울大 同門바둑大會
開會辭(7月 5日 09:30 母校
冠岳캠퍼스 研究公園 本館)

바쁘신 가운데 參席해주신
母校 金夏奭 大學院長님과
敎職員 여러분, 그리고 멋진
對局을 펼치실 先後輩 同門
여러분과 内外 貴賓 여러분!!
그동안 安寧하셨습니까?

올해로 벌써 6회를 맞이한
同門 바둑大會가 이처럼 많은
同門들의 熱誠과 關心 속에서
盛況裡에 開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生覺
합니다.

어려운 時期에도 不拘하고,
母校가 世界 名門大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愛校心을
倍加시키는 團合의 場에 이처
럼 많은 同門들께서 參席해
주신 데 對하여 感謝의 말씀
을 드립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世代間, 階層間 對話가 점점
斷絶되어 가고 있는 요즘, 周
邊의 親舊나 同僚 知人들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바둑은 다른 趣味나
娛樂에 비해 集中力과 頭腦開

發에 좋은 스포츠이며, 禮儀
를 갖춰 忍耐하면 勝利하는
삶의 奧妙한 眞理가 담겨 있
는 傳統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頭腦스포
츠 分野를 잘 活用하여 韓國
의 高手들이 世界를 재패하며
國威를 宣揚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大人이 나아
가야 할 方向에 對해 生覺해
보게 됩니다.

天然資源이 不足한 나라에서
韓國바둑이 世界最強으로 불
리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理
由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秘訣은 젊은 프로棋士들의 共
同研究가 큰 役割을 했다고
합니다.

바둑에서 새로운 妙手를 發
見하게 되면 자기 것으로만
固執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共有하는 나
눔의 文化가 오래 전부터 자
리잡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後輩들이 繼續해서 誕生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母校의 同門들도 過
去의 모래알에서 벗어나 이러
한 行事を 통해서 서로 交流
하고 나누는 美德을 實踐하여
後輩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
는 마음으로 母校 發展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데 對하여 感
謝하게 生覺하면서 自負心을
느끼게 됩니다.

世界 10位圈 經濟大國으로
跳躍시킨 主役들이신 여러분
들의 經綸과 愛校心을 우리
後輩들에게 傳受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더욱 活性化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큰
關心과 많은 參與를 하여주시

기를 바랍니다.

先後輩 同門 여러분!

또한 오늘은 우리를 길러주
고 언제나 곁에 있어준 母校
에 對하여 그 고마움을 되새
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母校가 世界 名門 大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母校의 李
長茂 總長님과 敎職員들은 不
撤晝夜 애쓰고 계십니다.

大學 發展과 競爭力과 自律
權을 確保하기 爲한 서울大
法人化 計劃이 잘 推進될 수
있도록 母校는 發展基金을 劃
期的으로 擴充했으며, 最近
LA에 母校 美洲센터를 開所하
고 世界 水準의 研究中心大學
인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World Class University)事業
을 主導的으로 推進하는 등
世界 名門大學으로 跳躍하는
데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는
데 對하여 대단히 기쁘게 生
覺합니다.

母校의 命運이 걸린 이러한
時點에서, 先後輩 同門들께서
母校를 積極的으로 도와주시
기를 懇曲히 付託 드립니다.

本會의 獎學빌딩도 現在 麻
浦에서 地下 6個層 工事が
마무리 段階에 있으며, 올해
下半期(8月)부터는 本格的으
로 地上層 工事が 이루어질
豫定입니다. 最近 各 分野의
建築 專門家를 建設管理委員
으로 委囑하여 建設의 品質과
安全 點檢 등이 徹底하게 이
루어지도록 萬全을 기하고 있
습니다.

全 建設課程을 建設管理委員

會의 審議를 거쳐 훌륭하게
進行시킴으로써 어디다 내놓
아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同
窓會館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
겠습니다.

특히 在學生에 對한 獎學金
増大를 爲한 特志獎學金과
建立基金의 少額募金事業은
現在도 繼續되고 있습니다.

獎學 빌딩 名譽의 殿堂에 여
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後世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積極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來年 末 獎學빌딩이 完工되
면 同窓會 財産 1千億원 時代
가 펼쳐지게 될 것이며, 33萬
同門들의 念願과 意志가 모여
完成된 獎學빌딩이 母校가 世
界 Top 10 大學이 되는 데 든
든한 後援者 役割을 할 것으
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누가 祖國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冠岳을 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確信합니다.

祖國과 民族 앞에 責任을 다
하는 서울大人이 됩시다!

이번 行事を 爲하여 審判委
員長을 맡으신 崔松和 前 副
總長님, 審査를 하게 되신 黃
焰 프로棋士와 母校 오주성
군에게 感謝를 드리면서, 오늘
參與하신 모든 분들과 그 家
庭에 健康과 幸運이 恒常 함
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2009年 7月 5日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林光洙



▲ 단체전 우승 상대동창회팀
좌로부터 金顯, 延健昊동문, 林光洙회장, 尹同鉉, 吳斗煥, 金善煥동문



▲ 崔松和동문(右)이 黃焔·梁建프로그사와 지도대국을 펼쳤다.

◆ ◆ ◆ 단 · 체 · 전 ◆ ◆ ◆

■ 우승 상대동창회팀

延健昊(상학66-70)
吳斗煥(국제경제82-89)
尹同鉉(국제경제82-89)
金顯(경제85-90)
金善煥(경제85-92)

■ 준우승 공대동창회A팀

崔勳(토목공학63-67)
李允浩(기계공학64-71)
李康國(화학공학65-69)
李楠基(섬유공학65-72)
李昇默(토목공학66-72)

■ 공동 3위 문리대동창회팀

朴治文(국문68-79)
申秉湜(미학73-78)
鄭載興(사회79-85)
姜瑩根(불문82-87)
安成文(정치83-87)

■ 공동 3위 사대동창회팀

崔安基(지리교육70-79)
李相奎(불어교육75-82)
柳忠均(수학교육82졸)
鄭原採(지구과학교육80-84)
金鳳來(화학교육85-89)

◆ ◆ ◆ 개 · 인 · 전 ◆ ◆ ◆

■ 최강조

우 승 - 任東昱(치의학66-73)
준우승 - 高晟郁(경영78-83)
공동3위 - 羅斗洪(사법84-88)
吳炅煥(경영06입)

■ A조

우 승 - 楊台雨(수리과학01입)
준우승 - 白武欽(금속공학84-88)
공동3위 - 林鎔準(치의학65-72)
李康云(치의학88-92)

■ B조

우 승 - 鄭範勳(경영76-80)
준우승 - 張次熙(중앙도서관 사서사무원)
공동3위 - 韓載正(계산통계80-84)
이근영(국사99-06)

■ C조

우 승 - 尹錫泰(화학교육73-77)
준우승 - 尹龍夏(불리84-89)
공동3위 - 孫元鍾(상학58-64)
朴祐成(불어교육82-86)

■ D조

우 승 - 李泰鉉(상학66-70)
준우승 - 金興萬(무역66-70)
공동3위 - 朴洙煥(체육교육65-70)
河泰煥(불어교육77-82)

■ E조

우 승 - 張基文(생물교육65-72)
준우승 - 李永哲(경영68-72)
공동3위 - 洪性寅(행정58-64)
丘슬아(지구환경과학04입)



▲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최강조 任東昱우승자(右)에게 상패 전달



▲ 崔松和동문이 A조 楊台雨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 金鳳九동문이 B조 鄭範勳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 姜寅求동문이 C조 尹錫泰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 申秉湜동문이 D조 李泰鉉우승자(右)에게 상패 전달



▲ 朴治文동문이 E조 張基文우승자(右)에게 상패 전달

-- 대회요강 --

1. 본대회의 진행과 운영 방법은 한국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릅니다.
2. 개인전은 출전자의 기력에 따라 5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 단체전은 5인이 한 팀이 되어 대국하게 됩니다.
4. 단체전 · 개인전 모두 변형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국합니다.
5. 대국은 모두 호선 6집반 공제로 하며 10분 자유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로 제한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대국이 종료되지 않을시 프로기사로 구성된 심판위원들의 판정으로 승패를 결정짓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대진표는 사전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됩니다.

시 상 품

▶ 개인전 최강조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상패 ■상품권(40만원)	1명
준 우 승	■상패 ■상품권(30만원)	1명
공동 3위	■상품권(10만원)	1명

▶ 개인전 A조, B조, C조, D조, E조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상패 ■상품권(30만원)	각조 1명
준 우 승	■상패 ■상품권(20만원)	각조 1명
공동 3위	■상품권(10만원)	각조 2명

■용어풀이

- 승수 : 본인이 이긴 승의 합
- 승점 : 본인과 대국한 상대자의 승의 합
- 종합승점 : 본인과 대국한 상대방의 승점의 합

■순위 결정 방법

- 승수가 많은 자가 상위
- 위가 동률인 경우 승점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종합승점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내가 이긴 자의 승수의 합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내가 이긴 자의 승점의 합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승자승의 원칙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률로 처리

▶ 단체전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상패 ■상품권(150만원) ■우승기	1팀
준 우 승	■상패 ■상품권(100만원)	1팀
공동 3위	■상패 ■상품권(50만원)	2팀

차세대 영웅, 날개를 펴다!

그가 드디어 세계대회 정상에 섰다. 국내에서는 각종 신예기전과 본격기전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지만 국외에서는 좀처럼 그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강동윤 九단이 후지쯔배에서 세계정상의 꿈을 이뤘다. 177cm의 훗칠한 키에 아직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귀여운 외모의 소유자 강동윤 九단. 새로운 영웅의 탄생이다.



📖 세계대회 첫 우승이다.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시합이 있었는데 졌다. 이겼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웃음) 앞으로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전체적으로 운이 따른 것 같다. 이번 후지쯔배에서도 16강부터 전부 역전승했다. (박영훈 九단과의) 준결승전이 가장 힘들었다.

📖 결승전을 치를 때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 원래 대국이 있는 날에는 잘 먹지 못한다. 음식이 안 받는다. 대국이 끝나고도 잘 못 먹는 편이다. 그래서 대국 중에 물이나 녹차를 많이 마셔둔다.

📖 바둑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 대체로 기보를 많이 놓아보는 편이다. 포석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 이창호-이세돌 시대를 잇는 차세대 1인자는 누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웃음) 최철한·박영훈·원성진 九단 등 85년생 기사들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 오랜 시간 바둑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바둑에 대한 권태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는가.

👤 (바둑은) 내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려고 한다. 중요한 시합에서 지거나 역전패 당하면 괴롭다. 그럴 때면 동료기사들과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본다. 술도 마신다.(웃음)

📖 어떤 노래를 즐겨부르는지 궁금하다.

👤 슬픈 노래만 부른다. 박효신 노래를 좋아한다.

📖 프로기사들은 대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바둑을 지면 괴롭기 때문인가.

👤 나는 우울한 걸 즐기는 게 맞는 것 같다.(웃음) 바둑을 지면 우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 이창호 九단은 ‘같이 사막을 걸어가자는 바둑 스타일’이고, 강동윤 九단의 경우는 ‘상대방 눈을 사정없이 찌르는 바둑 스타일’이라고 한다.

👤 하하. 상대가 좋아하는 포석을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것 같다. 잡이 많은 바둑을 선호하는 편인데 상대가 하자는 대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전투바둑이 된다.

📖 이창호 九단이 최근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준우승 징크스를) 자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그래도 워낙 강하시니까 언제라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으실 거라고 본다.

📖 ‘톡톡 튀던 강동윤이 변했다’며 아쉬워하는 바둑팬들이 많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었는가?

👤 그런 건 아니다. 예전에는 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인터뷰도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고. 그러다보니 상대를 비하하는 말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듯하게 되더라.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 강동윤 九단이 생각하는 까다로운 기사는 누구인가.

👤 중국의 천야오예 九단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뒀는데 대부분 졌다.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것 같다.

📖 집에서는 어떤 아들, 어떤 동생인지 궁금하다.(강동윤 九단에게는 3살 위의 형이 있다)

👤 조용한 아들이다.(웃음) 말이 없다. 어렸을 때는 애교도 부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형과도 조용하게 지낸다.

📖 중국 갑조리그에서 부르면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

👤 사실 올해 제의가 왔었는데 시합이 많을 것 같아서 거절했다. 그런데 시합이 별로 없더라. 후회하고 있다.(웃음)

📖 주목하고 있는 신예가 있다면?

👤 박정환 四단이다. 어린 기사들 중에서 가장 잘 두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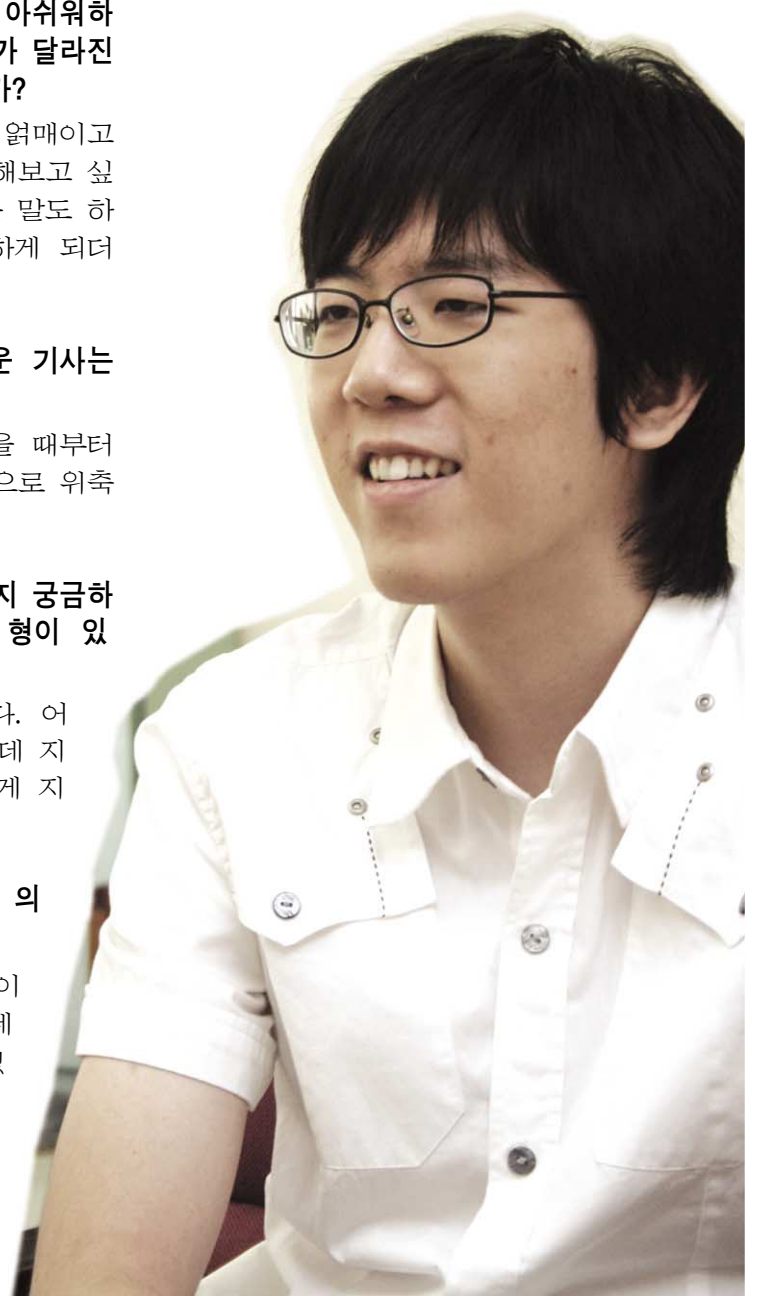
📖 상금은 어디에 쓸 계획인가.

👤 생각해보지 않았다. 상금은 부모님이 관리해 주신다. 마땅히 쓸 곳도 없다.

📖 세계정상에 올라섰다.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 세계대회에서 한번 우승하고 다시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내랭킹 10위권 이내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

〈인터뷰/ 이도윤 기자〉





제7회 춘란배 결승3번기 창하오, 춘란배 첫 우승!

6월 24일 중국 청두(成都) 무후사(武侯祠)에서 벌어진 제7회 춘란배 결승3번기 제2국에서 창하오 九단이 이창호 九단을 상대로 176수만에 백불계승하며 종합전적 2-0로 춘란배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005년 이후 5회 연속 우승문턱에서 매년 좌절했던 이창호 九단은 결승1국에서의 역전패를 만회하지 못하고 2국에서도 착각을 일으키며 국제 메이저기전 6회 연속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이창호의 좌절, 세계대회 6연속 준우승의 현장.(이창호 VS 창하오)



영웅!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

제3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최규병, 시니어팀에 우승 팡파레

7월 14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벌어진 제3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18국에서 최규병 九단이 조혜연 八단을 맞아 298수 끝에 흑으로 8집반승하며 시니어팀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니어팀은 안관욱 七단의 6연승과 박영찬 三단이 루이나이웨이·박지은 九단을 연파하는 수훈에 힘입어 여류팀을 압도했다. 최규병 九단의

승리로 조훈현·서봉수·유병호·서능욱 九단, 김종수 六단은 칼집도 건드리지 않은 채 팀 승리를 누리는 기쁨을 만끽했다.

(주)지지옥션이 주최하는 지지옥션배의 우승 상금은 7,000만원이며 3연승 달성 시 200만원, 이후 1승 추가 시마다 100만원의 연승상금이 붙는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영상 핫 뉴스



- ① 九段위에 十段, 입신 이후에도 길은 있습니다.
- ② 원익배가 어느새 다섯돌을 맞았습니다.
- ③ 천하의 조국수도 이젠 예선 멤버입니까?
- ④ 다섯돌이 40주년으로 발전할 때까지 -
- ⑤ 남녀노소 따로 또 같이 어울립니다.

제5기 원익배 십단전 원익배 십단전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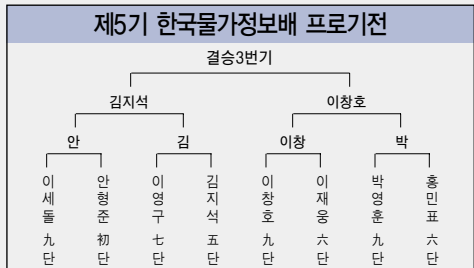
7월 8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제5기 원익배 십단전이 예선1회전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예선전에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238명 중 본선 시드를 제외한 206명이 참가해 39장의 본선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전기 우승자 박정환 四단, 준우승자 백홍석 七단, 4강 진출자 이창호·목진석 九단이

본선 시드를 받았고 제2기 십단전 우승을 차지했던 안조영 九단이 후원사 시드를 배정받았다. 경향신문사와 (주)바둑TV가 공동 주최하고 원익그룹이 후원하는 제5기 원익배 십단전의 우승상금은 5,000만원이며 준우승상금은 1,500만원이다.



제5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준결승전 사이클링 히트냐, 생애 첫 타이틀이냐

바둑영웅 이창호 九단과 바둑신동 김지석 五단이 결승에서 맞붙는다. 7월 15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준결승전에서 이창호 九단과 김지석 五단이 각각 박영훈 九단, 안형준 二단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김지석 五단은 최근 34승 4패(승률 89.5%)의 발군성적으로 다승·승률·연승 기록 부문 1위를 달리며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고 있다. 김지석 五단이 우승할 경우 생애 첫 타이틀 획득이 되며 이창호 九단이 우승할 경우 국내 사이클링 히트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3번기로 펼쳐질 결승전은 7월 말(예정:29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제87회 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이세돌 파문 해결하고 아마추어 특별입단 승인

7월 2일 역삼동 GS타워 32층 회의실에서 제87회 한국기원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총 11명의 임원진이 참석해 이세돌 九단의 휴직문제와 관련, 중국리그 참가문제 · 한국기원 규정 개정사항 · 대한바둑협회 통합 문제 · 아마추어 입단제도 변경 등의 사안을 놓고 1시간 반 가량 회의를 벌였다.

이세돌 휴직 관련 제87회 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

1. 이세돌 九단이 제출한 휴직원은 받아들인다.
2. 한국기원은 이세돌 九단이 자숙하기를 바라며 규정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중국리그 참가는 이미 계약이 이뤄져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 올해는 특별히 허용한다.

오픈기전 점수제에 의한 아마추어 특별입단 승인

앞으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아마추어에게 프로입단의 길이 열린다. 8강은 5점, 16강 3점, 32강 2점, 64강 1점으로 총 5점 이상이면 입단이 허용된다.



제30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유신환, 7승 1패로 준우승



유신환(21 · 양재호 도장) 아마6단이 제30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5월 27일 ~ 30일 일본 시즈오카(静岡)현 후쿠로이(袋井)시 오가사야마(小笠山)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출전한 유신환 아마6단은 최종 성적 7승 1패를 기록했다.

대회 우승은 8전 전승을 기록한 중국의 후이칭(胡煜清) 아마8단에게 돌아갔다. 후이칭 아마8단은 2005년에 이어 4년 만에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66개국 선수단이 참가해 성황리에 폐막된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는 내년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종 순위(1~10위)

1위 중국(8승)	2위 한국(7승 1패)
3위 홍콩(7승 1패)	4위 대만(6승 2패)
5위 일본(6승 2패)	6위 싱가포르(6승 2패)
7위 룩셈부르크(6승 2패)	8위 프랑스(6승 2패)
9위 체코(6승 2패)	10위 캐나다(5승 3패)



한국기원 · 육군65사단 자매결연 협약식



7월 15일 한국기원과 육군 65사단(사단장:허일회 준장)이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경기도 양주군에 위치한 65사단 사단장 집무실에서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54사단 허일회 사단장을 비롯해 한국기원 한상열 사무총장, 김효정二段 등이 참석했다.

65사단은 지난 3월 7일 군 사상 처음으로 천보바둑교실을 개설해 장병들의 정서순화와 여가선용, 취미생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영상 핫 뉴스

2009KB한국바둑리그 신안투어(신안태평천일염 VS 인천바투) 신안태평천일염 홈에서 짜릿한 역전승!

2009KB한국바둑리그 신안투어(신안태평천일염 VS 인천바투) 행사가 6월 13, 14일 이틀간 신안군 증도에 열렸다.

사전 인기투표로 신안태평천일염의 대표기사로 선발된 박정상은 14일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3층 쪽마루에서 속개된 투어대국에서 인천바투의 대표기사 허영호를 맞아 시종 고전하다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증도는 2009KB한국바둑리그 투어행사 이외에도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를 유치해 대성황을 이뤘다.



세계청소년 바둑축제 열린다

제1회 응진싱크빅 강릉청소년바둑축제가 8월 9일부터 14일까지 강릉 영동대학에서 열린다. 한국바둑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총예산 7억원으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1,200여 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프로기사의 개인 지도와 다면기를 비롯해 축구·농구, 외국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등도 준비돼 있다.

이 행사를 위해 다수의 유명 프로기사들이 행사 도우미를 자청하고 현지에 내려가며 최근 휴직 중인 이세돌 九단도 참가의사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규 · 허영호 · 백홍석 七단 승단

박병규 六단은 지난 5월 1일 KB국민은행 2009한국바둑리그 예선2회전에서 김만수 七단을 꺾고 승단의 기쁨을 누렸으며 허영호·백홍석 六단은 한국리그 본선시드를 부여받음에 따라 七단으로 승격했다.

박진솔·손근기 三단은 '간단한 기교를 부릴 줄 안다'는 소교(小巧·四단의 별칭)에 올랐고, 윤영민·김수진 二단은 '비로소 싸우는 힘을 갖춘다'는 투력(鬪力·三단의 별칭)으로 올라섰다.

김진훈·안형준·한용규 初단은 '일견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움직인다'는 약우(若愚·二단의 별칭)에 오르는 등 모두 10명의 기사가 승단했다.



Interview

| 의(醫) · 무(武) · 예(藝) 아우른 생활의 달인 송경식 박사



“최선의 삶을 위해 바둑의 즐거움을 경계합니다”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의 첫인상은 인터뷰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실마리다. ‘인터뷰의 80%는 사전정보로 이루어진다’는 상식과 충돌하는 일이긴 하지만 대상에 관한 사전정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직관으로 그 사람이 가진 ‘날 것’의 이미지를 끌어내고 싶다면 사전정보 없이 마주쳐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인터뷰 대상과 처음 마주보는 순간만큼은 사전에 수집된 머릿속의 정보를 잠시 지워두는 게 좋다. 이 작은 깨달음은 예정에 없었던 첫 만남부터 돌발적으로 무모하게 이어진 인터뷰의 선물이다.

32권의 저서를 가진 저명한 한의학, 교육학 박사이며 가전으로 전수된 종합무술 고단자. 프로그램 래머를 셋씩이나 고용해 바둑사이트를 만들만큼 바둑을 좋아하면서도 ‘최선의 삶을 위해 바둑에 깊이 몰입하는 즐거움은 경계한다’는 송경식 박사(전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회장, 현 텍사스 한의사협회 회장). 그 별난 사람, 별난 바둑사랑을 들여다본다.

6월 23일. 한 남자가 김철중 3단 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세계사이버기원(사이버오로 cyberoro.com) 사무실을 방문했다. ‘아마바둑의 황제’로 군림하다가 입단 이후 은거한 도인처럼 조용히 지내온 김 3단하고 어떻게 동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남자에 관해서는 약간의 사전정보가 있었다.

1. 미국에서 왔다. 2. 저명한 의학박사다. 3. 바둑을 좋아한다. 4. 10여 년 전부터 사이버오로 곽민호 부사장과 인터넷 교류가 있었다. 5. 오로대국실에 hwata라는 대화명을 가지고 있다. 6. 오프라인에서는 이번이 첫 만남이다.

그의 얼굴을 처음 본 찰나의 느낌은 ‘날카로움에 가까운 광물질의 단단함’이었다. 건강을 위한 단순운동이 아닌 고도의 육체수련을 거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氣度)가 물씬 풍겼다. 혹시, 무술 같은 거 했나?

이 사람, 나이가 몇일까. 문득, 그런 의문이 먼저 고개를 쳐든 이유는 검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는 짧은 백발과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이 주는 언밸런스 때문일 것이다. 흰머리는 노년의 상징인데 짧은 스포츠머리에 청년의 얼굴을 가진 데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긴다. 찰나의 직관, 이미지스캐닝으로 뽑아낸 결론. 이 사람, 기인(奇人)이구나.

김 3단의 소개로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전승 한방병원(傳承 韓方病院) 원장 송경식. 음? 풍기는 기운으로 봐서 무술이나 그 비슷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명사인줄 알았는데 한의학 박사라니.

평소 동패들과 이런저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섬세한 눈썰미’의 소유자임을 한껏 뽐겨왔건만. 그래 맞아, 라며 박수를 보낸 인간들은 다 뒤편 말인가. 아니, 내 안목이 이 정도 밖에 안 났나. 살짝, 실망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에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어차피 곽 부사장하고는 오랜 회포를(비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버공간의 교류였지만) 풀어야 하고 뭔가 ‘꺼리’가 될 거 같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송 박사와 김 3단이 한국기원을 방문하고 돌아온 시간이 오후 6시경인데 한국기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마바둑의 강호 임동균 7단과 동행했다. 사이버오로의 ‘취신선’이란 대화명으로 잘 알려진 임 7단은 이미 불그레한 얼굴

로 사이버공간을 횡행중인 미명(美名)을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었다.

흠, 김 3단의 주량도 만만치 않다던데 공연히 잘못 끼어들어서 사망신고를 하는 건 아닌지,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귀 언저리 후두부를 강타하고 지나갔으나 아무튼 곽 부사장의 안내로 명동에 있는 한정식 전문식당 ‘진사택(進士宅)’으로 이동한다.

식당 안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김 3단 부부와 송 박사가 동행하게 된 사연이 풀려나온다. 김 3단 부부에게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유학중인 딸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송 박사와 만나게 됐다고 한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다. 바둑이라는 분명한 인연의 고리가 있었으니까.

송 박사는 사이버오로 사이트에 ‘hwata’라는 대화명을 가진 아마 유단자다. 그것도 그냥 아마 유단자가 아니고 ‘취신선’과 호선으로 겨루는 왕별7단이다. 이 정도의 기량을 갖추려면 한번쯤은 바둑에 ‘미쳐야’ 하는데 정작 대국을 즐기는 횡수는 고개를 가웃거릴 정도로 적고 직업도 바둑과 거리가 멀다.

직업이 뭘까. 센스 있는 월간바둑 독자라면 ‘hwata(화타)’라는 대화명으로 금세 ‘감’을 잡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절봉사를 발휘해볼까.

송 박사가 대화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타(華陀 145~208)는 중국 한말(漢末)시대 전설의 명의(名醫)다. 본명은 부(敷), 자(字)는 원화(元化). 지금의 안후이성(安徽省) 보셴(亳縣) 출생이다.

외과에 특히 뛰어나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외과의 비조(鼻祖)’로 통하며 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 등 의료 전반에 두루 통하였고 치료법이 다양하면서도 간명한 처방으로 유명했다. 화타가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외과 수술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마비산(麻沸散)’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해 위장 절제수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수련법과 섭생에도 뛰어나 5가지 동물의 모습을 본떠 ‘오금희(五禽戲)’라는 수련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화타와 관련된 설화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 ‘삼국지’에서 촉(蜀)의 명장 관우(關羽)가

화타에게 독화살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바둑을 두었다는 일화는 그럴 듯한 그림까지 남겨져 바둑 마니아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설명이 좀 길었나? 아무튼 송 박사는 한의사라는 얘기가. 듣다보니 평범한 한의사가 아니다. 한의학은 물론, 교육학 박사학위와 32권의 저서를 가진 명사. 전 미국 한의사 총연합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텍사스 한의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UPN채널, 내셔널TV, 시카고TV 토크쇼, 텍사스 KXX TV, 댈러스모닝뉴스 등 수많은 방송출연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런데 식사도중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송 박사가 육류는 물론, 해물까지 입에 대지 않는 완벽한 채식주의자라는 것. 우리는 송 박사의 당당한 체구를 보고 막연히 식성도 좋고 남들이 즐기는 건(이틀테면 술, 담배) 모두 즐기리라 생각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먹지 않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셈이 됐으니 이를 어쩐다. 종업원을 호출해 가능한 채소요리를 다시 부탁하고 화제도 자연스럽게 식습관으로 넘어갔다.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 그런데 언제부터 채식하게 된 겁니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지고 앞에서 살짝, 실망했던 ‘안목’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송 박사는 한의사일 뿐 아니라 태권도는 물론, 태극권, 소림권 등 가전무술을 전수받고 젊은 시절 미8군, 공수부대 등에서 지도사범까지 지낸 종합무술 고단자였다. 흠, 그러면 그렇지. 한눈에 알아봤다니까.

채식을 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일까.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익혀 대회에도 나가고 어른들과 대련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낙법을 시도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는데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5년 동안 병석에 있었죠. 나중에는 ‘가망이 없다’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음식도 못 먹고 장기는 전부 상한 데다 걸핏하면 피를 토할 정도였으니까요.”

송 박사는 ‘내가 살아난 것은 모두 한의사였던 아버님 덕’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종합병원에서 손을 놓은 아들의 목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체질을 연구해 치료에 양방과 한방을 모두 동원하고 식이요법을 병

행했다.

“기적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몸의 기능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부터 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최고의 한의학 박사로부터 체질과 음식에 관한 특급강의를 들었다.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의 차이. 참깨와 들깨기름을 섞어 먹는 게 좋은 이유. 오메가 3, 6, 9의 영양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송 박사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따금씩 한 10초 정도? 말을 멈추고 소리 없이 희끗, 웃으며 바라본다. 강단에 선 교수가 질문을 던진 학생을 바라보는 눈빛. 마치,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표정 하나가 좌중을 더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대화를 지루하지 않게 이끄는 호호조절이랄까. 이런 ‘대화의 기술’은 배워둘 만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골목길에서 물었다. 미국에 있는 한의사협회에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 같다. ‘화타’가 있는데 혹시 ‘편작(編鵲)’은 없나.

‘편작’은 ‘화타’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전설적 명의다. 성명은 진월인(秦越人)으로 전국시대에 활동했다. 장상군(長桑君)에게 의학을 배워 금방(禁方)의 구전과 의서를 받아 명의가 되었고 곡나라(BC 655년 멸망) 태자의 급환을 고쳐 죽음에서 되살린 일화로 유명하다.

바로 답이 날아온다. 바둑 두는 한의사들은 있는데 ‘편작’은 없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내가 사용해야겠는데? 이런, ‘화타’만 해도 천하를 울리는 명의인데 ‘편작’까지? 욕심도 많으셔라. 조만간 사이버오로의 팬들은 전설의 명의 둘이 교대로 출몰하는 걸 볼 수 있겠다.

가족인터뷰를 약속한 7월 2일. ‘한옥마을’을 찾아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사진을 찍어 선물하려던 욕심은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속절없이 묻혀버렸고 약속시간까지 늦는 바람에 체통 없이 허둥거리는 최악의 인터뷰어가 됐다.

기자는 스타일을 구겼지만 빗길을 뚫고 약속시간을 맞춰온 송 박사 가족은 최고였다. 부인은 미인, 아들은 서글서글한 호남이었고 딸은 예뻐다. 가족은 가정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비추는 거울. 기자가 그 거울에서 발견한 것은 ‘자유로움과 따뜻함’이었다.

송 박사는 81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일 때문에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가족이 함께 순수하게 여행을 목적으로 조국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동의학원(경희대 한의학과와 전신)을 나와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더 넓은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싶어서 혈혈단신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81년 11월 15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니 30년 전의 각오와 의지가 읽혀진다.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 워싱턴DC로 들어갔다. 무술과 바둑으로 단련된 놀라운 집중력은 그때부터 발휘됐다.

인디애나대학에서 체육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텍사스 캐롤톤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하나 쉽게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 사람에겐 도무지 난관이라는 게 없었을 것 같다. 무슨 판타지소설에 등장하는 슈퍼영웅이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쩐지 불편하다. 그렇군. 회의실, 그것도 칸막이만 세운 곳에 가족을 나란히 앉혀두고 거의 송 박사하고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가족들에게 고문이다. 어차피 비가 쏟아져서 한옥마을은 갈 수 없게 됐는데 아예 점심식사 장소로 옮겨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식단을 이야기하다가 가족의 식습관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송 박사는 채식에찬론자다. 특이한 건

자녀에게조차 채식을 강요하진 않는다는 것. 체질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적합한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인 송인자 여사와 (Shepton)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하영은 송 박사의 영향을 받아 채식을 좋아하는데 배일러(Baylor)대학에 다니는 아들 준영은 씨익, 웃으며 말한다.

“전, 곱창도 잘 먹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어발음. 그냥 모국어를 잊지 않게 가르친 정도가 아니다. 서울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 다던데 송 박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 같다.

“저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인입니다. 자기들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문화의 이해는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는 학교에서 공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테니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라’고 가르쳤어요.”

음, 그런데 곱창을 잘 먹는다고? 준영은 좀 불만일지 모르지만 압도적 다수가 원하니까 점심은 인사동 사찰음식 전문점 ‘산촌(山村)’으로 결정한다. 이 자리는 승용차를 가져온 김찬우 5단이 동행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비 내리는 인사동의 좁다란 골목길은 제법 운치가 있다. 송 박사 가족도 사찰색채 짙은 ‘산촌’ 풍경이 마음에 든 것 같다. 다행이다. 자리를 잡고 식단을 정한 다음 수첩과 볼펜을 뽐아드는데 하영이 천정에 줄을 매달아 식탁까지 늘어뜨린 연등을 신기한 듯 만져 본다.

아이, 예뻐라. 예쁘냐? 난 네가 더 예쁜데? 호뭇한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는 엄마까지, 한 장 찰칵! 아니, 저 인간이 여자들만 찍어주고 난 왜 안 찍어주냐?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지만 공평하게 무릎걸음으로 자리를 옮겨 건너편에 앉은 준영의 얼굴도 한 장, 찰칵! 음, 호남형의 얼굴에 무술로 단련된 탄탄한 몸매. 텔런트가 따로 없구나.

“부인이 미인이신데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족을 초대했으니 이 정도는 물어야 한다. 10초쯤 말을 끊고 얼굴을 바라보며 희끗, 웃는 특유의 표정 뒤로 결혼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과정이 허탈할 정도로 빠르다. 원래 속기취향이셨나?

“나이 서른을 훌쩍 넘겨서도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죠. 언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안 어른신이 선을 보라는 거예요.”

인연이란 그런 거다. 밤하늘처럼 막막하다가도 그 한가운대를 번쩍, 가르세 번개처럼 찰나에 이어진다. 서울예대(텔런트 최민수, 최재성 씨가 동창이란다)를 나와 현대상사에 근무하던 미모의 재원. 나이 차이가 제법 컸다. 마음에 안 들었다면 거짓말인데?

“5일 데이트하고 일주일 뒤에 결혼했어요. 딱 하나만 부탁했죠. 내 부모님과 6개월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도 그 일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송 박사님, 명색이 바둑마니아인데 바둑이야기가 너무 없으시다. 어려서부터 가전무술을 익히고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바둑은 또 언제 배워서 오로 왕별7단이 되었을까.

“아버님이 바둑을 잘 두셨어요. 어깨너머로 배웠죠. 2급쯤 두셨던 거 같아요.”

당시에 2급이면 인근에 적수가 없는 ‘동네국수’ 수준.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바둑은 쉽게 손에 잡혔고 기량도 금세 쑥쑥 늘어났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로는 대국 기회도 흔치 않았는데 어느새 사이버오로 최고수들이 겨루는 왕별무대에 오른 것을 보니, 작심하고 매달렸다면 프로기사가 됐을지도 모를 재능 아닌가. 알고 보니 ‘애국적 사연’이 있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 동네 기원에서 원장과 바둑을 뒤편 적이 있었는데 제 기력이 아마추어 3~4단 정도는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거의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미국에 와서는 바둑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하루는 병원에서 집중력 결핍증이 있는 환자에게 바둑을 권했는데 바둑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참 나의 설명을 듣고는 아! 고?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바둑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 하게 된 거죠.”

미국은 바둑의 일본명칭 ‘고(go)’를 사용한다. 바둑협회도 일본인들이 주축이 된 A.G.A(American Go Association)다. 오래 전부터 일본인들이 해외보급에 앞장서 노력해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송 박사는 그것이 안타까웠나보다.

인터넷바둑이 급속하게 확산된 2000년 전후 오로 1800(사이버오로 대국프로그램 초기버전)시절부터 ‘hwata’는 사이버공간의 강자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이때 경북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다가 ‘오로 대국프로그램’을 만든 곽민호 부사장과 알게 됐다.

‘영고수’, ‘취신선’ 같은 오로바둑의 인기 왕별7단들과도 교류를 갖게 됐는데 최근에는 사재를 털어 한국바둑을 상징하는 전통바둑협회(Traditional Baduk Association)를 설립하고 현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대국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그래픽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나름 고안한 교육기능과 문답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기능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송 박사는 환자들의 치료과정에 바둑을 끼워 넣는다. 바둑의 초반 구상이나 수읽기 등이 명상, 참선 같은 마음의 수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도장을 차린 건 아니지만 저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술과 바둑을 함께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태권도와 바둑을 같이 가르치는 시도가 없나요?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태권도나 태극권이 신체수양이라면 바둑은 마음의 수양이다. 육체와 마음 어느 한쪽만 수련하는 것보다 심신의 균형을 갖춰 수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송 박사의 말을 듣다보니 얼굴이 붉어진다.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태권도의 종주국이요, 바둑의 최강국을 자부하는 우리가 이 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교육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뒤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둑은 반드시 직업과 분리하여 즐겨야 하며 바둑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주객전도의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송 박사는 인터넷에서만 가끔 대국하고 기원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바둑을 두지 않는다. 그건 송 박사의 바둑철학이며 인생철학이다.

바둑은 한번 몰입하면 도끼자루가 썩을 때까지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마력을 가진 정신의 유희다. 오프라인에서 바둑에 심취하다보면 자연히 업무에 태만해지고 가족에게도 소홀해진다. 송 박사의 말은, 둘수록 깊어지고 알수록 재미있는 바둑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도 바둑 그 안에 있다는 설명이다.

바둑의 깊은 몰입으로 얻어지는 큰 즐거움을 경계하는 것은, ‘절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균형’이란, 살아있는 ‘바둑성인’ 우칭위엔 선생의 말씀 ‘조화(調和)’의 다른 말. 결국, 송 박사가 추구하는 건 최선의 어울림, 최선의 삶이다.

아아, 이거 어쩐다. 넘치게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해서 어느덧 32권이 되었다는 저서 이야기도 해야 하고 넘치도록 들은 체질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야 하는데...

멀리 미국하고도 텍사스 캐롤톤이 있을 만한 방향으로 고개 숙여 부족한 글, 사죄드린다.

좋은 수, 나쁜 수, 이상한 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처럼 바둑의 수에도 좋은 수, 나쁜 수, 이상한 수가 있다.
매달 두어진 프로바둑, 아마바둑(인터넷바둑) 중 좋은 수, 나쁜 수, 이상한 수를 소개한다.
좋은 수는 배우고, 나쁜 수는 버리고, 이상한 수는 연구하자는 취지로...

□ 구성 / 백재욱

좋은 수 - 읽고 있었던 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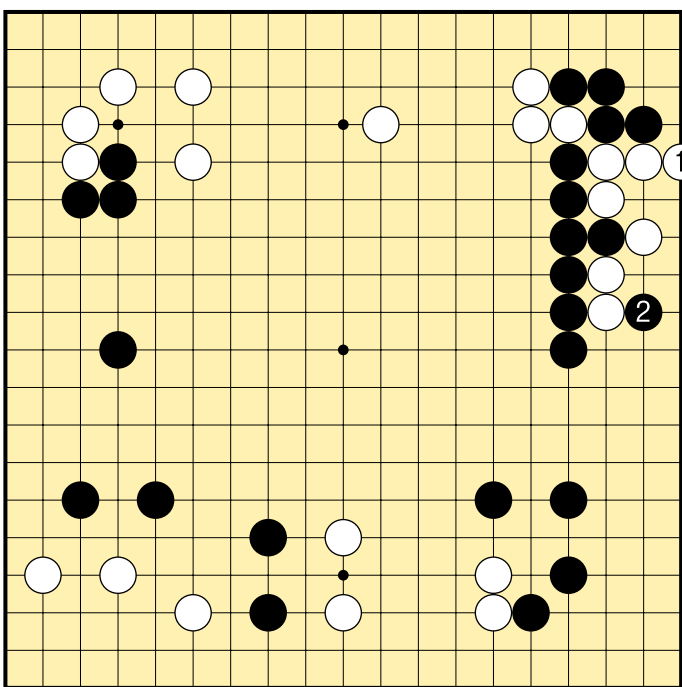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시안(西安)팀의 최철한과 신싱(新興)팀의 뤼시허의 한 판으로 주장전.

우상쪽에서 백이 침입한 이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백이 1로 1선에 내려서자, 흑은 2로 붙여왔다. 통렬한 수이자 좋은 맥점!

2009 중국 갑조리그

○ 최철한 九단 ● 뤼시허(羅洗河) 九단

〈제한시간 각 3시간, 덤 7집반, 2009. 7. 4. 중국, 201수 끝, 흑 불계승〉



백1로 잇는 것은 무책임하다. 흑2에 백3·5로 수상전을 시도해 봐도 흑6을 불러 수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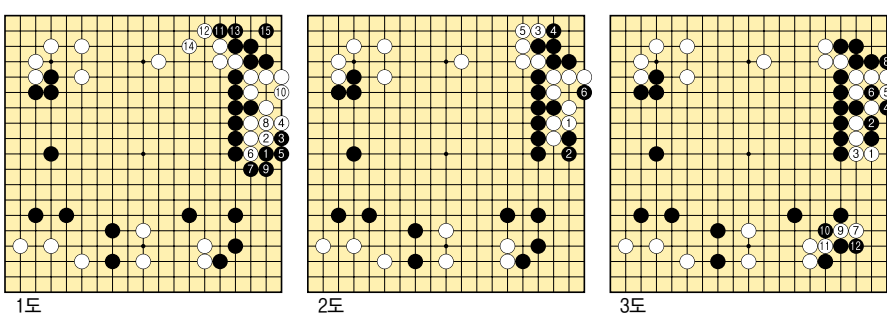
3도(실전진행1)

백1의 젓힘은 예정된 행동이었고 흑4에 백5로 버텨서 이곳은 패가 필연이다. 최철한은 이 패의 대가로 백7·9에 연타해서 충분하다고 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헛패에 가까웠다.

4도(실전진행2)

이어지는 실전진행. 흑20까지 우변 백이 송두리째 잡혀서는 피해가 엄청나다. 사실상 여기서 바둑이 끝났다.

5도(백1에 두었어야)



백도 물론 이 수를 이미 읽어 두고 대책을 세웠으나, 그 수 읽기 속에는 중대한 판단착오가 있었다.

1도(백, 성공!)

맥점을 모르면 흑1로 두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백2 이하 10의 삶은 필연이며 흑도 11 이하 15로 살아야 한다. 백은 선수이므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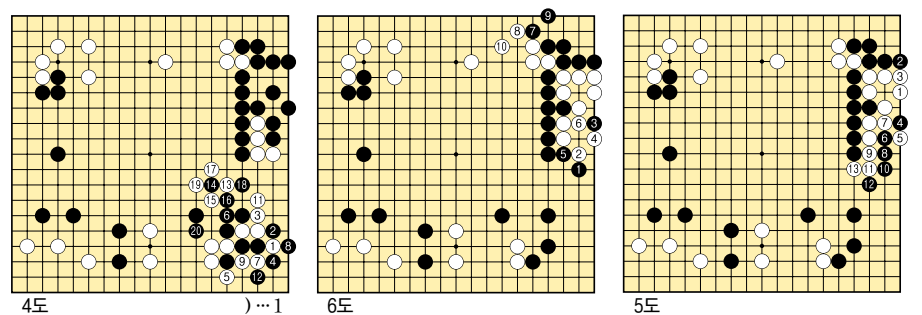
2도(무책임한 수)

장면 다음

애초에 백은 1로 두어야 했다. 흑4의 치중은 성립하지 않는다. 백5에 흑6·8로 강행해도 백9에서 13으로 돌파하면 공격이 안된다.

6도(백도 할 만하다)

따라서 앞그림 4로는 이 그림 흑1의 날일자가 정수. 백2에 흑3으로 치중하고 5를 활용한다. 10까지는 필연인데, 백은 이 진행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 프로들의 중론은 '백도 할 만하다'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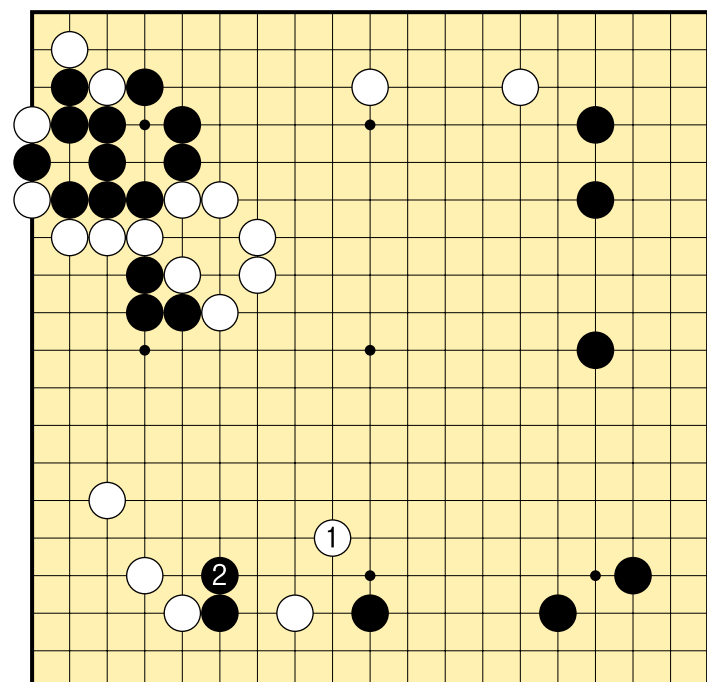


나쁜 수 - 움직일 곳이 아니었다

제37기 하이원배 명인전 예선결승

○ 목진석 九단 ● 김지석 五단

〈제한시간 각 2시간, 덤 6집반, 2009. 6. 30. 한국기원, 181수 끝, 흑 불계승〉



10명의 풀리그로 본선을 진행하고 1, 2위가 결승5번기를 벌여 명인 타이틀을 결정했던 전기와는 달리 이번 기부터 대회방식이 대폭 바뀌었다. 먼저 본선은 양대리그. 시드 3명(강동윤 원성진 이창호 九단)과 예선 통과자 9명, 총 12명이 6명씩 2개조(A, B)로 나뉘어 리그를 펼친다. 각조 1, 2위가 결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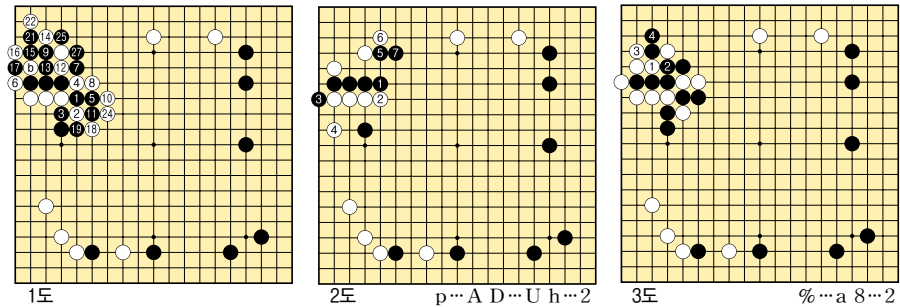
올라 크로스(A조 1위:B조 2위, B조 1위:A조 2위)로 맞붙어 준결승3번기를 치른다. 3번기의 승자끼리 결승5번기로 제37대 명인을 가리게 된다.

아홉 개의 티켓 중 하나가 걸려 있는 한판.

백이 1로 날일자해 좌변에서 좌하 일대를 키웠을 때 즉각 흑2로 선 것이 좋지 않았다. 움직일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1도(경과도)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장면이 나오기까지 좌상의 접전이 흥미만점이었다. 그 경과를 살펴본다. 흑1에 젓힌 것은 신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연구의 흔적이 엿보인다. 백2 이하 6에 흑7·9는 최강이며 이렇게 되면 패는 필연적인 코스. 27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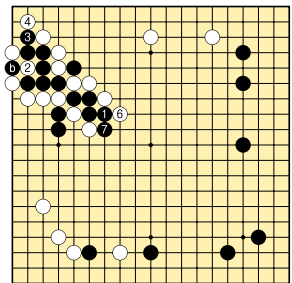
갈림을 놓고 프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흑이 약간 재미있지 않느냐는 평가가 다수설이었다.

2도(보통의 진행)

앞 그림 1로는 가만히 흑1로 느는 것이 보통. 백2에는 흑3으로 하나 젓혀 놓고 흑5에 붙이고 7로 느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3도(흑, 팻감이 없다)

1도 19는 어쩔 수 없었다. 흑1로 나가고 싶지만 백6의 팻감이 절호가 되어 8로 패를 따낸 다음 흑에게 팻감이 없어 낭패를 본다.



4도(백의 응수를 살핀다)

장면 2로는 이 그림처럼 흑1로 우하쪽을 키우면서 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살필 곳이었다. 가령 백2로 한껏 넓혀온다면 흑3·5라는 식으로 좌변을 꼭 파하러 간다. 아무리 봐도 흑은 잡힐 돌이 아니다.

5도(그리 크지 않다)

만약 백2로 자중한다면 그때는 흑3 쪽에서 끝내기 하는 수도 있고 해서 좌변 백집이 그리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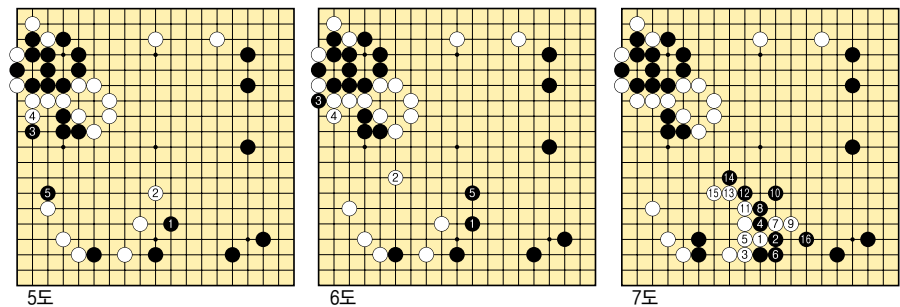
흑5로 뛰어서 충분했던 것이다.

6도(실전진행)

백1이 당연하면서도 호수. 2 이하 백15까지는 흑으로서 본의 아닌 진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좌변이 크게 굳어져서는 흑이 재미없게 되었다.

7도(백2, 안성맞춤)

사족이지만 앞그림 10으로 흑1쪽을 먼저 지키는 것은 백2의 씌움이 안성맞춤이다. 4까지 백집을 크게 허용해 더욱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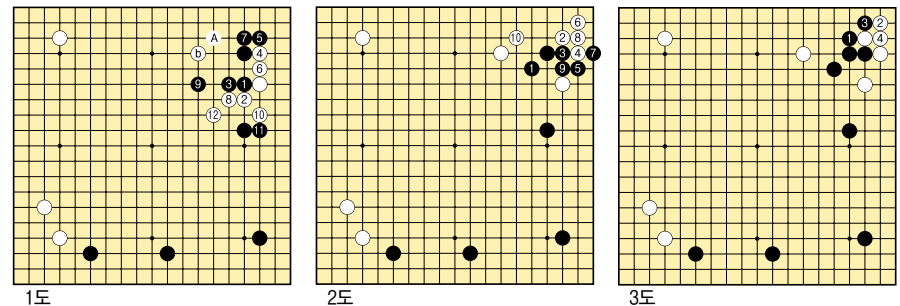
이상한 手 - 하수 다루듯이?

리그 8라운드의 빅카드. 꾸이저우(貴州)팀의 주장 이세돌과 충칭(重慶)팀의 주장 구리의 일전. 중국리그 18연승을 달리고 있던 이세돌은 지난 LG배 결승의 패배를 다소나마 씻을 기회를 맞았다.

우상귀에서 백의 걸침에 흑의 두칸높은협공. 그러자 백은 1의 양걸침을 들고나왔다. 접바둑에서 상수가 하수를 상대로 쓰는 현혹작전 아닌가? 하지만 이상하다면 이상한 이 수가 최근 시도되기 시작해 주목받는 유력수법이였다.

1도(백, 유리)

백의 양걸침에 흑1·3은 매우 상식적인 수법인데, 백4 이하 12까지의 결과를 생



각해볼 때 흑이 당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A가 A의 곳에 있는 것보다 흑의 두터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2도(백, 멋지다)

그렇다면 흑1의 마늘모는 어떨까. 백2의 3·삼침입도 흑3쪽 막음도 당연하다. 백4때 흑5는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 이하 10까지 백이 멋진 모습이다.

3도(흑, 둘 만하다)

앞그림 도중, 흑1로 방향을 트는 것이 좋다. 4까지는 이렇게 될 곳으로 흑도 선수를 잡아 둘 만한 갈림으로 보인다.

4도(백, 곤란?)

흑1·3이 백의 양걸침에 대한 응수로 연구되고 있는 수법이다. 다만 앞길이 험난하다. 백4·6이 강력하다. 얼른 봐서 흑7·9 다음 A와 B를 맞봐 백이 곤란한 것 같지만...

5도(만만치 않다)

백1로 내려서서 버티는 수단이 있어 만만치 않다. 흑2 이하는 기세. 백도 7·9를 선수하고 11·13에 잇고 귀를 위협한다. 흑14 다음-

6도(백, 나쁘지 않다)

백1로 치중하고 나서 3에 지키는 것이 수순. 흑4·6으로 귀를 살린다면 백5·7로 연타해서 어려운 싸움이지만 백도 나쁘지 않다.

7도(실전진행)

실전에서는 흑1·3에 백4로 붙였다. 흑5의 짓힘이 의문. 백6에 흑7의 이음이 불가피해져 백8 이하 12의 씌움을 불렀다. 16으로 빠져나와서 백이 일찌감치 우위에 섰다.

8도(흑1에 설 곳)

흑은 1에 설 곳이었다. 단, 백2에 흑3의 자중은 잘못. 백4에 끊겨 이하 8까지 봉쇄당해 흑이 좋지 않다.

9도(백, 피곤)

앞그림 3은 흑1쪽을 이을 곳이다. 백2에는 흑3·5로 틀어막아서 좋다. 백6에는 흑7 이하 11로 백이 피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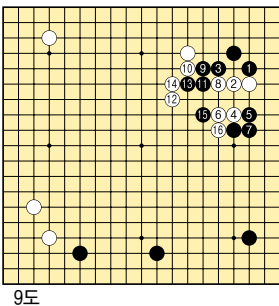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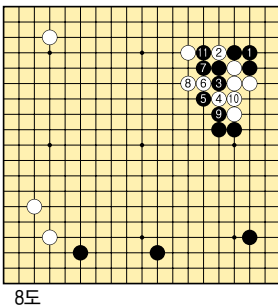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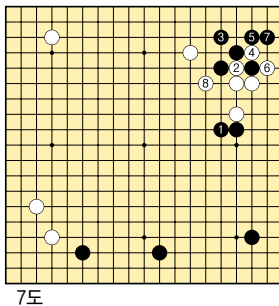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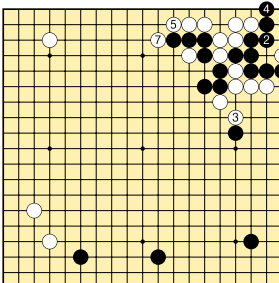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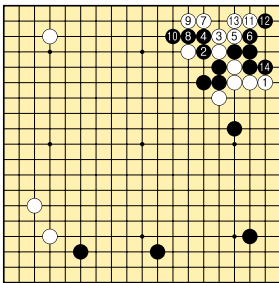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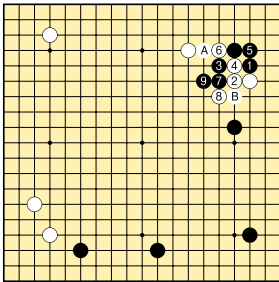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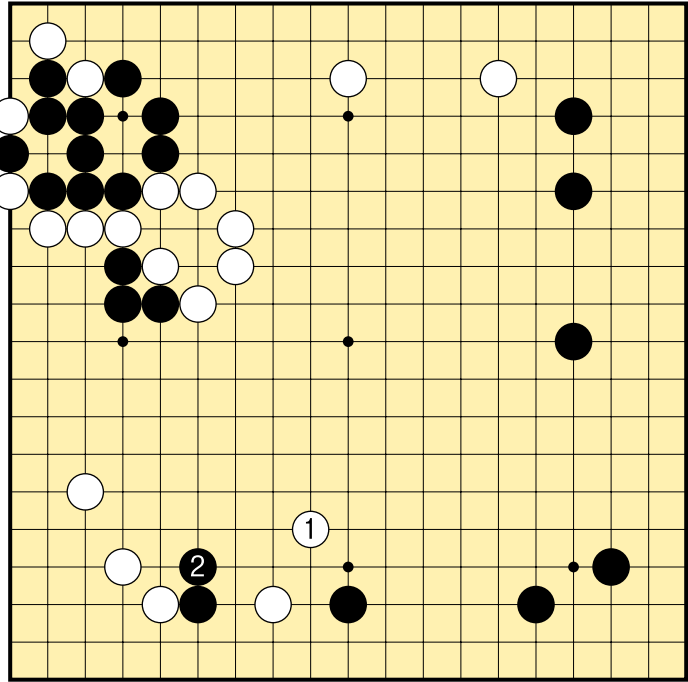
장면 백1 이후의 응점은 아직 결정판이 없다. 앞으로의 연구과제.

<기사제공 : 월간바둑>

제37기 하이원배 명인전 예선결승

○ 목진석 九단 ● 김지석 五단

<제한시간 각 2시간, 덩 6집반, 2009. 6. 30. 한국기원, 181수 끝, 흑불계승>



사이버오로 왕별★스타열전

사이버오로의 최고급 브랜드 ‘우스꽁’

요순시대 이래 강인한 생명력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바둑. 바둑, 하면 으레 나무바둑판 위에 바둑알을 두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작동해 수담을 나누는 전자바둑시대가 됐다. 시중에 바둑을 둘 수 있는 일반 기원은 점점 사라지고, 주변에 대국상대조차 찾기 힘든 현실에서 인터넷 바둑 사이트는 바둑마니아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쉼터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우주관을 뒤바꾼 전환점이었던 것처럼 바둑도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온라인시대의 개화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 사이버오로 기획팀

2009년 6, 7월 바둑계에는 유래 없던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바로 한국랭킹 1위, 이세돌 九단의 휴직파동이다. 시시비비를 떠나 명실 공히 세계최강인 그의 바둑을 당분간 볼 수 없다는 게 바둑팬들의 공통된 아쉬움이었다. 프로와 아마를 막론하고 바둑을 두지 못하는 고통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공식대국에 나서지 않는 이세돌 九단이 이참에 사이버오로를 접수(?)하러 인터넷 바둑세계로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 아무튼 충분히 충전한 뒤 진정한 1인자의 품모로 돌아올 날을 기대해 본다.

이세돌 九단은 이창호 九단, 최철한 九단과 더불어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3인이다. 그렇지만 인터넷바둑은 그다지 즐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공간은 뽁뽁한 공식대국 속에서 가끔 머리를 식히는 곳이지 진검승부의 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모니터 앞의 면벽수련은 취향이 아니라고 느끼는 건지.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에게 인터넷바둑사이트는 제2의 기사실이자 연구실이다. 공식대국이 없을 때에는 이곳에서 속기바둑으로 승부감각을 유지하고 단련한다.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거나,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던 신수들을 테스트해 보며 그 폭발력을 실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프로九단들도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1조 연구생들과 승부의 최전선에서 칼을 가는 젊은 프로기사들이 득실대는 사이버바둑세상의 최강자는 누구일까?

세계 1인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계타이틀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의 기준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사이버오로에서 최강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월간랭킹 최강전 우승자를 말한다. 지난 6월 랭킹최강전 우승자가 가려진 뒤 보도된 기사의 일부분을 보자.

“창검이 난무하는 32강 서바이벌 게임, 엄청난 내공을 지닌 바둑고수들조차 단 한번 우승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오로의 왕별★스타 우스꽁이 랭킹전 5회 우승의 신기록을 달성했다.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린 2009 6월 랭킹최강전 결승3번기에서 ‘우스꽁’이 ‘꿈을향해서’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우승상금 3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월간 랭킹전 통산 5회 우승이며, 이 기록은 오로 랭킹전 역사상 최고기록이다.”

‘10초 바둑’의 왕자

우스꽁스러운 대화명이지만 우스꽁스럽기는커녕 찬탄사만 연발하게 되는 우스꽁 7단★. 전무한 5회 우승 기록에서 보듯 그는 사이버오로 세계에서 이창호 九단에 필적하는 스타이다. 10초 바둑에 관한 한 모든

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수 위로 쳐주는 그다. 7월초 한가한 오후에 홍익동 한국기원 4층 기사실에서 우스꽁을 만나보았다. 이전에 몇 번 보고 느낀 우스꽁에 대한 이미지는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캐릭터(그림)였다. 언제나 귀엽고 어린 느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가까이 마주앉아 보니 180cm가 넘는 흰철한 키에 맑은 눈매와 웃음이 순수해 보이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다.

- 우스꽁이란 대화명이 좀 우습네요. 작명 이유가 있는지?

“그냥 평범한 건 싫었고 좀 우습게 지어보자고 생각하다 그렇게 지었지요.”

- 바둑은 언제부터 두었나요?

“네. 여섯 살 때로 기억해요. 바둑을 알게 된 후에는 정말 재미있어서 제가 졸라 더 배우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바둑을 처음 배우던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바둑의 무엇이 그리 재미있었냐고 묻자, 잠시 고민하더니 “바둑판을 보며 생각하고 수읽기를 하는 것이 참 즐거웠다”고 답한다. 이렇게 운명처럼 마냥 좋아하게 된 바둑인지라 배운 지 일년도 채 안되어 어린이대회에서 덜컥 우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형적인 바둑신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 어린 시절 바둑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바둑도장에서 사활공부를 즐겨했었던 것 말고 주로 실전대국으로 공부했어요. 기보는 오창원 대국집이나 조치훈 사범님 기보를 많이 놓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위기명인기성전 같은 시리즈도 재미있게 보았고요. 오창원 선생님의 기보는 현대와 비교하면 초반진행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다보면 바둑자체가 ‘정말 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의 바둑에는 시대를 떠나서 빛나는 무엇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기사가 오창원 九단이라고 묻자, 방긋이 웃으며 “그래도 이창호 사범님”이라고 답한다.

- 사이버오로에서 평소 대국도 자주 하고 우승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이버오로를 즐겨 찾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초속기 대국이 기량연마나 실전대



국의 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0초 바둑으로 대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사이버오로 뿐이에요. 물론 시간이 짧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실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20초 바둑은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인터넷 대국은 제게 오락적인 면보다는 실전연습과 바둑공부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몇해 전 첫 타이틀을 따게 된 것도 사이버오로에서 속기로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몇해 전 첫 타이틀을 땀다고 자기 입으로 밝혔다.^^;; 우스꽁의 실체를 밝힐 만한 중요한 단서다.)

진검승부를 앞둔 무사가 항상 칼을 갈고 있듯이 우스꽁은 항상 인터넷에서 속기를 통해 감각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바둑을 잘 둔다’는 것과 ‘바둑을 이긴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우스꽁의 바둑은 빠르고 정확한 수읽기, 통통 튀는 신선한 감각과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전투력 등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실력의 출중함을 떠나서 그의 바둑을 관전하다 느껴지는 가장 큰 강점은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게 승리를 뉘아내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승부의 요점과 타이밍을 빨리 찾고 대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던 곳이 인터넷이었다면 좀 과장일까?

- 입단 후에 1인자 이세돌 九단, 이창호 九단과 대국해 본 느낌은 어땠나요? 또 이 분들 외에 떠오르는 기사가 있다면?

“이세돌 九단은 전투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도 집차지보다는 수읽기를 통한 전투를 즐기는 편인데 기풍이 유사해서 그런지 아직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이창호 九단과 대국하면 평범한 수를 두어도 뭔가 의미 있는 좋은 수로 보이고, 뛰

랄까 압박감이 상당해요. 사실 압박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력의 문제이겠지만.... 두 분 외에는 박영훈 九단이 생각나네요. 요즘 컨디션이나 실력이 워낙 상승세라서요.”

이세돌, 이창호 九단은 아직 한수 위라고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박영훈 九단 다음의 실력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응수타진해 보았지만 머뭇거리며 확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스꽝이라고 써도 되냐고 농담을 건네자 천진하게 웃기만 할 뿐이다. 사실 서열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요즘 한국바둑은 하루가 다르게 신흥강자가 몸을 일으키고 있다. 강동윤 九단이 이창호 九단을 꺾고 드디어 세계대회(후지쯔배)를 제패했듯이 머지않아 우스꽝의 세계도 올 것이다.

이창호와 소녀시대 ‘태연’을 좋아하는 청소년

- 바둑 외에 다른 취미가 있다면?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주로 이동할 때 mp3로 듣곤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소녀시대’라고 한다. (소녀시대는 최근 인기절정의 9인조 여성그룹의 이름이다.) 소녀시대 멤버 중에는 ‘태연’이 가장 맘에 든다고 한다. 좋아하는 여성스타일도 태연처럼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 사이버오로에서 대국하며 인상 깊었던 왕별 대화명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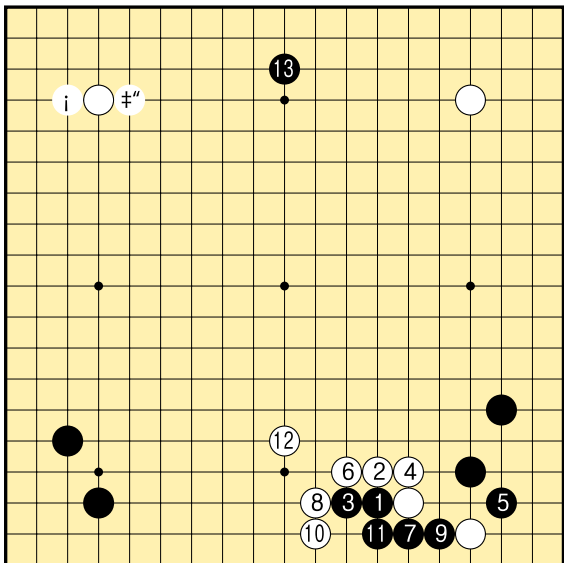
“shay 7단★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저하고 대국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기풍은 모르겠어요. 제일 걸끄러운 상대는 동가 7단★입니다. 제일 많이 지기도 한 것 같고.... 하여간 쉽지 않은 상대라 기억에 남습니다.”

- 요즘에 연구하는 포석이 있다면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미니중국식 신형도 많이 두지만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흑으로 이 포석을 가장 많이 써보고 있어요. 화점에 옆구리 붙임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장면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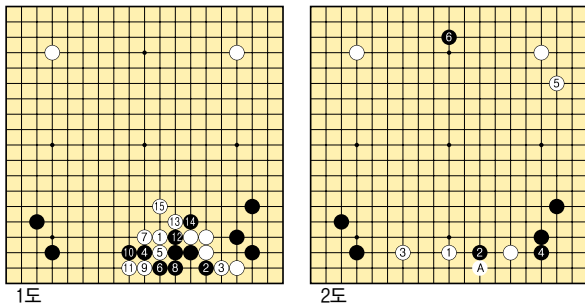
장면1-최신정석

최근에는 백4, 흑5의 교환 이후 백의 입장에서 6으로 한번 더 밀어 12까지, 간명한 갈림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흑13의 갈라침은 우하변 백의 두터움과 상변 양화점을 견제한 절대의 한수. 백이 양화점이 아닌 가의 소목에 있는 형태라면 흑이 갈라침 대신 나의 한칸걸침을 택한다. (며칠 후 열린 이창호 九단과 강동윤 九단의 후지쯔배 결승전에서도 이 수순이 그대로 나왔다.)



1도(흑, 약간 좋다)

예전에는 이렇게 백1 한칸으로 씌우는 것을 연구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지만 흑이 약간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2도(간명책)

백의 입장에서 장면1의 변화가 싫다면 백1, 세칸으로 그냥 벌리는 수도 있다. 이후 흑2에 대해 A의 밑 붙임으로 대응한다면 흑은 손을 빼고 큰 곳으로 간다. 백의 입장에서는 흑2에 대응하지 않고 발빠르게 백3으로 벌리는 간명책도 있다.

- 사이버오로의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도 오로 대국실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월간랭킹전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는 주로 10초 바둑을 둘 것 같아요. 가끔 지더라도 변함없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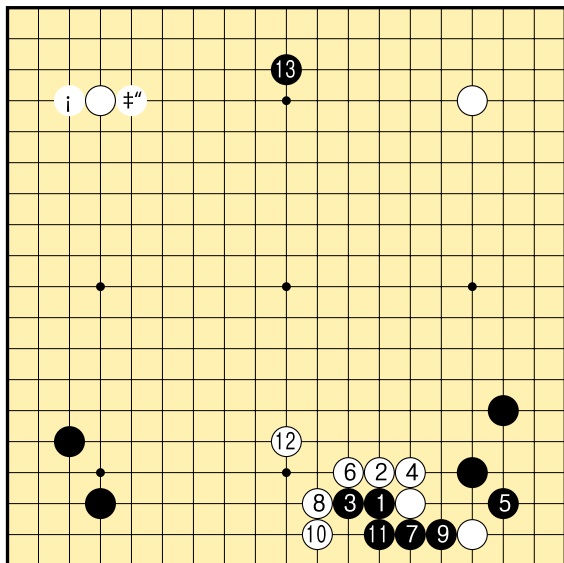
초여름 푸른 잎사귀와 같은 젊음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인터뷰 내내 눈동자에 비치는 순수함과 영민함이,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당당함과 가능성이 마냥 부럽기만 할 뿐이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한국바둑계의 우량상승주가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리허설 현장이다. 오늘밤은 승전을 준비하는 잠룡의 기지개를 보는 심정으로 우스꽝의 대국을 관전해 보시길 권한다.

장면2-사이버오로 6월 랭킹최강전 본선 2회전

초반진행인데 백12가 약간 느슨한 수이다. 실전처럼 진행된 결과는 편하게 안정한 흑이 좀 더 좋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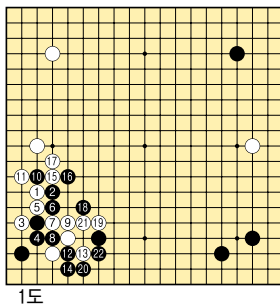
○ 에반게리온 7단 ● 우스꽝 7단

<2009.6.11. 제한시간 20분 30초 3회, 덤 6집 반, 125수 끝, 흑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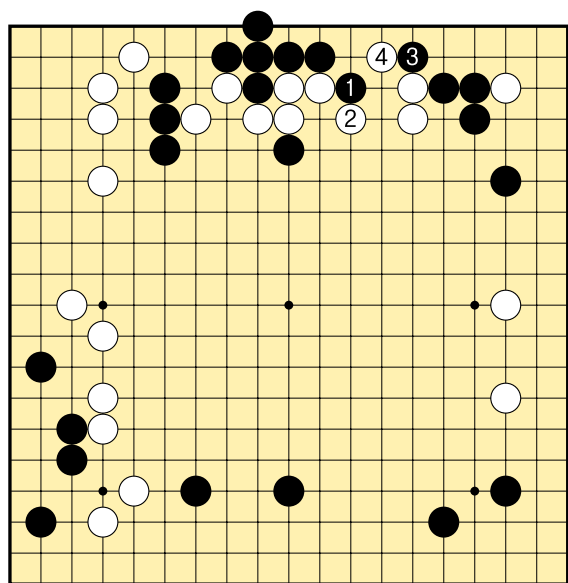
1도(예상하고 있었다)

우스꽝은 이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백은 당연히 1로 협공하여 싸워야 할 자리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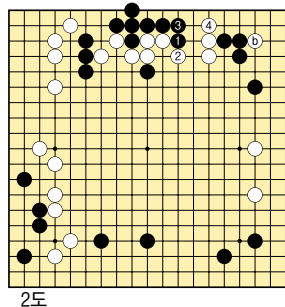
장면3

다시 실전. 흑1·3 위아래로 찢힌 것이 마치 어퍼컷 한방을 날리고 로우킥으로 걷어찬 듯한 리듬감 있는 호작. 이후 흑이 상변의 처리가 잘돼 승세를 굳혔다. 우스꽝도 “이 수순은 정말 좋았다”고 한번 더 강조한다.



2도(아프고 귀의 맛도 달라진다)

생각 없이 흑3으로 잇고 백을 그냥 뺏게 해주면 자체로도 아프고 또 귀에서 백A가 움직이는 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장면3의 흑3으로 하나 찢혀 활용해 두고 손뻗 것이 기묘한 감각이라는 것.



장면4

실전. 흑3으로 뺏었을 때 손빼고 백4로 붙인 것이 무리. 흑7로 끊고 9의 곳 급소를 두어서는 백대마 전체가 위태로워졌다. 이 순간 승리를 확신했다고 한다. 우스꽝의 완승국.

